

국립국어원 2013-03-07

국어문화학교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8회 강사 연수회 자료집

일시: 2013. 7. 10.(수) ~ 7. 12.(금)

장소: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박물관

주최:  국립국어원

주관: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사 연수회 목표

1. 국어문화학교 강사로서의 수행할 역할 인식 및 역량 배양
2. 교수법, 교수 전략 학습으로 교수 요원 역량 강화
3.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국어문화학교 교육 발전 방안 토의

□제8회 강사 연수회 일정

제1일 (7월 10일)	등록, 개강식 및 특강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국립국어원 원장) - 환영사(동아대 국어문화원 원장) - 과정 운영 관계자 및 강사 연수회 취지 소개
14:30~16:00 (90분)	특강 - 한국어 어문 규정 교육의 의미(이관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6:10~17:50 (100분)	주제 발표 1 - 한글 맞춤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박종덕,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18:00~20:00	만찬 간담회 - 국어문화학교 운영 관련 건의 사항 논의

제2일 (7월 11일)	강의, 종합 토론
07:30~09:00	아침 식사
09:30~11:10 (100분)	주제 발표 2 - 표준어 규정 교육의 이해와 실제(권미영,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11:20~13:00 (100분)	주제 발표 3 - 외래어·로마자 표기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김주미,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13:00~14:30	점심 식사

14:30~16:10 (100분)	주제 발표 4 - 문장 바로 쓰기 교육의 이해와 실제(방영심,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강사)
16:20~18:00 (100분)	토론 및 자유 발언 - 한국어 어문 규정 교육의 현장에 관한 토론회(박미영·김주미, 국립국어원)
18:00~19:00	저녁 식사, 자유 시간

제3일 (7월 12일)	강의, 종합 토론 및 평가회
07:30~09:00	아침 식사
09:30~10:30 (60분)	주제 발표 5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 교육 자료 공유(하영우, 국립국어원 연구원)
10:40~11:40 (60분)	주제 발표 6 -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육 자료 공유(전영곤,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사)
11:50~12:00 (10분)	평가회(연수회 평가, 설문조사)
12:00~13:00	점심 식사, 해산



소 개

1. 국립국어원 소개 1
2. 국어문화학교 소개 4
3.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소개 8

교과목

1. 한국어 어문 규정 교육의 의의와 실제
이관규 | 고려대학교 11
2. 한글 맞춤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
박종덕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33
3. 표준어 규정 교육의 이해와 실제
권미영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51
4. 외래어·로마자 표기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
김주미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61
5. 문장 바로 쓰기 교육의 이해와 실제
방영심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95
6.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 교육 자료 공유
하영우 | 국립국어원 107
7.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육 자료 공유
전영곤 |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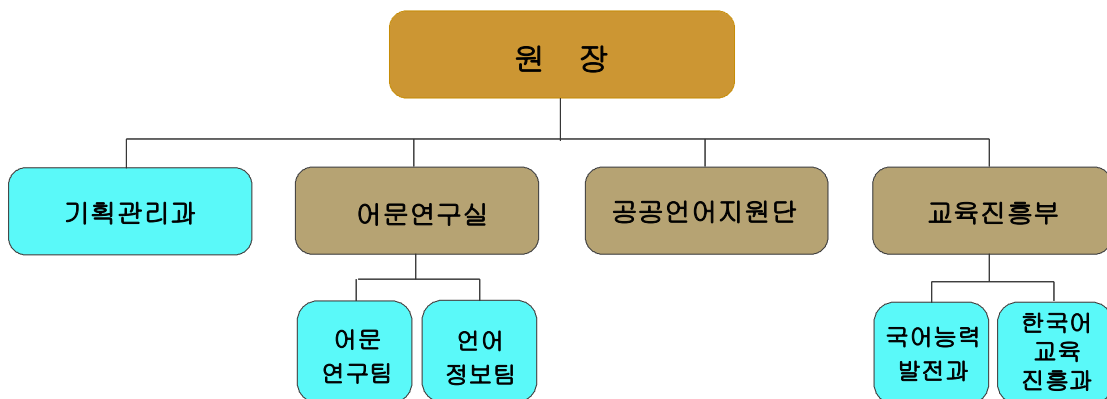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소개

설립 목적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국어·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



원 장	기 획 관 리 과	서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분석, 국회 관련 업무, 감사 및 사정 업무 등
	어 문 연구 실	<p>◆ 어문연구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 ■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 어문 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 세계 언어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p>◆ 언어정보화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 조사 ■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 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전산 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 ■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 지역어 발굴 및 연구·조사 ■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언어 지 원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전문 용어 정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교 육 진흥 부	<p>◆ 국어능력발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교육 연수 발전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 교육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p>◆ 한국어교육진흥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 ■ 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한국어 보급 기관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하는 일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2) 가나다 전화(1599-9979, 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섬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국어문화학교 소개



개 관

국어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인하여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의 신청으로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운 영 목 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 영 현 황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1년에는 약 1,300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약 3,800명에 이르러, 12년간 약 2만 7천 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2.	국어반과 번역반을 3일간씩 출판인반, 일반인반, 청소년반, 공무원반으로 운영
1999. 8.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5점 가산)을 승인
1999. 10.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국어반 (5일간, 35시간), 번역반(3일간, 21시간) 운영
2000.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2005. 10.	서울방송 신입사원 국어 교육(신입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20여 명)
2005. 12.	법제처 국어 전문 과정 교육(법제처 공무원 22명)
2006. 2.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원 대상 찾아가는 국어 강좌 공동 연수 개최 (전국 10개 국어상담소, 상담원 26명)
2007. 5.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국어진흥교육팀 신설.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채용
2009. 5.	직제 개편으로 국어능력발전과에서 국어문화학교 관련 업무 수행
2009. 10.	언론·출판인 대상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1.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2.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운영 시작
2010. 6.	새터민 대상 특별 교육 과정(표준어 교육) 운영 시작
2011.	새터민 대상 표준어 교육 실시 경기도 교육청, 강서 교육청과 업무 협정으로 지역 내 학생 대상 우리말 교실 운영
2012.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과 업무 협정으로 특별 과정 운영 지역아동센터 우리말 교실 운영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운영 시작

국어문화학교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연 도	과 정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19	1,292	123	15,142
2002년	19	1,452	185	16,970
2003년	16	1,486	157	17,890
2004년	17	1,458	176	16,332
2005년	17	1,765	195	15,655
2006년	18	1,921	190	12,926
2007년	22	2,354	253	19,305
2008년	24	2,443	148	10,275
2009년	27	2,733	297	19,062
2010년	35	3,174	316	27,804
2011년	29	2,701	334	28,689
2012년	36	3,841	486	34,347
합 계	279	26,620	2,860	234,397

교육 과정 안내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연습, 띄어쓰기, 띄어쓰기 연습,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공문서 바로 쓰기, 글쓰기 지도, 협력적 의사소통, 우리말 다듬기, 훈민정음의 이해, 시청각 학습 등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읽고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학교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협력적 의사소통 등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수강하고 싶은 달의 전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문화 등
- *강의료는 국립국어원에서 부담하고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함.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을 통하여 현재 ‘한글 맞춤법’,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훈민정음의 이해’ 등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 신청하고 학습할 수 있음.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소개

추진 배경

국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소통의 시대를 열 필요

국어운동 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한국어 정화 요구 증대



사업의 비전

누구나 쉽게 소통하는 **한국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국어**



사업 방향



추진 체계

쉬운 공공언어, 품격 있는 방송언어,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



추진 단위별 역할

문체부 (국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부처 협조 체계 구축 • '우리말 가꿈이' 및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국립국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연구,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사업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 • 바른 언어 사용 기준 마련, 지침서 발간, 참여자 교육, 시민 대상 강좌 개설 및 운영 등 민간 활동 지원
참여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 사랑 동아리 활동가 모집 및 양성 •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우리말 사랑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역의 언어 환경 조사 및 개선 활동 • 우리말 가꾸기 시민 운동 전개 및 분위기 확산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행동 자가 점검 및 실천 항목 작성, 이행 • 가정, 직장 등에 전파하여 우리말 가꾸기 참여 유도

문화 융성,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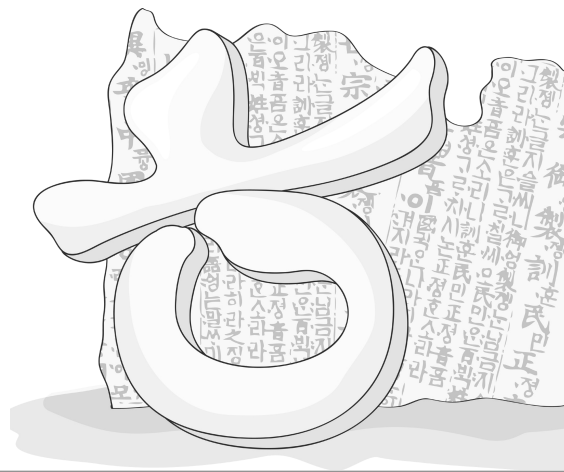
누구나 쉽게 소통하는 한국어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국어

국립국어원, 국어 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력
국민 각자의 자각과 변화 노력



한국어 어문 규정 교육의 의의와 실제

이관규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 어문 규정 교육의 의의와 실제

이관규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차례

1. 들어가기
2. 독일과 한국의 어문 규정 정책: 동(同)과 이(異)
3. 어문 규정 교육의 의의: 목적과 필요성
4. 어문 규정과 언어 예절의 관계: 정(靜)과 동(動)
5. 어문 규정 교육의 실제
6. 나아가기

1. 들어가기

1.1. 열기

○ ‘모든 형식은 가치가 있다.’ => ‘틀리다’냐 ‘다르다’냐?

★1 예) “월래”(?) ‘맞춤법을 틀리면 연애도 못한다’

○ 어문 규정 교육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 어문 관련 기관의 변천: ‘이론에서 실제로!’

국문연구소(1907)->국립국어연구소(1984)->국립국어연구원(1991)->국립국어원(2004)

1.2. 제기

㉠ 우리나라 어문 규정 정책의 특성은?

㉡ 어문 규정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은?

㉢ 어문 규정과 언어 예절의 관계는?

㉣ 어문 규정 교육의 실재는?

2. 독일과 한국의 어문 규정 정책: 동(同)과 이(異)

2.1 독일의 어문 규정 정책

● 특성

정부 주도 -> 《두덴사전》★2 -> 정부 주도

통일 언어생활 목적: 간소 대 관습

● 과정

-독일은 1871년 통일 국가 수립(프로이센 재상 비스마르크)

- ① 1876년 프로이센 정부 주관 제1차 맞춤법 제정 회의(14명 베를린) -> 대부분 지방 정부가 합의안을 거부

-1872년 고등학교 김나지움 교사 두덴 출간한 맞춤법 사전 《두덴사전》 24번 개정판

- ② 1901년 제2차 맞춤법 제정 회의(26명) -> 독일의 최초 어문 규범 -> 단일화 주안점
-2차 세계 대전 후 서독 정부는 《두덴사전》에 맞춤법 문제 맡기기로 함.

- ③ 1996년 새로운 공식 맞춤법 개정안 발표 및 실시(<-1901년 맞춤법)

-1977년 독일 국립국어연구소에서 준비함. => 간소성과 명료성 추구: -> 언중의 기존 표기 포기 안 함. <예: 명사 아닌 것은 대문자 포기: der Heiliger Vater -> der heiliger Vater>

- 찬반으로 나뉘어서 연일 논란 거셈.

‘프랑크푸르트 선언’(지식인) 대 ‘드레스덴 선언’(정부)

독일어문학 교수들 600여 명 맞춤법 개정에 반대. 일부 학부모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함.

유력 일간 신문(FAZ)는 기본 맞춤법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함. 시사 주간지

‘슈피겔’, 중앙 일간지 ‘쾰트도이체 자이퉁’ 기존 맞춤법 귀환

- ④ 2006년 새로운 개정안 발표 및 실시

<= 2004년 독일어맞춤법자문위원회(RDR) 구성(개정+반대주의자 37명)

- 지방 정부가 어문 규범 권한을 각자 가짐.

16개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교육문화부장관회의(KMK)에서 협의하여 단일하게 실시

-이진희(2013). 독일의 맞춤법 개정 과정과 교훈. 『새국어생활』 23-1.

2.2. 한국의 어문 규정 정책

● 특성

민간 주도 -> 민간과 관 주도 -> 관 주도

민족어 지킴 및 회복 의도로 만들어짐 -> 공통 언어생활: 형태주의와 음소주의

○ 국문연구소(1907):

1907. 7. ~1909. 12. 23회의 회의 ‘의정안(議定案)’ 작성: 10제 ★3

일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 ->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대요(1921) -> 언문철자법(1930)

- 4대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표준 언어 예절 (<= 표준 화법 1992)
학교 문법 (2012 <= 2002 …… 1985 <= 1979 <= 1966 <= 1956 <= 1949……)

● 한국의 어문 규정 변천

○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적는 방법을 제시한 규정이다. 멀리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에 반침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을 적는 8종성법이 있었고, 17세기 이후에는 ‘ㄷ’ 대신 ‘ㅅ’을 적는 7종성법도 있었다. 그러다가 1933년에 민간 학술단체인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거기서는 모든 자음을 종성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안은 1940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입장은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맞춤법 규정인 ‘한글 맞춤법’(1988년)에서 대체로 받아들여졌으며,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 표준어 규정은 공식어로서의 표준어를 제정한 규정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인데, 거기서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후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표준어 규정은 1988년에 제정된 것인데,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표준말-비표준말’이 아니고 ‘표준어-비표준어’가 대응되고 또 문자로서의 표준어 맞춤법뿐이 아니라 음성으로서의 발음법(표준어 발음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표준어 사정 원칙을 고려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현재’를 ‘현대’로 바꾼 것은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고려한 듯하다(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현재 국어)).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두루 쓰는’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 하더라도 ‘두루’ 쓰지 않으면 표준어가 되지 않는다는 보편성의 원리를 말한 것이다. 결국 ‘현대’는 시대성, ‘서울말’은 지역성, ‘교양 있는’은 계층성(또는 사회성), 그리고 ‘두루 쓰는’은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는 잘못된 표현임을 뜻함. 이하 동일함).

○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한글로 적는 법을 제정한 규정이다. 본래 외래어란 고유어와 상대적인 용어이지만, 규정에 나타나 있는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가리키고 있다. 실제로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우리말이 아닌 외국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외래어 표기법은 1940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부터 시작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문교부의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을 거쳐서 현재는 ‘외래어 표기법’(1986)이 시행되고 있다.

2000년 7월 7일에 공식 공포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음 나마자 표기법’(1941), 문교부의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1948)과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195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1984)을 거쳐,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심의와 공청회를 거쳐서 나온 공식 개정안이다.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은 외국인용 표음주의 원칙을 내걸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로마자 이외의 표기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국인용 형태주의도 일부 수용한 안이라 할 수 있다.¹⁾

1)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가 차원에서 나온 네 번째 공식 개정안이다. 1984년에 나온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표음주의(음소주의)에 입각한 머큐-라이샤워(Mucune-Reischauer) 표기법을 대폭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으나, 2000년에 나온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반달표(̣)와 어깨점(̂)을 배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표의주의(형태주의)를 따르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컴퓨터 시대에 맞게 불필요한 부호를 없애고자 한 교육정책에서

-이관규(2012). 『학교 문법론(제3판)』. 월인.

★4 ★5

3. 어문 규정 교육의 의의: 목적과 필요성

3.1. 어문 규정 교육의 의의 (목적)

● 어문 규범 교육의 의의(목적)

㉠사고력 신장 - [탐구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배양: 표현과 이해 능력

★6 예) 장동건아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 ★7 몸만들어 오세요

㉢자존감 고양

㉣국어 의식 배양: 국어 사랑과 나라 사랑

3.2. 어문 규정 교육의 필요성

★8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독서력과 작문력과 화법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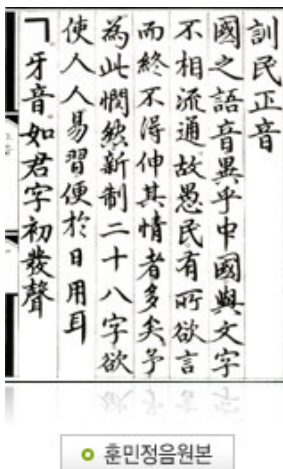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고…… 잘 안 읽히는 부분 어디인지 무엇인지 생각하며……

어휘 찾고 문장 구조 살피고……

○쓰고 나서 다시 읽어 보고…… 이상한 부분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읽고……

○문장 부호, 띄어쓰기……

● 세종 어제 훈민정음



나온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에게 어렵고 내국인에게는 쉬운 표기법이 되었다.

○ 世宗御製 訓民正音 (원문)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호야 與文字로 不相流通호썻 故로 愚民이 有所欲言호야도 而終不得伸其情者ㅣ 多矣라 予ㅣ 爲此 憫然호야 新制二十八字호노니 欲使人人으로 易習호야 便於日用耳니라

○ 世宗宗御製 訓民正音 (언해문)

나라말씀미 中興國국에 달아 文文字쪽와로 서르 스몏디 아니호썻 이런 전츠로 어린 百億姓성이 니르고져 흥배 이셔도 므츨내 제 쓰들 시러퍼디 몬흥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윙호야 어엿비 너져 새로 스물여덟字쪽를 땡그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너져 날로 뿌메 便便安한키호고져 흥 쓰르미 니라

○ 세종어제 훈민정음 (현대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아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나] <<표준국어대사전>>이면 모든 것이 해결?

○사전은 많고, 모두 다르다 ->

표준국어대사전 50만 / 연세한국어사전. 18만, 사용 빈도 근거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37만(‘꽃미남, 알바생, 알짬없다’ 등 4만여 개의 표제어를 새롭게 등재함.) /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 북한 조선어대사전 / 금성판 국어대사전 ……



●나-1. ‘꼬이다’인가 ‘꼬시다’인가?

<<표준국어대사전>>(1999)

꼬시다⁰¹
「형용사」 『방언』
‘고소하다⁰¹’의 방언(강원, 경상).
꼬시다⁰²
「동사」
→ 꼬이다⁰⁴.

꼬다⁰³[꼬 : -/꺾 : -] [꺾어[꺾어/꺾여](꺾[꺾 :]), 꺾니[꼬 : -/꺾 : -]]

「동사」

【…을】

그렇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끝다. ㄴ꼬이다⁰⁴.

【< 다<월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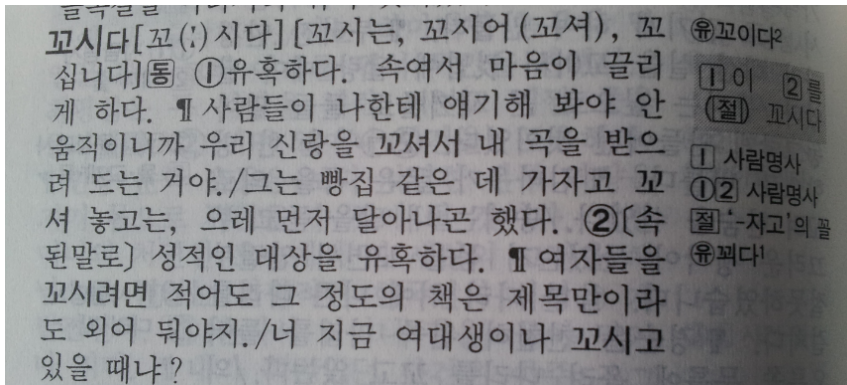
꼬이다⁰⁴ [꼬이어/--어/--여](꼬여), 꼬이니]

「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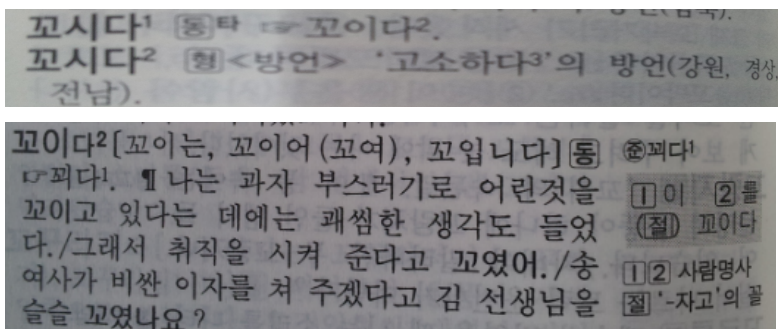
[...을]

=되다⁰³.

<<연세한국어사전>>(1998)



<<고려대한국어대사전>>(200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oki1492&logNo=30140468103>

★9 안드리아 보첼리(이탈리아, 성악가, 변호사) / 사라 브라이트만

<http://cafe.daum.net/yogicflyingmini0B0/RgMi/203?docid=1OtXV|RgMi|203|20120427154331&srchid=IIMuKLrN500#Athumb.jpg.edit&srchid=IIMuKLrN500>

●나-2. '장님'의 뜻풀이: 비어-평어-경어?

사전 종류	뜻풀이	용례
표준국어대사전 (1999)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그는 한때 자기가 검은 안경을 쓰고 장님이 되어 안마쟁이 노릇을 하는 상상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 《서정인, 강》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	‘시각 장애인(視覺障礙人)’을 알잡아 이르는 말.	㉮ 장님을 위해 만들어 놓은 횡단보도의 신호음이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다. / 이런 개명한 세상에 글자를 모른다는 것은 눈든 장님이나 진배없다. / 예전 시집살이가 오죽했으면 병어리 삼 년, 장님 삼 년, 귀머거리 삼 년이라 했을까?
연세한국어사전 (1998)	눈이 먼 사람.	㉮ 장님들이 손가락으로 먼저 물건을 확인하는 것은 손이 눈 대신 예민하게 발달했기 때문이야.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1)	‘소경’의 높임말.	장님 손 보듯 한다. 장님 은빛 보기다. ……
우리말큰사전 (1992)(한글학회)	‘소경’의 높임 말.	장님 개천 나무란다. 장님 손 보듯. 장님이 넘어지면 지팡이 나쁘다 한다. ……
조선어대사전 (1992) (사회과학출판사)	《앞못보는 소경》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	장님이 눈을 뜨다. 대성이는 장님처럼 발터듬하여 조심스럽게 물가운데로 한걸음 두걸음 걸어갔다. (《조선단편집3》)

4. 어문 규정과 언어 예절의 관계: 정(靜)과 동(動)

4.1. 어문 규정과 언어 예절의 관계

밀접한 관련성: 정과 동

어문 규정이 먼저인가? 언어 예절이 먼저인가? 아니면 둘은 같은 것인가?

4.2. 표준 언어 예절

● <<표준 언어 예절>>(2011) ★10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2009)’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2010)’

● ‘표준 언어 예절’ 몇 가지

(1) 성인도 ‘엄마’, ‘아빠’로 호칭

어머니, 아버지 호칭을 놓고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어릴 때에는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성장 후에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표준으로 하였었는데, 2011 <표준언어 예절>>(2011)에서는 성장 후에도 어머니, 아버지 호칭으로 친근함을 담아 ‘엄마’, ‘아빠’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20~50대 많이 사용, 언중 죄책감 느끼지 않게 함.)

※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2009) (단위: %)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성별	
	세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40대	50대 이상		
엄마	95.7	78.0	65.3	62.1	92.6
어머니	4.3	18.7	28.8	32.0	6.6
어머님	0	3.3	5.9	5.9	0.9

※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2010) (단위: %)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	
엄마	66.7	아버지	62.2
어머니	29.4	아빠	32.7
어머님	3.7	아버님	5.0
기타 (엄니, 할매, 모친, 아줌마)	0.2	기타 (아부지, 어른)	0.0

(2) 남편을 가리켜 ‘신랑’(?), ‘자기’(?) ★1

표 1-10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여보, ○○ 씨,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영감, ○○[손주, 외손주] 할아버지
지 칭	당사자에게	당신, ○○ 씨, 영감
	시부모에게	아범, 아비, 그이
	친정 부모에게	○ 서방, 아범, 아비
	남편 동기에게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형, 형님, 동생, 오빠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게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친정 동기와 배우자 에게	손위 동기에게 ○ 서방,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손위 동기의 배우자에게 ○ 서방,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손아래 동기에게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대형, 자형, 때부, 형부
		손아래 동기의 배우자에게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며느리에게	아버님
	사위에게	장인, 장인어른, 아버님
	친구에게	그이, 남편, 때아버지, 애 아빠,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남편 친구에게	그이, 때아버지, 애 아빠,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바깥양반, 바깥사람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 때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아는 사람에게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바깥양반, 바깥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남편, 때아버지, 애 아빠



(3) 처남의 아내 호칭, 지칭에 ‘**처남댁**’ 허용

〈기초 연구(2009)〉에서 ‘아내 오빠의 부인을 부를 때’ ‘처남(의) 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어사용 실태 조사(2010)〉 결과 처남의 아내를 부르는 말로 ‘처남(의) 댁’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이 두 조사에서는 ‘처남의 댁’, ‘처남댁’의 사용빈도를 따로 조사한 것은 아니다.) 현재 ‘처남댁’을 호칭, 지칭할 때 많이 쓰고 있으므로 ‘처남의 댁’과 함께 ‘처남댁’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인정하였다.

(4) ‘손님’, ‘**고객**’, ‘**승객**’

식당 등의 영업소, 은행, 관공서 측에서는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손님’으로 부르고 가리키도록 하였다. 다만 상황에 따라 ‘승객’ 등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고객’은 일본식 한자어로 불인정)

(5) ‘**-시-**’의 남용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주문하신 상품 나오셨습니다.’(?))

백화점이나 홈쇼핑 채널에서 ‘이 구두는 분이 **뵈으셔서** 발이 편하세요.’, ‘모든 상품이 **품절이세요**.’와 같이 사물 주체에 ‘-시-’를 사용한 표현을 흔히 볼 수 있다. 〈국어사용 실태 조사(2010)〉 결과, 직원들의 비문법적인 과대 존경 표현에 대해 응답자의 60% 이상이 어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존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물에 ‘-시-’를 붙여 존경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2010) (단위: %)

“봉투 값은 오십 원입니다.”에 대한 듣기 경험	
매우 자주 듣는다	4.7
종종 듣는다	20.9
보통이다	16.4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39.6
전혀 들어 보지 못했다	18.4
“봉투 값은 오십 원입니다.”에 대한 수용성	
아주 어색하다	27.3
어색하다	35.8
보통이다	19.7
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10.6
자연스럽다	6.6

(6) 직장, 사회에서 아랫사람에게도 공대

직장, 사회에서 동료,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 관해 말할 때에도 ‘-시-’를 넣어 존중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동료에 관해 말할 때 누구에게 말하는가에 관계없이 ‘-시-’를 넣어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쓰도록 정하였다. 또 직장 사람들끼리 말할 때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요.’처럼 ‘하십시오체’, ‘해요체’를 써서 적절히 높여 말하도록 정하였다.

(7) ‘시간 + 되세요’는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좋은 하루 되세요.’는 ‘남은 오늘을 잘 보내세요.’라는 의미로 쓰지만 인사를 듣는 사람이 ‘좋은 하루’ 그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되는 인사이다. 시간과 관련된 말 뒤에 ‘보내다’라는 의미로 ‘되세요.’를 쓰면 표현이 어색해지므로 사용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즐거운 연휴 되세요.’도 듣는 사람이 ‘즐거운 연휴’ 자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8) ‘축하드립니다.’ 허용 ★12

흔히 사람들은 ‘축하합니다.’를 높인 표현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를 줄인 표현으로서 높임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축하’ 역시 인사이며 정중한 느낌으로 ‘인사를 드리다.’, ‘인사의 말씀을 드리다.’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두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의 줄인 표현으로 ‘축하드립니다.’를 쓸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축하합니다.’를 쓰도록 정하였다.

(9) 압존법 허용 (1992, 2011) ★13 -가정과 직장

부모를 조부모께 말할 때에는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처럼 부모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 언어 예절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전통도 변하여 부모보다 윗분에게도 부모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현실을 인정하여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와 같이 부모를 부모의 윗사람에게 높여 말할 수도 있다.

(10)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의 순서

㉠ 친소 관계를 따져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한다.

예) 어머니를 선생님에게 먼저 소개함.

㉡ 손아래 사람을 손위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예) 아래 직원을 상사에게 먼저 소개함.

㉢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섞여 있을 때에는 ㉠, ㉡, ㉢의 순서로 적용한다.

(11) 문상 인사말

상황	문상객의 말	상주의 말
일반적으로 두루 쓸 수 있는 말	[말없이 인사만 한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뵙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모상의 경우	[말없이 인사만 한다.] 얼마나 망극(罔極)하십니까?	

-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2011 ‘표준 화법 보완을 위한 토론회’ 자료 등
-국립국어원(2011). 『표준 언어 예절』. 국립국어원.

5. 어문 규정 교육의 이념과 실제

5.1. 어문 규정 교육의 기본 이념

● 어문 규정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죽은 어문 규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문 규정을 원한다.

어문 규정이 언어생활을 이끄는가 아니면 언어생활이 어문 규정을 이끄는가?

● 어문 규정은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의의’는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 첫음절 이외에서는 [이]로 발음하는 게 허용되며, 또 조사에서는 [에]로 발음하는 게 허용되어 있다. 이에 따른다면 [민주주의의 의의]가 원칙적인 발음이며, [민주주의의 의이], [민주주의에 의의], [민주주의에 의이],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이], [민주주의에 의의], [민주주의에 의이] 발음이 허용된다.²⁾ 결국 정확한 발음이라는 것은 원칙적인 발음이 아니라 적절한 발음이라는 뜻이며, 이는 곧 지식은 절대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지식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탐구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어 지식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개별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가르치는 교사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학습자도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별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의 답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가)에서 보는 것처럼 ‘뒹-, 접-’을 비롯하여 ‘늦-’도 합성어를 형성하는 어근(語根)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어 교사를 뽑는 한 임용시험 문제에서 ‘늦잠, 작은아버지’를 특수한 파생어라고 하고서는 결국 ‘늦-, 작은-’을 접사로 보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어근으로 인정되는 것이 정작 교사를 뽑는 시험에서는 접사로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언어 표현에 대한 지식이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더구나 (나)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 기관에서 나온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늦-, 작은-’에 대해서 접사로 보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가) ㄱ. 다음 예로 합성어를 탐구하여 보자.

뒹밟, 접칼, 늦더위

2)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ㄴ’ 발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본래 ‘ㄴ’는 [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ㄹ]로 발음해야 하며,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하고 있다.

- 이 합성어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특징을 알아보자.
-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합성 명사의 예를 더 찾아보자.

〈교육인적자원부, 2002:87〉

ㄴ. 2009학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문제 13번

13. 국어 파생어를 이해하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의 계획적인 계획이다.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수·학습 과정 및 내용	예시 자료
(가) 도입	
○ ㉠ 파생어와 합성어의 정의 제정인	교수용: 눈웃음
○ ㉡ 접사의 종류 제정인: 접두사, 접미사	(생략)
(나) 전개	
○ 접두 파생어	(생략)
○ 접미 파생어	(생략)
○ 특이한 파생어	
- ㉢ 파생어 구조가 특이한 경우	단어, 새롭다
- ㉣ 접두사가 이형태를 가지는 경우	외롭다/외웠다, 편승/편승케
- ㉤ 합성어의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늦잠, 쇠고기, 작은아비지
⋮	⋮
(다) 정리	
○ ㉥ 평가	
※ 다음 중 파생어가 아닌 것은?	
㉠ 늦잠 ㉡ 옛신 ㉢ 군소리 ㉣ 새롭다 ㉤ 파들이	
① ㉠의 예는 모두 직접성분 분석의 결과가 파생어와 무관하 로 이 가운데 한 예를 '비웃음'으로 교체한다.	
② ㉡의 예는 어근과 접사가 통합한 일반적인 접미 파생어 므로 이들을 ㉠의 예로 다룬다.	
③ ㉢의 예들은 한 접두사의 이형태로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를 '취하다/취했다, 시뻘썩다/시뻘썩다'로 교체한다.	
④ ㉣의 첫째 직접성분을 달리 파악한 사전 자료를 함께 제시 어 문제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도록 한다.	
⑤ ㉤의 문항은, 교수·학습 내용을 고려할 때 정답이 없을 수 으므로 ㉠ '늦잠'을 본명한 단어이나 합성어의 예로 교체한다.	

(나) '늦-, 작은-'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처리

ㄱ. 늦-01 「접사」

「1」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늦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몇몇 동사, 형용사 앞에 붙어)) '늦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ㄴ. 작은-02 「접사」

((주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말이가 아님'의 뜻을 더하
는 접두사. ㉠작은고모/작은이모/작은동생.

-이관규(2011). “문법 교육의 인식 변화와 문법 교재의 양상.” 『새국어교육』 89.

5.2. 어문 규정 교육의 실제

○ 목표-내용-방법-평가

목표

어문 규정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로 하여금 우리말 우리글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고양하고 올바르게 유창한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내용

[가] 어문 규정과 관련 있는 '규정'들의 실태: '감사하다'와 '감사드리다'의 처리 양상

	감사하다	감사드리다
표준 화법 해설(1992. 12.)	○	×
표준 언어 예절(2011. 12.)	○	○
독서와 문법(2012. 03.)	○	×
표준국어대사전(1999- 현재)	○	?

[나] 표준국어대사전과 문법 교과서의 불일치: 예) 이어진문장 - 이어진 문장

○ 《표준국어대사전》

‘이어진문장’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1건)

이어진 문장(---文章)

「명사」 『언어』

둘 이상의 절(節)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 종속절(從屬節)과 주절(主節)로 이루어지며, 대등하게 이어지는 것과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꽃이 피고 새가 운다.’, ‘여름이면 날이 덥다.’ 따위이다. ≡연합문·이은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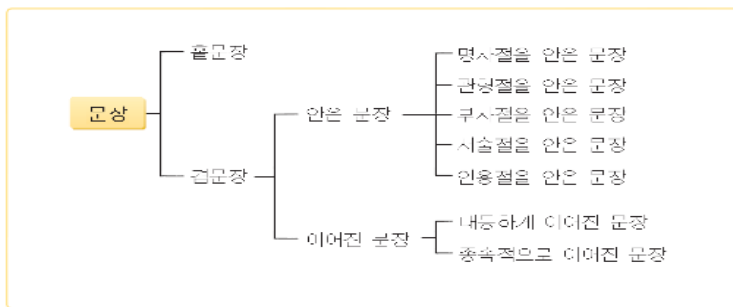
‘안은문장’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1건)

안은 문장(--文章)

「명사」 『언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며 성분 절을 가진 문장.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오래전에 증명되었다.’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안긴문장이고, 전체의 문장은 안은문장이다. ≡가진월·내포문·안은월·유속문·포유문.

○ 《독서와 문법》 교과서



-천재교육, 박영목 외(20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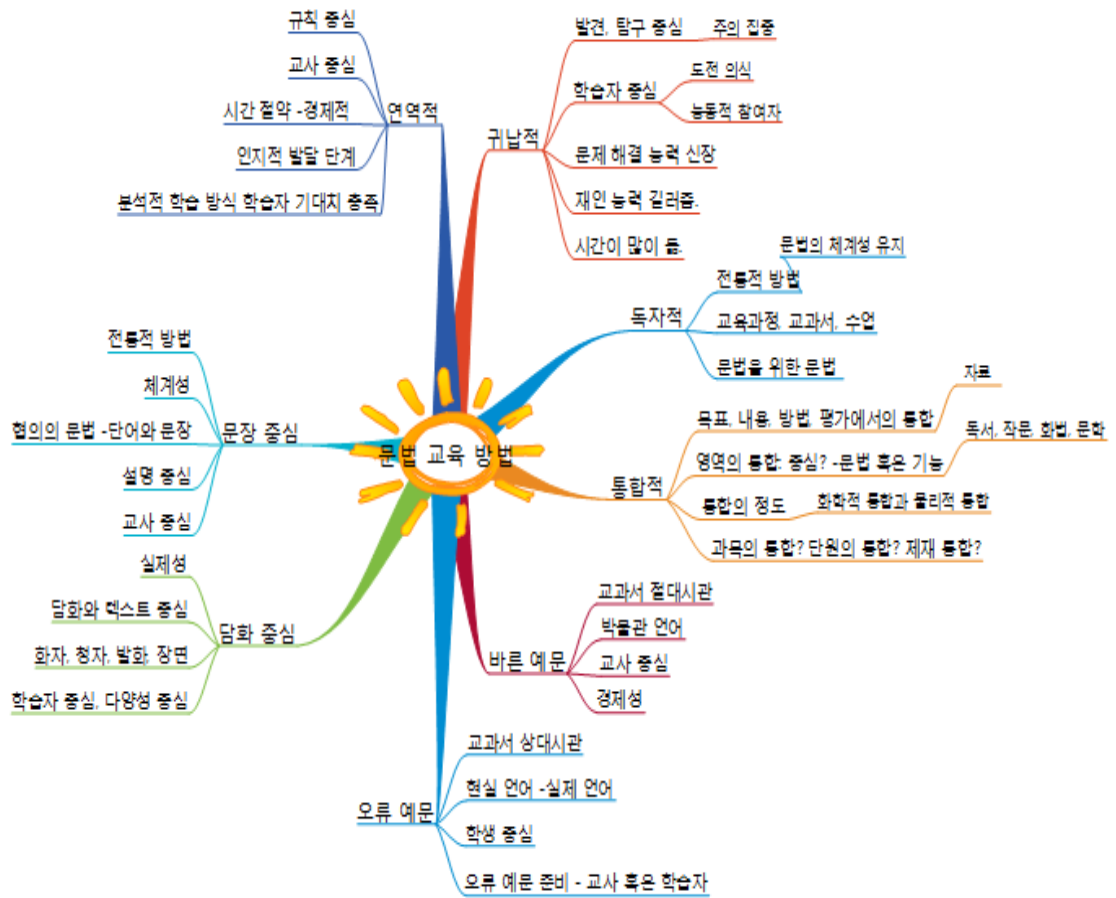
지식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과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과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바깥이 잘 보 이게 창문을 열어서.’와 같은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문장의 종류는 어미의 종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보게 되면 ‘-게’를 연결 어미로 보게 되고,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보게 되면 ‘-게’를 부사형 어미로 보게 된다.

-미래엔, 윤여탁 외(2012:93)

방법

● 교수 학습 방법: 이관규(2008)의 8가지 문법 교수 학습 방법 ★14



● 교재 제시 방법들

[가]

- 형태에 관한 것

맞보기

-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쳐 보자.
- 우리는 조금씩 가까와지고 있다.
- 다리를 다쳐 거름을 걸을 수 없었다.
- 꼭꼭이한 묘목에서 싹이 돋았다.
- 카레에 넣으려면 살코기가 좋다.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 복합어의 형성과 같은 형태론적 과정에도 한글 맞춤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성어나 파생어와 같은 복합어의 경우, 어원이 분명한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복합어는 소리대로 적는다. 복합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복합어의 어원을 글자에 반영하여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어간의 끝 'ㅂ'이 'ㄱ'로 바뀔 경우 바뀐 대로 적어야 하므로, '가까와지'고는 '가까워지'고로 적는다.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거름'은 '결'음으로 적는다.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꼭꼭'이 '꼭'이로 적는다.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어야 하므로, '살고기'는 '살코'기로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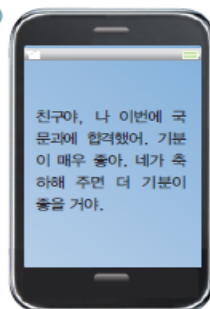
적용하기

-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골라 보자.
- 그는 (괴로와 /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 달마지) 가자.
- (칼달 / 칼날)이 무뎌져 고기가 잘 찢리지 않는다.
- 추석에는 (해쌀 / 햅쌀)로 밥을 지어 차례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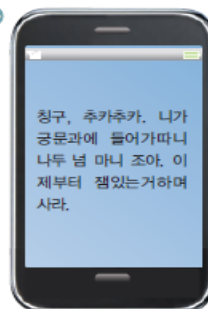
[나]

- 7 다음은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가



나



- (1) (가)와 (나)의 표기상 특징을 말해 보자.

- (2) (나)의 표기 방식이 쓰인 이유를 설명해 보자.

- (3) (나)의 표기 방식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해 보자.

-지학사, 이삼형 외(2012:23, 29)

[다]

5

다음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이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질문 '깨끗이'가 맞나요, '깨끗히'가 맞나요?

답변 '깨끗이'가 맞습니다. '-이'와 '-히'로 끝나는 부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로만 소리가 나면 '-이'로 적고 [히]로도 소리가 나면 '-히'로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발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법적인 기준에 의해 일차적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이'로 적는 경우

- 첨어 명사 뒤 **예** 간간이, 겹겹이, 나날이, 찰 찰이
- 부사 뒤 **예** 더욱이, 오히려, 일찍이
- 'ㄱ' 받침 뒤 **예** 깊숙이, 고즈넉이, 끔찍이, 가뜩이, 멀찍이
- 'ㅅ' 받침 뒤 **예** 남짓이, 버젓이, 번듯이, 지긋이
- 'ㄴ' 불규칙 용언 뒤 **예** 가벼이, 괴로이, 쉬이, 외로이
- '-하다'가 붙지 않은 용언 어근 뒤 **예** 같이, 굳이, 많이, 실없이

② '-히'로 적는 경우

- '-하다'가 붙는 어근 뒤 **예** 급히, 속히, 엄격히, 꼼꼼히, 열심히

그러나 위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다음 대화에서 바른 표현을 골라 보자.

유정: 한글 맞춤법을 (만드시/반듯이) 지켜야 할까?

승현: 우리가 국어 생활에서 한글 맞춤법을 잘 지키는지 (곰곰이/곰곰히) 생각해 보자.

유정: (솔직이/솔직히) 한글 맞춤법을 잘 지키지 않아도 말은 통하잖아.

승현: 글썸, 그럴까?

2



1의 대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 보자.

-비상교육, 이남호 외(2012:60, 63)

평가

(1) 평가의 원리

- ㄱ. 타당도: 평가하려는 구체적인 목표나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 ㄴ. 신뢰도: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 ㄷ. 실용도: 평가의 계획·시행·채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2) 지필 평가 문항의 종류

선다형, 연결형, 진위형, 완성형, 단답형; 서술형, 진술형

(3) 표현이 바르게 된 문장은?

- ㄱ.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릅니다.
- ㄴ. 우리 모두의 바램은 가족의 건강이야.
- ㄷ. 모금한 돈이 너무 작아 죄송합니다.
- ㄹ. 내년에는 수출량을 더 늘려야 한다.
- ㅁ. 김장을 직접 담아 드십니까?

(4) 밑줄 친 부분에 ‘아마, 반드시’를 올바르게 넣으라.

- ㄱ. _____ 그는 내일 소풍을 가겠어.
- ㄴ. _____ 그는 내일 소풍을 간다.
- ㄷ. _____ 난 내일 소풍 갈래.
- ㄹ. _____ 너, 내일 소풍을 가렴.
- ㅁ. _____ 영희는 내일 소풍을 갈 걸?

(5) 다음 표를 보고 ㄱ~ㅁ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라.

한국 - 폴란드 2-0	한국 - 미국 1-1	포르투갈 - 일본 <진행중>
프랑스 - 중국 <진행중>	스페인 - 한국 3-5	일본 - 러시아 1-0
한국 - 이탈리아 1-0	중국 - 코스타리카 0-2	한국 - 독일 <진행중>
독일 - 브라질 <진행중>	브라질 - 터키 1-0	독일 - 파라과이 1-0

- ㄱ. 한국은 벌써 스페인과 미국과 경기를 치렀으며, 이탈리아와도 경기를 치렀다. _____
- ㄴ. 독일은 이미 파라과이를 물리쳤고, 브라질과는 아직 경기를 끝내지 않았다. _____
- ㄷ. 이미 터키를 이긴 브라질은 지금 독일과 경기를 하고 있다. _____
- ㄹ. 일찌감치 러시아를 대파한 일본은 아직 포르투갈과 경기를 하고 있다. _____
- ㅁ. 중국은 코스타리카와 이미 경기를 했으며, 앞으로 프랑스와 경기를 할 것이다. _____

(6) ‘여태껏, 이미, 아직’ 가운데 한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

- ㄱ. 철학자들은 _____.
- ㄴ. 탐험가들은 _____.
- ㄷ. 2002한일월드컵에서 _____.
- ㄹ. 우리나라는 _____.
- ㅁ. 나는 _____.

(7) 제주도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100단어 내외로 편지를 써 보자. ‘이미, 아직, 여태껏’이라는 단어를 각각 2회 이상 사용하라.

(8) 구술 평가 문항의 종류

개인발표형, 짝대화형, 면접형, 상황형

(9) 개인발표형 : ‘있’과 ‘있었’의 차이를 말로 설명하라.

〈조건〉 ㄱ. 문법 용어를 사용하라.

ㄴ. ‘있’과 ‘있었’이 사용된 예문을 각각 2회 이상 들어라.

ㄷ. 3분 안에 설명하라.

(10) 짝대화형 : 여름 방학 동안에 할 일을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 보라.

〈조건〉 ㄱ.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2회 이상 사용하라.

ㄴ. 시간 부사어를 2회 이상 사용하라.

ㄷ. 전체 대화는 5분 정도 진행하라.

(11) 면접형 :

〈평가자 발문〉

ㄱ. 형태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ㄴ. 그러면, ‘이 꽃은 아주 아름답다.’라는 문장은 몇 개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형태소 하나하나 얘기해 볼래요?

ㄷ.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단어와 형태소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볼래요?

ㄹ. 잘 했어요. 그럼 아까 그 문장 ‘이 꽃은 아주 아름답다’는 어떤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2) 상황형 :

〈수업 시작하면서 지난 수업 때 다루었던 내용을 복습하고자 할 때 교사가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지요? 누가 손들고 대답해 볼까요? …(중략)…

(13) 〈개인발표형 구술 평가지〉

항목	기준	(나쁨◀) 평가 (▶ 좋음)	가중치	합계
유창성	표현이 유창하다	1 2 3 4 5	1	
	피동 접미사를 설명한다	1 2 3 4 5	1	
정확성	피동 보조 동사(-아지다)를 설명한다	1 2 3 4 5	1	
	목적어의 주어 이동을 설명한다	1 2 3 4 5	1	
	주어가 부사어로 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1 2 3 4 5	1	
다양성	용례를 주어진 것보다 더 든다	1 2 3 4 5	1	
	문장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1 2 3 4 5	1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1 2 3 4 5	1	
태도	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5	1	
	능동 및 피동 표현에 대해 가치 부여를 한다	1 2 3 4 5	1	
총점			10	

(14) <작대화형 구술 평가지>

항목	기준	(나쁨◀) 평가 (▶ 좋음)	가중치	합계
유창성	표현이 유창하다	1 2 3 4 5	1	
	상호 작용이 활발하다	1 2 3 4 5	1	
정확성	진행상 표현을 2회 이상 사용한다	1 2 3 4 5	2	
	발음이 완전하다	1 2 3 4 5	1	
	문법이 정확하다	1 2 3 4 5	1	
다양성	문장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1 2 3 4 5	1	
	어휘를 확장하여 사용한다	1 2 3 4 5	1	
태도	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5	1	
	대화하는 태도가 좋다	1 2 3 4 5	1	
총점			10	

(15) <면접형 구술 평가지>

항목	기준	(나쁨◀) 평가 (▶ 좋음)	가중치	합계
유창성	표현이 유창하다	1 2 3 4 5	1	
	압존법에 대한 생각이 있다	1 2 3 4 5	2	
정확성	압존법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1 2 3 4 5	3	
	어휘 사용을 적절히 한다	1 2 3 4 5	1	
다양성	문장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1 2 3 4 5	1	
	어휘를 확장하여 사용한다	1 2 3 4 5	1	
태도	대화하는 태도가 좋다	1 2 3 4 5	1	
총점			10	

(16) <상황형 구술 평가지>

항목	기준	(나쁨◀) 평가 (▶ 좋음)	가중치	합계
태도	자발적으로 대답한다	1 2 3 4 5	1	
	말하는 태도가 자신감에 차 있다	1 2 3 4 5	1	
정확성	높임법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	1 2 3 4 5	2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1 2 3 4 5	2	
총점			6	

-이관규(2008). 『학교 문법 교육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6. 나아가기

●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한 예: 성(姓) 표기에서 두음 법칙의 예외 적용

대법원호적예규 제722호 2007. 7. 20. 결재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일부개정예규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호적예규 제52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 후단에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고, “(예) 성이 “李, 柳, 羅”…인 경우는 “이, 유, 나…”로 표기”를 삭제한다.
 5. 나.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7. 8. 1.부터 시행한다.

● 어휘 교육: 살아있는 어문 규정 ★15

[종합]朴대통령 "고교생 69% 6·25 '북침' 응답 충격적"

nigh****|06.17 19:37|[삭제](#)

요새 초중고등학생들 어휘력 정말 부족하다. 북침이 북에서 침략인지 남에서 북을 침략인지 그걸 몰라서 그런것 아닌가? 추파를 던지다를 추파춥스를 던지다라고 알고있고, 고무하다를 늘이다, 고무줄 이런뜻으로 알고있던데... 어휘력이 우선이지 [신고](#)

<http://zum.com/#!/news=009201306177413164&dir=top&t=0>

● 말과 글에 인격이 담겨 있는 언어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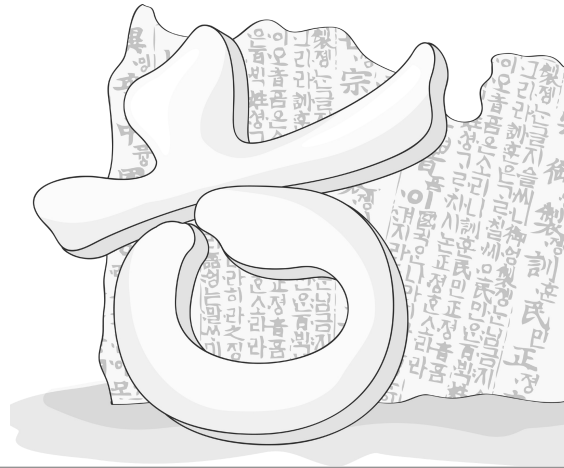
〈참고 문헌〉

- 구본관(2010). “문법 능력과 문법 평가 문항 개발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7.
- 국립국어원(2011). 『표준 언어 예절』.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및 ‘국어원 소식지(쉽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누리집.
- 김민수(1979). 『신국어학사』. 일조각.
- 나찬연(2005). 『한글 맞춤법의 이해』. 월인.
- 문화관광부(2001).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민현식(2008). “한글 맞춤법 교육의 체계화 방안 - 문법 교육과 맞춤법 교육의 관계 정립을 위한 試論.” 『국어교육연구』 21.
- 이관규(2008). 『학교 문법 교육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이관규(2011). “문법 교육의 인식 변화와 문법 교재의 양상.” 『새국어교육』 89.
- 이관규(2012). 『학교 문법론(제3판)』. 월인.
- 이관규·신호철·오현잔·백해산·장봉기·윤킴(2008). 『국어 수업을 위한 언어 탐구와 인식』. 박이정.
- 이관규·허재영·김유범·주세향·신호철·이영호(2012). 『차곡차곡 익히는 우리말 우리글 1, 2』. 박이정.
- 이진희(2013). 독일의 맞춤법 개정 과정과 교훈. 『새국어생활』 23-1.
- 이희승·안병화·한재영(2010).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비상, 미래엔, 지학사, 천재교육 ‘독서와 문법’ 교과서
- 표준국어대사전
- 연세한국어사전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 금성판 국어대사전
- 북한 조선어대사전



한글 맞춤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

박종덕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한글 맞춤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

박종덕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I. 원리의 이해¹⁾

1. 통일성 · 일관성의 원리

통일성 · 일관성의 원리란 언중들이 규칙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동일한 문법 요소들의 표기를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53항을 보자.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 (으)르거나	- (으)이거나
- (으)르결	- (으)르결
- (으)르게	- (으)게
- (으)르세	- (으) 세
- (으)르세라	- (으)르세라
- (으)르수록	- (으)르수록
- (으)르시	- (으)르씨
- (으)르지	- (으)르찌
- (으)르지니라	- (으)르찌니라
- (으)르지라도	- (으)르찌라도
- (으)르지어다	- (으)르찌어다
- (으)르지언정	- (으)르찌언정
- (으)르진대	- (으)르찐대
- (으)르진저	- (으)르찐저
- 올시다	- 올씨다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 - (으)르까? • - (으)르꼬? • - (스)브니까? • - (으)리까? • - (으)르쏘냐?

(ㄱ)은 모두 ‘ㄹ’ 뒤에 /ㄱ, ㅅ, ㅈ/와 같은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된 말이다. 이들은 (ㄴ)에서처럼 ‘ㄹ’ 뒤에서 각각 /ㄱ, ㅅ, ㅈ/ 등과 같은 된소리로 실현된다. 그렇지만 한글 맞춤법에서는 (ㄴ)처럼 적지 않고 (ㄱ)처럼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규정한 까닭은 통일성을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1)을 보자.

1) 『한글 맞춤법 연구』(박종덕)에서 발췌한 것임.

- (1) ㄱ. 그런 줄 알았다면, 나도 가 볼걸.
 ㄴ. 또 비가 오는걸.
 ㄷ. 벌써 간걸.

(1 ㄱ)의 ‘볼걸’은 [볼꺄]로 소리 나고, (1 ㄴ~ㄷ)의 ‘오는걸’, ‘간걸’은 [오는꺄, 간꺄]로 소리 난다. 그런데 소리가 다르게 난다고 해서 ‘-르걸’은 ‘-르꺄’로, ‘-는걸’, ‘-ㄴ걸’은 ‘-는꺄’, ‘-ㄴ걸’로 적는다면 일관성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ㄹ’ 뒤에서 된소리로 실현되는 것을 ‘ㄴ’ 뒤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사소리로 적도록 통일한 것이다. 이는 (2)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 (2) ㄱ. 그가 나를 그냥 돌지 모르겠다.
 ㄴ. 일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ㄷ. 얼마나 큰지 모른다.

한편, 한글 맞춤법 제15항의 [붙임 2]²⁾에서 종결형 어미를 ‘-오’로 정한 것도 통일성·일관성의 원리를 준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결형의 경우는, ‘나도 가오.’, ‘집이 크오.’처럼 모든 용언 어간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형태가 ‘-오’이다. 따라서 ‘이-’ 뒤에서만 예외적인 형태 ‘-요’를 인정하는 것은 체계 있는 처리가 아니다. 그래서 ‘-오’로 적는 것이다.

2. 관용성의 원리

관용성(慣用性)의 원리란 언중들 사이에서 이미 관용적으로 굳어진 형태는 관용을 따라 굳어진 형태대로 적는 것을 말한다. 관용적으로 굳어진 것을 다시 되돌리게 되면 언중들의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53항의 ‘다만’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예컨대 ‘- (으)르까?, - (으)르꼬?, - (스)느니까?, - (으)리까?, - (으)르쏘냐?’ 등을 ‘*- (으)르가?, *- (으)르고?, *- (스)느니까?, *- (으)리가?, *- (으)르소냐?’ 등으로 적지 않는다고 한 것은 관용을 따랐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이미 언중들에게 ‘- (으)르까?, - (으)르꼬?, - (스)느니까?, - (으)리까?, - (으)르쏘냐?’ 등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통일성·일관성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처리하여 언중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이런 관용성의 원리가 적용된 것은 한글 맞춤법 규정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3)과 같은 예시어는 모두 관용성의 원리에 따른 표기이다.

2) 한글 맞춤법 제15항의 [붙임 2]는 다음과 같다.

※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을 취하고, 을 버림.)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3) ㉠ ㄱ(기역), ㄷ(디귤), ㅅ(시옷)³⁾㉡ 계수(桂樹), 연매(連袂), 폐품(廢品), 혜택(惠澤), 계집, 핑계, 계시다⁴⁾㉢ 나열(羅列), 치열(齒列), 비열(卑劣), 분열(分裂), 선열(先烈), 진열(陳列), 규율(規律), 비율, 실패율(失敗率), 선율(旋律), 전율(戰慄), 백분율(百分率)⁵⁾㉣ 미립자(微粒子), 소립자(素粒子), 수류탄(手榴彈), 파렴치(破廉恥)⁶⁾㉤ 연연불망(戀戀不忘), 유유상종(類類相從), 누누이(屢屢-), 노노법사(老老法師), 요요무문(寥寥無聞), 요요하다(寥寥-)⁷⁾㉥ 갓스물, 걸핏하면, 그까짓, 기껏, 늦그릇, 덧셈, 덧저고리, 돛자리, 무릇, 못(衆), 빗장, 사뭇, 샅대, 숫집다, 엇셈, 옷어른, 옛, 얼핏, 짓밟다, 자칫하면, 찻, 풋고추, 핫옷, 헛, 헛곡식⁸⁾㉦ 모가치, 값어치, 벼슬아치, 반빚아치⁹⁾㉧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¹⁰⁾

3. 공시성의 원리

공시성(共時性)의 원리란 통시적(通時的)인 변화의 결과로 그 어형이 본래의 어원적 형태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언중들 사이에 이미 그것이 널리 굳어져 쓰일 경우, 그 굳어진 현재의 공시적인 어형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성의 원리에 따른 표기의 예로는 ‘기쁘다,

3) 기억하기 쉽도록 ‘ㄱ, ㄷ, ㅅ’을 나머지 글자의 경우처럼, ‘기역, 디귤, 시옷’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억하기 쉽도록 한다는 것이 오랜 관용(慣用)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용대로 ‘기역, 디귤, 시옷’으로 한 것이다.

4) ‘계, 매, 폐, 혜’는 발음대로 ‘ㄱ’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철자 형태와 발음 형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ㄱ’형으로 굳어져 있어서 관용대로 ‘ㄱ’로 적은 것이다.

5)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결합되는 ‘열(列, 劣, 烈, 裂), 료(律, 慄, 栗, 率)’은 발음 형태가 [나열, 서:열, ...]이므로 관용에 따라 ‘열, 율’로 적은 것이다.

6)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이어서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고 관용대로 적은 것이다.

7) 두음 법칙에 따라 ‘연연불망, 유류상종, 누루이, 노로법사, 요요무문’으로 적어야 하나,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여:년-, [유:류-, [누:루-, [노:로-, [요:요-]로 굳어져 있는 것이어서 관용을 따라 적은 것이다.

8)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르면 ‘ㄷ’으로 적어야 하나, 관용에 의해 ‘ㅅ’으로 적은 것이다.

9) ‘모가치’는 ‘몫’에 ‘-아치’가 붙어서 된 단어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몫사치’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 어원적인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며, 또 발음 형태도 [모가치]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관용에 따라 ‘모가치’로 적은 것이다. ‘값어치’에서의 ‘어치’는 사전들에서 접미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값서치’로 적을 것이고, ‘모가치’의 경우와 같이 발음 형태를 취한다면 ‘가버치’로 적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푼어치, 십 원어치, 백 불(달러)어치, 천 엔어치, 만 프랑어치, 십만 마르크어치, ...’처럼 쓰이는 ‘어치’는 (의존)명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어치’가 붙는 ‘푼, 원, ...값’ 등의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푼너치, 원너치, ...’ 같은 표기 형태에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형식으로 다루어서 관용에 따라 ‘값어치’로 적은 것이다. ‘벼슬아치’ 경우의 ‘-아치’ (동남아치, 장사아치)는 접미사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 ‘벼슬라치’로 적을 것이지만 역시 사람들이 ‘벼슬(동남, 장사)’의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용에 따라 ‘벼슬아치’로 적은 것이다. ‘반빚아치’는 ‘반빚’ (반찬 만드는 일)에 ‘-아치’가 붙어서 된 단어이지만, 발음 형태가 [반비다치]로 굳어져 있어서 ‘반비사치’로 적을 수 없는 것이므로 관용에 따라 ‘반빚아치’로 적은 것이다.

10) 동일한 부록 1 표준말 5에는, 연결형(連結形)이나 종지형(終止形)이나 마찬가지로 ‘이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맞춤법에서는 연결형은 ‘이요’ 종지형은 ‘이오’로 적고 있어서 관용 형식을 취한 것이다. 연결형의 경우는, 옛말에서 ‘이고’의 ‘ㄱ’이 묵음화(默音化)하여 ‘이오’로 굳어진 것이긴 하지만, 다른 단어의 연결형에 ‘오’ 형식이 없으므로(연관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요’로 적은 것이다. 그러나 종지형의 경우는, ‘나도 가요,’ ‘집이 크요’처럼 모든 용언 어간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형태가 ‘오’인데 ‘이-’ 뒤에서만 예외적인 형태 ‘요’를 인정하는 것은 체계 있는 처리가 아니므로 ‘오’로 적은 것이다.

나쁘다, 미쁘다, 바쁘다, 오조, 사람, 아름, 파랑’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깃브다(깃-브다), 낮브다(낮-브다), 민브다(민-브다), 밋브다(밋-브다), 올조(올-조), 살암(살-암), 안음(안-음 > 아름), 파랑(프르-엥 > 퍼렁 > 파랑)’ 등에서 왔지만 현재 이렇게 쓰이지 않고 있으므로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들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원형(原形)이 언중 사이에 쉽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4)의 예시어는 모두 공시성의 원리에 따른 표기이다.

- (4) 고랑, 모가지, 소댕, 구렁, 사태-(고기), 꾸중, 나머지, 누룽지, 늘그막, 도랑, 도르래, 동그라니, 불경이, 빠드렁니, 올가미, 지팡이, 뚜레, 느루, 도두, 코끼리, 노름, 까마귀, 너무, 나마, 꼬락서니, 바깥, 지푸라기, 개구리, 빠꾸기, 귀뚜라미, 기러기, 굽도리, 다리, 목거리, 무녀리, 고름, 조차, 부터¹¹⁾

또한, 아래의 한글 맞춤법 제15항의 [붙임 1]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시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엮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 (2) 본뜻에서 떨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

[붙임 1]의 (2)에 예로 든 단어인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등은 ‘들다/나다’, ‘살다/지다’, ‘쓸다/지다’처럼 분석되지 않는다. 비록 이들은 어원적으로 ‘들다+나다’, ‘살다+지다’,

11) 고랑(<골-엥), 모가지(<목-아지), 소댕(<술-엥), 구렁(<굴-엥), 사태(<살-애) -고기, 꾸중(<꾸짖-웅), 나머지(<남-어지), 누룽지(<누-웅지), 늘그막(<늘-으막), 도랑(<돌-엥), 도르래(<돌-으래), 동그라니(<동글-아미), 불경이(<불-엥이), 빠드렁니(<뽀-으렁-이), 올가미(<울-아미), 지팡이(<짚-앙이), 뚜레(<뚫-에), 느루(<늘-우), 도두(<둔-우), 코끼리(<고길-이), 노름(<놀-음), 까마귀(<까-아귀), 너무(<넘-우), 나마(<남-아), 꼬락서니(<골-악서니), 바깥(<밖-알), 지푸라기(<짚-올아기), 개구리(<개굴-이), 빠꾸기(<빠꼭-이), 귀뚜라미(<귀뚜-아미), 기러기(<기력-이), 굽도리(<굽돌-이), 다리(<달-이), 목거리(<목걸-이), 무녀리(<문열-이), 고름(<골-음), 조차(<쫓-아), 부터(<불-어)

‘쓸다+지다’의 합성어 형태이지만, 앞 단어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원 형태를 밝히지 않고, 현재 쓰이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다.¹²⁾

4. 형태성의 원리¹³⁾

형태성의 원리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을 말한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며 음소 문자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하여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다. 예컨대 ‘구름, 나무, 하늘, 놀다, 달리다’ 따위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형식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꽃[花]’이란 단어는 (5)에서 보듯이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

- (5) ㄱ. [꼬^ㅅ] --- (꽃이) [꼬치] (꽃을) [꼬출] (꽃에) [꼬체]
 ㄴ. [꼐] --- (꽃나무) [꼐나무] (꽃놀이) [꼐노리] (꽃망울) [꼐망울]
 ㄷ. [꼐] --- (꽃과) [꼐파] (꽃다발) [꼐파발] (꽃밭) [꼐밭]

이것을 소리대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해된다. 그리하여 결국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게 되는 것이다.¹⁴⁾ 형태성의 원리를 적용한 한글 맞춤법 규정은 (6)과 같다.

- (6) ㉠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계, 례, 메, 폐, 혜’의 ‘ㅈ’은 ‘ㅊ’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ㅈ’으로 적는다.¹⁵⁾
 ㉣ ‘ㄴ’은 ‘ㄷ’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으로 적는다.
 ㉤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12) ‘나타나다, 바라보다, 바라지다[垢], 배라먹다[乞食], 부서지다[碎], 불거지다[凸], 부러지다[折], 자라나다[長], 자빠지다[沛], 토라지다[少滯]’ 등도 공식성의 원리가 적용된 단어이다.

13) 이에 대한 내용은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고시된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 따와 서술함.

14) 형태소는 단어의 기초 단위가 되는 요소인 실질 형태소와 접사나 어미, 조사처럼 실질 형태소에 결합하여 보조적 의미를 덧붙이거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요소인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맞춤법에서는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예컨대

(높고)[늘꼬] (높지)[늘찌] (높는)[늘는]

처럼 발음되는 단어를 ‘늘-’으로 쓰는 것은, (높어)[늘거], (높은)[늘근]을 통하여 실질 형태소(어간)의 본 모양이 ‘늘-’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모든 언어 형식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형식 형태소의 경우는 변이 형태를 인정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막-아/먹-어 소-가/말-이

따위와 같이, 음운 형태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한 가지 형태로 통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자어의 경우는, 예컨대 “국어(國語) <나라+말>, 남아(男兒) <남자+아이>” 처럼, 결합한 글자가 각기 독립적인 뜻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각 글자의 음을 밝히어 적는 것이다.(「한글 맞춤법 해설」에서)

15) ㉠ 계수(桂樹), 사례(謝禮), 연매(連袂), 폐품(廢品), 혜택(惠澤), 계집, 핑계, 계시다

- ㉔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㉕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㉖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㉗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 -치-, -뜨리-, -트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 ㉘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㉙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 ㉚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㉛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 ㉜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5. 의미성의 원리

의미성의 원리란 표기를 다르게 하여 의미 변별의 준거로 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나무집’과 ‘나뭇집’은 사이시옷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의미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7)은 의미성의 원리에 의해 의미 변별이 이루어지는 단어의 예이다.

- (7) 머리방 · 머릿방, 어떻게 · 어떡해, 바치다 · 받치다 · 받히다 · 받치다, 차마 · 참아, 너머 · 넘어, 있다가 · 이따가, 가름 · 갈음, 어름 · 얼음, -배기 · -빼기, -든지 · -던지, 거름 · 걸음, 거치다 · 걷히다, 걷잡다 · 겹잡다, 그러므로 · 그럼으로, 노름 · 놀음, 느리다 · 놀이다 · 놀리다, 다리다 · 달이다, 다치다 · 닫히다 · 닫치다, 마치다 · 맞히다, 목거리 · 목걸이, 반드시 · 반듯이, 부딪치다 · 부딪히다, 부치다 · 붙이다, 시키다 · 식히다, 아름 · 알음 · 앓, 안치다 · 앓히다, 저리다 · 절이다, 조리다 · 줄이다, 주리다 · 줄이다, 흘몸 · 흘뭉

6. 계열성의 원리

‘머리말’일까, ‘머릿말’일까를 결정하는 일은 표준 발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표준 발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이시옷을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이용되는 것이 바로 계열성의 원리이다.

계열성의 원리란 같은 낱말밭에 속하는 것은 동일한 문법 요소를 적용함을 일컫는다.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합성어의 경우, 뒷말 첫소리가 ‘ㄹ’이고 발음하여 ‘ㄴ’ 소리가 덧나면

사이시옷을 넣는다. 따라서 [머린말]로 발음하면 ‘머릿말’로 적어야 하고, [머리말]로 발음하면 ‘머리말’로 적어야 한다. 물론 표준 발음은 [머리말]이어서 ‘머리말’로 적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머린말]로 발음하여 사이시옷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머린말]로 발음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같은 낱말발을 이루는 ‘꼬리말’의 발음이 [꼬린말]이 아니라 [꼬리말]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쇠고기’ 홀로 표준어였으나 ‘소고기’도 허용한 것은 이와 같은 계열성 및 관용성의 원리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쇠고기’는 역사적으로 ‘소의 고기’였는데, 문법화하여 ‘쇠고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쇠고기’는 ‘닭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말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등과의 계열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닭, 돼지, 개, 말, 염소, 양…’ 등에 ‘고기’를 결합하여 만든 합성 원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쇠고기’도 ‘소+고기’의 합성 원리를 적용하여 ‘소고기’도 표준어로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계열성의 원리를 이용하면, 표기 이외에도 원칙적인 표준 발음과 허용되는 표준 발음을 판별해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맛있다’의 경우가 그 예이다. ‘맛있다’의 원칙적인 표준 발음은 [마딤따]이고, 허용적인 표준 발음은 [마싣따]가 되는데, 그 까닭은 같은 낱말발의 ‘맛없다’의 발음이 [마딤따]이기 때문이다. [마싣따]는 될 수 없으므로, ‘맛있다’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마싣따]로 해서는 안 되지만, 관용성을 준수하여 허용한 것이다.

한편, 계열성의 원리는 가끔 형태성의 원리와 충돌을 빚는 경우가 있다. ‘자장면’일까, ‘짜장면’일까 할 때가 그 경우이다. 같은 낱말발의 ‘짬뽕’에 이끌려 ‘짜장면’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우리말 ‘초마면’으로 순화된 ‘짬뽕’은 사실 일본어 ‘ちゃんぽん’에서 온 것으로, 중국어 ‘炸醬面’에서 온 ‘자장면’과는 그 출발부터가 다르다. 그러나 언중들은 계열성의 원리에 이끌려 ‘짬뽕, 짜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계열성의 원리는 언어 현실에서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하므로 맞춤법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원리이다. 앞으로 계열성의 원리, 관용성의 원리, 형태성의 원리¹⁶⁾ 중 그 적용 순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연구해 보아야 한다. 좌우간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러한 계열성의 원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경향성의 원리

경향성의 원리란 빈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파생어의 경우 소리대로 표기할 것과 형태를 밝혀 표기할 것으로 나눌 때 파생되는 말의 개수가 기준이 되는 것은 이러한 경향성의 원리 때문이다. 그래서 ‘-이’나 ‘-음’이 붙어 파생어를 이루는 경우는 빈도수가 높으므로 형태를 밝혀 적고,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상대적으로 흔치 않으므로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깨끗-이’, ‘있-음’은 각각 ‘깨끗이, 있음’으로 표기되고, ‘넘-우’, ‘돌-오’는 ‘너무, 도로’로 표기되는 것이 그 예이다.

16) 현행 맞춤법에서는 ‘관용성 > 형태성 > 계열성’의 순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맞춤법에서는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관용적인 것으로 예외적인 것을 다루어 인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계열성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이다. 언중들의 의식에는 계열성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므로 단순히 형태성만을 강조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계열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관용화하면 관용성으로 다루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관용화하였는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8. 경제성의 원리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 것이 경제적일까, 예사소리로 적는 것이 경제적일까? ‘ㄱ, ㅂ’ 받침 뒤는 필연적으로 경음화 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이므로 굳이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것이 편리하다. 이러한 편리는 경제성의 원리에서 나온다.

경제성의 원리란 조금이라도 노력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표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준말 표기와 같은 것은 넓게 보면 다 경제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급적이면 기억하기에 좋도록 통일성·일관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도 그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관용성의 원리도 이미 알고 쓰고 있는 것을 그냥 쓴다는 점에서 경제성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 규정의 이해

1. 된소리

- ① 짝두기() / 짝뚜기()
- ② 갑자기() / 갑짜기()
- ③ 똑배기() / 똑빼기()
- ④ 곱배기() / 곱빼기()
- ⑤ 짹잘하다() / 짹잘하다()
- ⑥ 싹둑싹둑() / 싹둑싹둑()

해 설

●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된소리 ×

- 까닭: (1) 발음 ...
- (2) 의미 ...
- (3) 심리 ...

●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의 겹침 : 된소리 ○

- 까닭: (1) 어원 의식 ...

● 배기 ∞ 빼기: (1) [배기]로 발음 → ‘-배기’¹⁷⁾

(2) [빼기]로 발음 → ‘-배기’ 또는 ‘-빼기’

- ㉠ 한 형태소 내부 → ‘-배기’¹⁸⁾
- ㉡ 다른 형태소 뒤 → ‘-빼기’¹⁹⁾

17) 세 살V배기, 나이 - 배기, 공짜 - 배기, 진짜 - 배기, 육자 - 배기, 허잘 - 배기, 주장 - 배기, 귀통 - 배기, 장승 - 배기

18) 똑배기, 학배기

19) 대갈 - 빼기, 곱 - 빼기, 맛 - 빼기, 언덕 - 빼기, 억척 - 빼기, 고들 - 빼기, 그루 - 빼기

2. 두음 법칙 (1)

- ① 雙龍: 쌍룡() / 쌍용()
- ② 揭示欄: 게시란() / 게시난()
- ③ 登龍門: 등룡문() / 등용문()
- ④ 會計年度: 회계년도() / 회계연도()
- ⑤ 高冷地: 고랭지() / 고냉지()
- ⑥ 年月日: 년월일() / 연월일()
- ⑦ 生年月日: 생년월일() / 생연월일()
- ⑧ 年末年始: 연말년시() / 연말연시()
- ⑨ 2013年度: 2013년도() / 2013연도()

해설

● 두음 법칙 적용 근거

- (1) 한글 맞춤법 제1항 ...
- (2) 음운 변동 규칙 ... 음절의 가로 체계 제약성

● 한자 합성어나 한자 파생어: 뒷말에도 적용

- (1) 1음절은 미적용²⁰⁾
- (2) 2음절 이상은 적용²¹⁾
- (3) 관용적으로 굳어진 것은 미적용²²⁾

● 신년도(新年度) ← 신년 + 도 / 구년도(舊年度) ← 구년 + 도 / 내년도(來年度) ← 내년 + 도

● 작년도(昨年度) ← 작년 + 도 / 금년도(今年度) ← 금년 + 도 / 88년도(年度) ← 88년 + 도

● 2013학년도(學年度) ← 2013학년 + 도

● 생년월일(生年月日) ← 생년 + 생월 + 생일 / ※ 연월일(年月日)

● 연말연시(年末年始) ← 연말 + 년시

20) 家庭+欄 → 가정란 / 意見+欄 → 의견란 / 空+欄 → 공란 / 答+欄 → 답란 / 學習+欄 → 학습란 / 讀者+欄 → 독자란 / 揭示+欄 → 게시란 / 投稿+欄 → 투고란 / 東+九陵 → 동구릉 / 西+五陵 → 서오릉 / 泰+陵 → 태릉 / 江+陵 → 강릉 / 王+陵 → 왕릉 / 英+陵 → 영릉 / 永+陵 → 영릉 / 寧+陵 → 영릉 / 貞+陵 → 정릉 / 男+女 → 남녀 / 隱+匿 → 은닉 / 雙+龍 → 쌍룡 / 康+寧 → 강녕 / 安+寧 → 안녕 / 討+論 → 토론 / 理+論 → 이론

21) 熱+力學 → 열역학 / 登+龍門 → 등용문 / 淸+料理 → 청요리 / 來+來月 → 내내월 / 上+老人 → 상노인 / 重+勞動 → 중노동 / 非+論理 → 비논리 / 半+裸體 → 반나체 / 失+樂園 → 실낙원 / 肉體+勞動 → 육체노동 / 新+女性 → 신여성 / 附和+雷同 → 부화뇌동 / 空+念佛 → 공염불 / 砂上+樓閣 → 사상누각 / 男尊+女卑 → 남존여비 / 男負+女戴 → 남부여대 / 會計+年度 → 회계연도 / 制作+年代 → 제작연대

22) 미립자 ← 미(微)+립자(粒子) / 수류탄 ← 수(手)+류탄(榴彈) / 파렴치 ← 파(破)+렴치(廉恥) / 고랭지 ← 고(高)+랭지(冷地)

2. 두음 법칙 (2)

- ① 어린이欄: 어린이란() / 어린이난()
 ② 칼숨量: 칼숨량() / 칼숨양()

해 설

- 고유어나 외래어 뒤의 한자어: 두음 법칙 적용
 • 까닭: (1) 문법 의식 ...

2. 두음 법칙 (3)

- ① 朴龍植: 박룡식() / 박용식()
 ② 李蒼龍: 이창룡() / 이창용()
 ③ 先烈: 선렬() / 선열()
 ④ 百分率: 백분률() / 백분율()
 ⑤ 當籤率: 당첨률() / 당첨율()
 ⑥ 朗朗하다: 낭랑하다() / 낭낭하다()
 ⑦ 戀戀不忘: 연연불망() / 연연불망()
 ⑧ 念念不忘: 염념불망() / 염염불망()

해 설

- 이름: 두음 법칙 적용
 ● 렬, 률: ‘ㄴ 받침’ 뒤나 모음 뒤 → ‘열, 율’
 ● 첨어: 미적용²³⁾
 ● 관용적 표기: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3. 어간과 어미

- ① 들어가다() / 드리가다()
 ② 들어나다() / 드리나다()
 ③ 가십시오() / 가십시오()
 ④ 예 - 아니오() / 예 - 아니요()
 ⑤ 가까와() / 가까워()
 ⑥ 매와() / 매워()
 ⑦ 도와() / 도워()

23) 냉랭, 녹록, 늠름, 연년생, 적나라

해 설

- 두 개의 용언이 합쳐질 때: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면 원형 밝힘²⁴⁾
(2)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으면 원형 안 밝힘²⁵⁾
 - 까닭: (1) 어휘적 의미 측면 ...
(2) 어원 의식과 편의성의 관계 측면 ...
- -요: (1) 연결어미²⁶⁾
(2) 높임의 보조사²⁷⁾
- -오: 종결형
 - 종결형 어미를 ‘-오’로 한 까닭: 체계적 측면. [예] 나도 가오. 집이 크오.
 - 연결형 어미를 ‘-요’로 한 까닭: 관용적 측면.
- -와: 단음절 어간의 ‘ㄴ’ 다음 / -워: 그 밖
 - 단음절 어간 ‘ㄴ’ 뒤에 결합하는 ‘아’만 ‘와’로 적는 까닭: 현실 발음 인정

4.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① 귀걸이() / 귀거리()
- ② 굶다랑다() / 굴따랑다()
- ③ 넓다랑다() / 널따랑다()
- ④ 오뚝이() / 오뚜기()
- ⑤ 일찍이() / 일찌기()
- ⑥ 목둘이() / 목도리()
- ⑦ 목아지() / 모가지()
- ⑧ (편지) 붙이다() / (편지) 부치다()

해 설

-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것
(1) 어간에 ‘-이, -음(-ㅁ)’이 결합되어 명사로 된 말²⁸⁾

- 24) 넘어지다 일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엮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 25)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나타나다 바라보다 바라지다(坂) 배라먹다(乞食) 부서지다(碎) 불거지다(凸)
부러지다(折) 자라나다(長) 자빠지다(沛) 토라지다(少滯)
- 26) 인생은 마라톤이요, 고행의 나날이요.
- 27) 잘 놀아(요). / 많이 아팠어(요). / 높이 날지(요). / 빨리(요). 빨리. / 개가(요) 고양이를(요) 물었어(요). /
좋습니다(요). / 갑니다(요).
- 28) (굽다) 굽이 (걸다) 귀걸이 (밟다) 귀밟이 (넓다) 넓이(놀다) 놀음놀이 (더듬다) 더듬이
(뚫다) 대뚫이 (받다) 물받이 (뿜다) 물뿜이 (얹다) 배얹이 (놀다) 뱃놀이 (맞다)
손님맞이
(잡다) 손잡이 (막다) 액막이 (달다) 여달이 (걸다) 옷걸이 (박다) 점박이 (살다)

- (2) 어간에 ‘-이, -히’가 결합되어 부사로 된 말²⁹⁾
 (3)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된 말³⁰⁾
 (4) 어간이나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³¹⁾
 (5) 어간에 피동이나 사동 접미사들이 붙어서 된 말³²⁾
 (6)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³³⁾
 (7)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말³⁴⁾
 (8)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말³⁵⁾

●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것

- (1) 본디 어간 형태소의 뜻과 떨어진 것³⁶⁾
 (2)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다른 품사로 바뀐 것³⁷⁾

- 하루살이
 (돋다) 해돋이 (씻다) 호미씻이 (묻다) 휘묻이 (갈다) 갈음(복다) 고기복음 (그을다) 그을음
 (모질다)모질음 (살다) 삶 (끓다) 설움 (숙다) 숙음(수줍다) 수줍음 (값다) 양값음
 (억다) 억음 (숫다) 용숫음 (일컫다) 일컬음 (놀다) 탈놀음 (막다) 판막음
 29) (곤다) 곤이(-든다) (없다) 덧없이 (웁다) 웁이
 (적다) 적이 (발다) 밝히(익다) 익히(작다) 작히
 30) •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말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각설이 검정이 고리눈이 네눈이
 딸각발이 맹문이 생손이 왕눈이 외톨이 외팔이 우걱뿔이 통방울이
 •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말
 곳곳이 낱날이 뭇뭇이 살살이 앞앞이 집집이 간간이 겹겹이 길길이 눈눈이
 땀땀이 번번이 사람사람이 옆옆이 줄줄이 참참이 철철이 첩첩이 툼툼이 나날이
 다달이 골골살살이 구구절절이 사사건건이
 31) •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굵-적거리다 굵-죽거리다 넓-죽하다 높-다랗다 늪-다리 늪-바탕 늪-수그레하다
 뭉-숙하다 뭉-수그레하다 얹-적얹적하다 얹-지르다 읊-조리다 낙-시 늪-정이 댕-개
 뜯-게질 값-작값작하다 값-작거리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굵-다랗다 굵-직하다
 값-숙하다 넓-적하다 높-다랗다 늪-수그레하다 얹-죽얹죽하다
 •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꽃-답다 끝-내 옆-구리 앞-장 흙-질 맛-깔스럽다 멋-지다 밑-지다 별-뉘
 부엌-데기 빗-쟁이 빗-깔 숯-장이 숲-정이 값-지다 흙-지다 뉘-두리 빗-깔
 옆-덩이 앞-사귀
 32) •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
 말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뚫리다 울리다 낚이다 쌓이다 핥이다 굳히다 굵히다
 넓히다 얹히다 얹히다 잡히다 돈구다 솟구다 돋우다 갓추다 곧추다 맞추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 녹이다(×녹히다) 녹이다(×녹히다) 썩이다(×썩히다)
 늘리다, 늘이다(×늘구다) 떨어뜨리다(×떨구다)
 •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것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받치다 부딪치다 뺨치다 엮치다 부딪뜨리다/부딪트리다
 쏘뜨리다/쏘트리다 젓뜨리다/젓트리다 찢뜨리다/찢트리다 흘뜨리다/흘트리다
 33) 깔쭉이 살살이 꿀꿀이 섹섹이 눈깜짝이 오뚝이 더떨이 코납작이 배불뚝이 푸석이 빠쭉이 훌쭉이
 34) 나란히 넉넉히 무던히 속히 두렷이 버젓이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פות이 깨끗이
 35)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36) 굵도리 다리 목거리(목병) 무너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너비 도리깨
 두루마리 목도리 빈털터리 턱거리(언덕거리, 중기)
 37) • 명사로 바뀐 것: (꾸짚음)꾸중 (남어지)나머지 (눈웅지)누렁지 (늪으막)늪그막 (돌양)도랑 (돌으래)도르래
 (동글아미)동그라미 (불영이)불경이 (뽕으렁)빠드렁니 (웁아미)울가미 (짐양이)지팡이 (뚫애)코뚜레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울가미 주검
 • 부사로 바뀐 것: (늘우)느루 (돋우)도두 (돌오)도로 (맞우)마주 (비뚫오)비투로 (밟암)발밤발밤 (잡암)자밤자

- (3)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³⁸⁾
- (4) 어간이나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중,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떨어진 것³⁹⁾
- (5) 어간에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떨어진 것⁴⁰⁾
- (6)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⁴¹⁾
- (7)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말⁴²⁾

5. 합성어(사이시옷)

- ① 핏뚱() / 피뚱()
- ② 윗쪽() / 위쪽()
- ③ 윗층() / 위층()
- ④ 낚싯대() / 낚시대()
- ⑤ 낚싯터() / 낚시터()
- ⑥ 나뭇꾼() / 나무꾼()
- ⑦ 머릿말() / 머리말()
- ⑧ 머릿돌() / 머리돌()
- ⑨ 머릿방() / 머리방()
- ⑩ 머릿속() / 머리속()
- ⑪ 머릿살() / 머리살()
- ⑫ 빨랫방() / 빨래방()
- ⑬ 빨랫감() / 빨래감()
- ⑭ 빨랫방망이() / 빨래방망이()
- ⑮ 피자집() / 피자집()

밤 (죽엄)주섬주섬 거뭇거뭇 너무 뜨덤뜨덤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 **조사로 바뀐 것**: (남다)나마 (불다)부터 (쫓다)조차 (맞아 → 마자)마저

● **형용사로 바뀐 것**: (민다)민엿다 → 미엿다 (웃다)웃읍다 → 우습다

- 38) (골양)고랑 (굴영)구렁 (끝으러기)꼬트러기 (목아지)모가지 (살애)사태-고기 (속아지)소가지 (솔앵)소맹 (올아기)오라기 (털억)터럭 꼬락서니 꼬트머리 모가지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 39) ●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쭙하다 실끔하다

알따랗다 알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실컷 고프다(←궂쁘다) 슬프다(←슬쁘다)

●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떨어진 것**

기쁘다(←깃쁘다) 나쁘다(←낫쁘다) 바쁘다(←빳쁘다) 넉치 울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 40) 도리대(칼로~) 드리다(용돈을~) 고치다 바치다(세금을~) 부치다(편지를~)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 ×돌(廻)이다 ×들(入)이다 ×곧(直)히다 ×받(受)히다, ×붙(附)이다 ×견(撒, 捲)우다 ×밀(推)우다 ×일(起)우다

- 41)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팽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리기 뼈꾸기 얼루기 칼썩두기

- 42)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해 설

● 사이시옷을 적는 까닭

- (1) 음운 ...
- (2) 문법 ...
- (3) 의미 ...

● 사이시옷을 적용하는 경우

-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남
 -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⁴³⁾
 - ㉡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⁴⁴⁾
 - ㉢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⁴⁵⁾
- (2) 두 음절로 된 한자어(6개):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횃수

● 사이시옷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1) 뒤의 첫소리가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것⁴⁶⁾
- (2) 발음의 변화가 없는 것⁴⁷⁾
- (3) 외래어나 외국어가 포함된 단어: 핑크빛, 피자집
- (4) 파생명사: 해님

● 전셋집, 셋방 / 전세방

● 해땅콩, 해콩 / 햇감자 / 햅쌀

● 옛길, 옛날, 옛말, 옛모습, 옛사람, 옛사랑, 옛풍습, 옛이름, 옛이음, 옛일, 옛적, 옛정, 옛집, 옛추억, 옛터, 옛풍속

● 예전, 예부터, 예스럽다

● 오랜만 / 오랫동안

43) 고렛재, 귤밭,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뗏가지, 뒹갈망, 땃들, 머릿기름, 모깃불, 뭇자리, 바닷가, 뱃길, 뱃가리, 부싷돌, 선짓국, 쇠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잣더미, 조갯살, 찻집, 쳇바퀴, 킷값, 핏대, 햇벌, 헛바늘 / 귤병, 머릿방, 뱃병, 뭇독, 사젓밥, 셋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촛국, 뭇병 땃줄, 땃세, 핏기, 햃수, 햃가루, 햃배

44) 땃나물, 아랫니, 땃마당, 아랫마을, 땃머리, 잇몸, 갓목, 냇물, 뱃물 / 겻날, 제삿날, 햃날, 땃마루, 양치물

45) 도리갯열, 땃웃, 두렛일, 땃일, 땃입맛, 베갯잇, 옷잇, 갓잇, 나뭇잎, 땃잎 /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햃일

46) 피동, 위쪽, 위층, 뉘시찌, 뉘시터, 뉘시꾼, 가래꾼, 나무꾼, 뉘풀이, 뉘돌

47) 개구멍, 배다리, 새집, 머리말, 소개말, 머리방, 노래방, 빨래방, 예부터, 수소, 수놈, 개나리길

6. 준말

- ① 만만찮다, 만만치, 만만케, 만만타 () / 만만잖다, 만만지, 만만게, 만만다 ()
 ② 거북찮다, 거북치, 거북게, 거북타 () / 거북잖다, 거북지, 거북게, 거북다 ()
 ③ 섭섭찮다, 섭섭치, 섭섭게, 섭섭타 () / 섭섭잖다, 섭섭지, 섭섭게, 섭섭다 ()
 ④ 서슴타, 서슴치, 서슴게, 서슴코 () / 서슴다, 서슴지, 서슴게, 서슴고 ()

해 설

● ‘-하다’형의 준말

- ㉠ ㄱ, ㄷ, ㅂ, ㅅ 받침 다음⁴⁸⁾: -잖-, -지, -게, 다, -고
 ㉡ ㄱ, ㄷ, ㅂ, ㅅ 받침 이외⁴⁹⁾: -찮-, -치, 게, 타, 코

● 서슴지, 서슴게, 서슴고, 서슴잖다: (기본형) 서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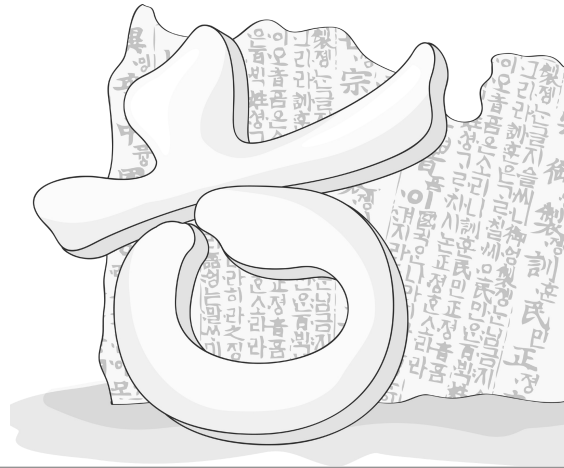
48) 거북하지 → 거북지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넉넉하지 → 넉넉지 못하지 → 못지
 49) 간편하게 → 간편케 다정하다 → 다정타
 정결하다 → 정결타 가하다 → 가타

생각하다 → 생각다 깨끗하지 → 깨끗지
 섭섭하지 → 섭섭지 익숙하지 → 익숙지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혼하다 → 혼타



표준어 규정 교육의 이해와 실제

권미영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표준어 규정 교육의 이해와 실제

권미영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1. 표준어 규정 교육의 목표

진부한 이야기지만 모든 교육에서 목표 설정은 기본이다. 아무런 목표 없이 교육을 한다면 그 교육으로 성취된 것 혹은 성취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다. 그래서 교육에 앞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표준어 규정을 교육할 때 무엇을 목표로 삼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

- 가. 표준어 규정을 정확히 안다.
- 나. 표준어 규정대로 언어생활을 하도록 한다.
- 다.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는 일상 언어생활의 오류를 안다.
- 라.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는 일상 언어생활의 오류를 고치도록 한다.
- 마.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언어생활의 방향을 세우도록 한다.

이 외에도 여러 목표가 가능하다. 교육 상황이 늘 똑같을 수 없으니 교육 목표가 고정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래도 교육을 여러 번 하다 보니 많은 수강생들이 ‘다’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필자는 표준어 교육의 목표를 ‘마’로 삼을 때가 많다. 실제 강의의 내용 대부분을 ‘다’로 구성하지만 이를 아우르는 목표는 ‘마’로 하는 것이다. 방향을 놓치지 않고 묶어 내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교육 목표를 정하는 이유이다.

2. 표준어 규정 교육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

표준어 규정을 교육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표준어 규정(어문 규정집, 국립국어원 누리집)
- 나. 표준어 규정 해설집(국어 어문 규정집, 한글 맞춤법 강의, 국립국어원 누리집)
- 다. 강의용 원고(바른 국어 생활, 원내/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 라. 새국어생활 21-4(국립국어원, 2011)

마. 표준어 규정 온라인 강의(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

‘가’와 ‘나’는 표준어 규정과 해설이므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는 가공이 필요하다. 이미 가공되어 교육 상황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는 ‘다’이다. 표준어 규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 것이므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상황에 맞추어 표준어 규정 교육의 목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이다. 2011년 표준어가 추가될 때 언어 현실과 표준어 정책에 대해 특집으로 발간되었는데 여기에 실린 글의 참고 문헌까지 아우르면 표준어 규정 교육에서 필요한 자료들 대부분을 정리할 수 있다.

‘마’는 교육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참고할 만하다. 온라인상이기는 하지만 표준어 규정에 관한 실제 교육이므로 잘만 활용하면 어떤 예로 어떻게 교육을 전개해야 할지에 대해 실제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다.

3. 표준어 규정 교육의 내용

표준어 규정을 교육할 때 다룰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
- 나. 표준어 규정의 역사
- 다. 표준어 규정의 구성
- 라. 표준어 사정의 원칙
- 마. 사정된 실제 표준어
- 바. 표준어와 표준 발음
- 사. 외국의 표준어 정책
- 아. 표준어 정책의 방향

‘가’와 ‘나’는 표준어 규정 교육에서 도입부에 해당한다. 상황에 따라 간단히 다룰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아예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정된 실제 표준어를 논하려면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을 잘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와 ‘라’는 표준어 규정 교육에서 본론의 서두에 해당한다. 표준어 규정의 실체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준어 규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표준어를 어떻게 정의하며 그 함의는 또 무엇인지 되새겨 보는 부분이다.

‘마’는 대부분의 표준어 규정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전체를 풀어 놓기보다는 선별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래에서 함께 선별해 보도록 하겠다.

‘바’, ‘사’, ‘아’는 교육 상황이나 대상자의 요구, 교육의 목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아’의 경우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어 규정 교육에서는 다루어 볼 만한 내용이다.

가.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

한 시대 한 나라의 말이라도 지역이나 사회 계층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국민 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국가에서 국민의 언어생활의 기준으로 제정한 것이 표준어 규정이다. 온 국민이 함께 쓰기로 약속한 공통 언어, 즉 표준어를 통해 언어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

나. 표준어 규정의 역사

(바른 국어 생활의 표준어 규정의 제정 과정 부분 참고)

다. 표준어 규정의 구성

현재의 ‘표준어 규정’은 1988년에 정부가 개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제1부는 표준어 사정 원칙, 제2부는 표준 발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표준어 사정의 원칙

표준어를 사정한 원칙은 ‘표준어 규정’의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중 ‘제1장 총칙’의 ‘제1항(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을 살펴보면 정리한다.

마. 사정된 실제 표준어

표준어 규정의 실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주로 다루어야 할 또는 다룰 만한 내용은 밑줄을 쳐 둔다. 2011년에 추가된 표준어도 함께 살펴본다.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나팔꽃/*나발꽃, 칸/*간, 털어먹다/*떨어먹다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을갈이/*가을카리, 분침/*핀침

제5항 어원에서 떨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낭콩/*강남콩, 사글세/*삭월세

제6항 다음 단어는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둘/*똥, 둘째/*두째, 셋째/*세째, 빌리다/*빌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수팽/*숫팽, 수늪/*숫늪, 수소/*숫소

다만 1. 다음 단어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수강아지/*숫강아지, 수평아리/*숫병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숫양/*수양, 숫염소/*수염소, 숫쥐/*수쥐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깡충깡충/*깡총깡총, -둥이/*-동이), 오뚝이/*오투기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부조(扶助)/*부주, 사둔(査頓)/*사둔, 삼촌(三寸)/*삼촌

제9항 ‘ㄹ’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는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내기/*-나기, 냄비/*남비

[붙임 1] 다음 단어는 ‘ㄹ’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아지랑이/*아지랭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 장이’, 기타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장이/*미쟁이, 멧쟁이/*멧장이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루나무/*미류나무, 으레/*으레, 괴팍하다/*괴팍하다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구려/*- 구료, 깍쟁이/*깍정이, 나무라다/*나무래다

바라다/*바래다, 상추/*상치, 튀기/*트기, 주책/*주착

제12항 ‘옷 -’ 및 ‘윗 -’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 -’으로 통일한다.

윗눈썹/*옷눈썹, 윗니/*옷니, 윗도리/*옷도리, 윗목/*옷목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위짹/*옷짹, 위쪽/*옷쪽, 위층/*옷층, 위턱/*옷턱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옷 -’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옷돈/*윗돈, 옷어른/*윗어른, 옷웃/*윗웃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구절/*귀절, 대구/*대귀, 시구/*시귀

다만, 다음의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글/*구글, 글귀/*글구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면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파리/*또아리, 무/*무우, 생쥐/*새양쥐

제15항 본말이 널리 쓰이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이개/*귀개, 부스럼/*부럼, 낚새/*낚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너[四]/*네, -(으)려고/*(으)르려고, 천장/*천정, -습니다/*-읍니다

제18항 다음 단어는 앞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뒷부분도 허용한다.

쇠-/소-, 괴다/고이다, 네/예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꺼림하다/깨름하다, 나부랭이/너부랭이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 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설거지하다/*설겅다, 애달프다/*애닦다, 오동나무/*머귀나무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까막눈/*맹눈, 박달나무/*배달나무

제22항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개다리소반/*개다리밥상, 총각무/*알타리무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남겨 두는 원칙으로 한다.

멍게/우렁쟁이,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순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더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빈대떡/*빈자떡, 코주부/*코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고치다/*낫우다, 불으락푸르락/*푸르락불으락,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하다, 주책없다/*주책이다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뭇/가물, 가엿다/가엹다, -이에요/-이어요, 우레/천둥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11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등물	목물
맨날	만날
못자리	뫓자리
복숭아뼈	복사뼈
세간살이	세간
쌈싸름하다	쌈싸래하다
토란대	고운대
허접쓰레기	허섭스레기
흙담	토담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25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길래	~기에	~길래: ‘~기에’의 구어적 표현.
개발새발	괴발개발	‘괴발개발’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이고, ‘개발새발’은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임.
나래	날개	‘나래’는 ‘날개’의 문학적 표현.
내음	냄새	‘내음’은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로 제한됨.
눈꼬리	눈초리	눈초리: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예) ‘매서운 눈초리’ 눈꼬리: 눈의 귀 쪽으로 찌진 부분.
떨구다	떨어뜨리다	‘떨구다’에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라는 뜻이 있음.
뜨락	뜰	‘뜨락’에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하는 뜻이 있음.
먹거리	먹을거리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름.
메꾸다	메우다	‘메꾸다’에 ‘무료한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흘러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음
손주	손자(孫子)	손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어수룩하다’는 ‘순박함/순진함’의 뜻이 강한 반면에, ‘어리숙하다’는 ‘어리석음’의 뜻이 강함.
연신	연방	‘연신’이 반복성을 강조한다면, ‘연방’은 연속성을 강조.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횡하니	횡허케	횡허케: ‘횡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자음 또는 모음의 차이로 인한 어감 및 뜻 차이 존재
꼬적거리다	끼적거리다	"
두리몽실하다	두루몽술하다	"
맨송맨송/맹송맹송	맨송맨송	"
바둥바둥	바동바동	"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
아웅다웅	아웅다웅	"
야멸차다	야멸치다	"
오손도손	오순도순	"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

○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3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택견	태견
품새	폼새
짜장면	자장면

바. 표준어와 표준 발음

표준어를 동일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표준 발음법이다. 부정확한 모음의 발음이나 받침의 발음을 이해하고 바르게 발음하는 연습을 해 본다.

사. 외국의 표준어 정책

2011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의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 여러 나라의 표준어 정책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아. 표준어 정책의 방향

표준어 규정을 살펴본 후 잘못 쓰이는 표현에만 얽매이기보다는 표준어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토의하거나 표준어의 미래에 관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4. 표준어 규정 교육의 방법

표준어 규정을 교육할 때 쓸 만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설명 강의
- 나. 문제 풀이
- 다. 토의 토론
- 라. 온라인 강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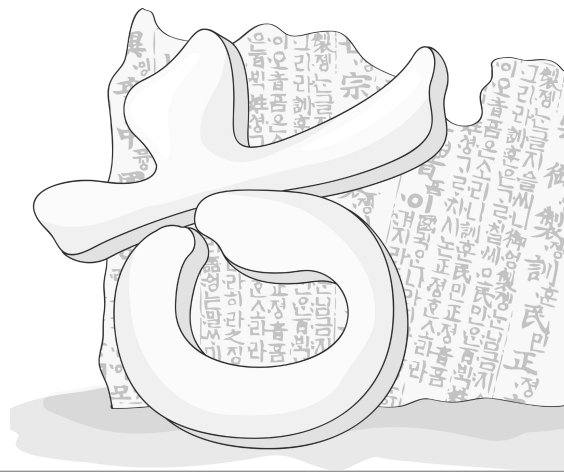
‘가’와 ‘나’는 가장 많이 쓰이며 교육 대상자들도 좋아하는 방법이다. 설명식 강의는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고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표준어 규정을 교육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제 풀이는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들을 문제로 구성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설을 덧붙이면 지루함이 덜하고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강점이다.

‘다’와 ‘라’는 단독으로보다는 다른 방법과 겸하여 쓰면 효율적이다. 특히 교육 대상자들이 청소년일 때에는 집중력을 높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외래어·로마자 표기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

김주미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외래어·로마자 표기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

김주미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외래어 표기법】

I. 여는말

이 지구 위에 있는 언어 가운데 아마도 다른 언어와 접촉이 없는 언어는 없을 것이다.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에는 특히 더 그러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어와 만주어, 몽골어 등으로부터 많은 말을 받아들였고, 일제 강점기를 살아 내면서 일본어가 대대적으로 유입되었으며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들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중 전래된 지 오래되고 우리 정서와 말에 녹아 마치 우리말인양 생각되는 것도 아주 많다. 예컨대 ‘흐지부지, 어차피, 별안간, 야단법석’ 등은 마치 고유어인 듯 생각되고, ‘염라대왕, 수라, 송골매, 남포, 외도’ 등과 같은 예들은 어디서 온 말인지조차 아는 이도 많지 않다.

이러한 단어들을 제외하고 특히 우리말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대체로 19세기 말엽, 서양의 문물과 더불어 들어오기 시작한 말이다. 21세기 들어 다른 나라 말이 더욱 광범위하고 매우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그에 따라 점차 우리 생활에서 남의 나라 말이 아주 다양하고 폭 넓게 쓰이는 것을 뛰어넘어 무분별하고 함부로덤부로 쓰이는 모습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표제어만 보더라도 순수 외래어 표제어가 전체 표제어의 5.26%, 외래어가 한 자라도 포함된 것을 포함하면 전체의 9.27%를 외래어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와 ‘외국어’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외래어 표기법’이 있으나 이를 아는 이도 많지 않아 표기를 잘못하는 일도 흔하다. 이 강좌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재를 알아보기로 한다.

II. 외래어 표기법의 이해

1. 외래어와 외국어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로,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말”로 정의되고 있다. 즉, 외래어란 외국어 중 국어처럼 쓰이는 말인데, ‘국어처럼’의 ‘처럼’이 얼마만큼 국어와 비슷해야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익숙해야 외래어라고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준 마련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외국어가 외래어로 여겨지는 그 기간이나 방식이 어휘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 그런 말을 쓰고 있는 한국인들조차도 외래어라고 여기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쓰고 있는 예들 중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조차 불분명한 것이 많기도 하다.

외래어는 해당 언어의 발음대로 소리내기보다는 — 물론 해당 외래어(?)에 친숙한 사람은 제외하고 — 국어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발음된다. 예컨대 ‘family[fæmili]’, ‘report[ri:pɔ:rt]’, ‘three[θri:]’ 등에서 [f], [r], [θ]와 같은 음은 국어에는 없는 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훼미리, 패밀리’ 등으로, ‘레포트, 리포트’로, ‘쓰리, 프리, 트리, 스리’ 등으로 제각각 발음하기도 한다.

또 국어와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어휘를 생성하기도 한다. 즉, 어간이나 어근에 ‘-하다’를 붙이는 국어 조어법에 외래어가 동참하여 ‘드라마틱하다’, ‘드레시하다’, ‘렌트하다’처럼 형용사나 동사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syndrome’이나 ‘meeting’의 -ting’과 같은 것은 마치 접사인양 ‘몸짱신드롬’, ‘얼짱신드롬’, ‘노OO신드롬’, ‘동안신드롬’, ‘피터팬신드롬’, 또 ‘소개팅’, ‘번개팅’, ‘차팅’ 등등처럼 쓰이기도 한다.

또 원래의 의미에다가 한국의 실정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더해져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meeting’은 ‘회의’ 이외에 ‘남녀 간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garden’은 ‘정원’ 말고도 ‘(갈비 등 주로 고기를 파는) 음식점’이라는 뜻으로 한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결국 외국어와 외래어의 구분은 쉽지 않으며, 대개 다른 나라의 말 중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면 외래어, 그렇지 않으면 외국어라고 편의상 구분 짓고 있다.

2. 외래어 표기법의 역사

외래어 표기법은 1940년 조선어학회에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으로 펴낸 것이 처음인데, 이 안의 총칙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6장 ‘외래어를 표기할 적에는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않으며, 표음주의를 취한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의 개략적인 원칙은 1933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후 외래어 표기법은 1948년 문교부의 ‘들온말 적는 법’을 거쳐 1958년 문교부의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으로 개정되었다. 1958년 표기법의 기본 원칙은 조선어학회의 1940년 통일안을 계승한 것이었으며, 1959년부터 1963년까지 편수 자료 1, 2, 3, 4집을 펴냄으로써 1958년 표기법은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문교부가 1979년에 펴낸 ‘외래어 표기법안’은 1958년 문교부 안과 그 후에 편찬된 편수 자료의 세척 사이에서 모순점과 미비점이 드러나 이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후 문교부 1979년 안은 1983년 학술원의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으로, 1986년 1월 7일에 문교부 고시 제85-11로서 고시된 현행 ‘외래어 표기법’으로 이어진다.

현재의 표기법은 그동안 외래어 표기법의 여러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이다. 사실, 음운 체계 등이 서로 다른 지구상의 190개국 이상에 퍼져 있는 수천 가지 언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을 정해야 하므로, 여하한 표기법도 들어온 모든 말을 만족스럽게 적을 방법을 제시하기는 불가능하다.

3. 외래어 표기법의 존재 이유

외래어 표기법이 없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 있다. 사람에 따라 ‘gas’가 ‘가스, 가쓰, 까스, 까쓰, 개스, 개쓰, 깨스, 깨쓰’ 등으로, ‘Los Angeles’는 — 띄어쓰기를 제외하고라도 — ‘로스앤젤레스, 로스엔젤레스, 로스안젤레스, 로스앤젤리스, 로스앤젤스, 로스엔젤스, 로샌젤레스, 로샌젤리스’ 등등으로 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어 하나만 하더라도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필리핀식 영어, 콩글리시, 징글리시, 칭글리시가 발음이 같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자가 한 사람일지라도 듣는 사람이 여럿이면 모두 제각각 다르게 들을 수도 있고 들리는 대로 표기를 하게 된다면 표기도 사람 수만큼 다양할 수 있다.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에 관한 표기가 다채롭다면 참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불편하고 혼란스럽기 그지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외래어를 적는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대단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법을 두어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말을 하나의 표기로 통일했을 때, 언어생활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가독성도 높을 것이다.

다만, 표기를 하되 어떻게, 또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은 있다. 즉, 원래의 발음을 얼마나 충실하게 한글로 옮길 것인지, 원어의 어떤 발음을 어떤 한글 자모로 옮길 것인지, 또 우리말로 적을 수 없는 발음을 적기 위해 새로운 부호를 만들 것인지와 같은, 원리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에 우리는 원어의 발음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반영하여 한글로 옮기기로 하고 마련한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다.

4. 외래어 표기법의 구성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모두 네 개의 장으로,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 표기 일람표, 제3장 표기 세칙, 제4장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기 일람표는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비롯하여 러시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에 이르기까지 총 19개의 언어에 관한 해당 자모와 한글 대조표가 있다. 세칙은 영어의 표기부터 러시아 어의 표기 세칙까지 총 21개절의 표기 세칙이 마련되어 있다. 끝으로 인명과 지명, 특히 동양의 인명과 지명 표기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Ⅲ. 외래어 표기법의 실제

1.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가.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우리가 표준어를 한글로 적을 때 어떻게 적을지를 정한 한글 맞춤법이 있듯이 외래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해 놓은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다. 사실, 외래어의 발음은 국어와 달라 국어 자모로는 그 발음을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것은 자명하다. 예컨대, 영어 하나만 하더라도 ‘r’과 ‘l’, ‘b’와 ‘v’의 차이를 어떻게 표기에 반영할 것이며, 국어에는 없는 발음 [f], [θ]를 또 어떤 자음으로 대응시킬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또, 철자대로 쓰이는 언어라고 하더라도 해당 언어의 철자 중 우리말로 적을 수 없는 것이 많다. 이럴 때 새로운 부호를 만들어서라도 그 언어의 정확한 발음을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것은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여러 논쟁거리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기도 하다. 특히 영어에 익숙해진 한국인이 많아지면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힌 ‘오렌지’가 ‘orange’를 본토(?) 영어처럼 발음하도록 가르치려는 부모들로부터 외국어 습득에 저해가 된다는 원성을 사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은 ‘표기법’이지 ‘발음법’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만약, 국어에 없는 외래어의 소리를 국어로 적을 때 새로운 부호를 만들어 쓴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많은 기호가 필요할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언어마다 구조와 체계가 같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 것을 모두 반영한다면 결국은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발음법’이 될 수밖에 없으며 같은 것의 발음이 여럿일 때에는 그중 어느 것이 표준인지를 정하는 일 또한 만만하지 않다. 더 나아가 한국인들은 외래어 표기법 익히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익힌다고 하더라도 종종 불법 행위를 자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조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국어 자모 이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즉, 외래어의 실제 발음이 표기와 다르더라도 새로운 기호를 만들

어 적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왜냐하면 외래어는 국어의 일부이며, 모든 국민이 익혀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기호를 익혀야 하는 부담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fighting’, ‘three’를 ‘파이팅’과 ‘스리’로 각각 적으며, ‘light’나 ‘right’의 ‘l’과 ‘r’을 ‘ㄹ’ 한 가지로 적게 되면서 이 둘의 표기는 둘 다 ‘라이트’가 된다.

나.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이 항은 국어 표기가 하나의 음운에 대하여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는 것처럼 외래어의 표기도 그와 같도록 하려는 의도와, 그렇게 했을 때 기억하기와 표기하기가 쉬울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외국어의 1음운이 그 음성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어의 여러 소리에 대응되는 때에는 1음운 1기호의 원칙이 무리임을 인정하여 2항 중에 ‘원칙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였다. 따라서 ‘pen’, ‘spring’, ‘gap’에서 영어 음운 ‘p’는 각각 ‘ㅍ’, ‘프’, ‘ㅍ’으로 적히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race’와 ‘lace’의 ‘r’과 ‘l’은 국어로는 모두 ‘ㄹ’로 적힌다.

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

이 조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국어의 받침법칙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즉, 국어에서는 홑받침과 겹받침 모두를 합하면 27개의 받침을 쓸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외래어 표기에서는 받침의 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컨대, 국어에서 ‘꽃’은 단독으로 발음하면 [꼇]으로 중화된다. 그러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등과 함께 쓰이면 ‘꽃에’가 [꼬체]로, ‘꽃으로도’가 [꼬츠로도]로 발음되어 ‘꽃’의 원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용언 어간 ‘ㅁ-’에 명사형 어미 ‘-음’을 붙이면 [말금]으로 발음되며, 같은 원리로 ‘햇별에’는 [해뻘테]로, ‘숲이’는 [수피]로 각각 발음된다.

그러나 ‘*디스켓’과 ‘*커피숍’으로 쓰이기도 하는 ‘disket’과 ‘coffee shop’에 조사 ‘-이’와 ‘-에다’, ‘-에서’를 각각 붙인 것을 [디스케시]와 [디스케세다], [커피쇼비]와 [커피쇼베서]처럼 ‘디스켓’과 ‘커피숍’으로 발음하지 한국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디스케티]와 [디스케테다], [커피쇼피]와 [커피쇼페다]로 발음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햇별’이나 ‘숲’은 우리말이고 ‘disket’과 ‘coffee shop’은 우리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이 나타난 결과이다.

또 ‘disket’을 ‘디스켓’으로 적지 않는 까닭은 고유어나 한자어에서 ‘ㄷ’ 받침 체언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고유어나 한자어의 음절 말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되거나 자음 앞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개 음운으로 중화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도 ‘ㄷ’ 발음이 유지되지 않아 현대 표준어에는 ‘ㄷ’ 받침의 체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어가 국어에 수용될 때는 음절 말이 [t]로 끝나는 단어들이 ‘ㄷ’이 아니라 ‘ㅅ’으로 적는다. 이는 마치 국어의 ‘맛’이 [맛]으로 발음되고 ‘맛이’와 ‘맛을’이 [마시]와 [마슬]로 발음되므로 ‘맛’으로 적는 것과 같다.

라.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의 파열음은 대체로 유성과 무성의 2원 대립을 이루나 국어의 파열음은 평음(예사소리)과 경음(된소리), 격음(거센소리)의 3원 대립을 보인다.

영어의 경우 ‘b, d, g’는 국어의 평음 ‘ㅂ, ㄷ, ㄱ’에 대응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ㅃ’이나 ‘ㄲ’보다 ‘ㅂ’이 음운의 성격상 [b]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어의 무성음이면서도 유기음인 ‘p, t, k’는 자연스레 국어의 ‘ㅍ, ㅌ, ㅋ’에 대응된다.

이와 달리 프랑스 어, 이탈리아 어, 스페인 어, 러시아 어 등과 같은 언어들은 유성과 무성의 대립은 존재하나 영어와 다르게 무성 파열음의 발음이 무기음에 가까워 국어의 격음과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프랑스 어 등의 파열음은 국어의 된소리로 적어야 옳다. 그러나 한글로 표기해야 할 외래어의 수효는 대단히 많다. 그러므로 파열음 표기를 각국 언어의 음운 성격에 맞춰 적으려면 해당 언어의 음운에 대한 특성과 성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징에 따라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구별하여 적는 것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체계성이 없으므로 표기를 하는 데에 대단한 노력이 들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리의 성격상 된소리 표기를 해야 마땅해 보이는 것들을 거센소리로 적는다. 사실, 한 언어의 발음을 다른 언어의 표기 체계에 따라 적을 때, 정확한 발음을 전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정확한 원음을 구현하기보다는 표기 체계의 간결성과 편의성, 체계성을 좇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외래어 표기에서 된소리를 허용한 것은 관용어의 빵, 껌 등과 중국어의 ‘마오쩌둥’이나 ‘쑨원’, 일본어의 ‘쓰시마’, ‘쓰나미’ 정도였다. 그러다가 2004년 동남아 3개 국어에 대한 표기법을 고시하면서 베트남 어의 ‘땀’이나 ‘호찌민’ 등과 타이 어의 ‘푸껫’ 등의 외래어가 된소리로 표기되게 됨으로써 된소리 표기의 폭이 다소 넓어졌다.

마.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외래어가 들어오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카메라’와 ‘모델’ 같은 것은 철자를 로마자 읽기 식으로, ‘펌프’는 귀로 들어, ‘후앙(fan)’은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왔고, ‘담배’와 ‘납포’ 등은 들어온 지가 오래되어서 외래어라는 인식조차 없다.

이렇듯 다채로운 경로를 통해 들어온 외래어를 특정 원칙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외래어 중 아주 오랫동안 쓰여 굳어진 관용어는 그 관용을 인정하여 원칙 밖에 두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관용의 예로는 ‘카메라, 파라다이스, 빵, 히로뽕, 빨치산’ 등과 같은 것이 있다. 다만, 관용의 한계를 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하는 방법은 표준어를 사정하듯이, 여러 어형 가운데 어떤 것이 얼마나 자주 또 일반적으로 쓰이는지를 조사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사정한 외래어 표기를 알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외래어 표기와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엄청나게 괴리를 보이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IV. 외래어 표기법 규정

외래어의 한글 표기 지침은 제2장의 표기 일람표로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한글 표기가 가능한 언어는 각 개별 언어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 그러나 한 기호를 그것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달리 표기하도록 한 것은 그 예시가 필요하며, 언어에 따라 개별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를 위하여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대체로 세칙은 영어를 중심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언어도 영어의 표기 세칙에서 규정된 내용을 준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1. 자음의 표기

가. 파열음 ([p], [t], [k])([b], [d], [g])

1) 모음 앞에 파열음 [p, t, k, b, d, g]는 ‘ㅍ, ㅌ, ㅋ, ㅂ, ㄷ, ㄱ’으로 적는다.

page[peɪdʒ] 페이지	tennis[tenɪs] 테니스
coin[kɔɪn] 코인	box[baks/bɒks] 박스
dam[dæm] 댐	guitar[ɡɪtə] 기타

2)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파열음[p, t, k]는 받침 ‘ㅍ, ㅌ, ㄱ’으로 적는다.

cap[kæp] 캡	robot[roubat/roubɒt] 로봇
book[buk] 북	

3)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파열음은 받침 ‘ㅍ, ㅌ, ㄱ’으로 적는다.

napkin[næpkin] 냅킨	action[ækʃən] 액션
-------------------	------------------

4) 위의 경우 이외 어말과 자음 앞의 무성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paint[peɪnt] 페인트	date[deɪt] 데이트
park[[pa:k/paɜrk] 파크	desk[desk] 데스크
apple[æpl] 애플	mattress[mætrɪs] 매트리스

5)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파열음[b, d, g]는 ‘으’를 붙여 적는다.

herb[hɜ:rb] 허브	fund[fʌnd] 펀드
----------------	---------------

zigzag[zɪgzæg] 지그재그

6) 그러나 간혹 관용을 존중하여 규칙과 다른 표기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hip[hɪp] 히프

set[set] 세트

cut[cut] 커트/컷

alcohol[ælkəhɔ:l] 알코올

type[taɪp] 타입/타이프

handbag[hændbæg] 핸드백

나. 마찰음([s], [z], [f], [v], [θ], [ð], [ʃ], [ʒ])

1) 모음 앞의 마찰음 [s, z, f, v, θ, ð]는 ‘ㅅ, ㅈ, ㅍ, ㅅ, ㅈ’으로 적는다. 특히 [f]는 ‘ㅍ’으로, [s]는 ‘ㅅ’으로 적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service[sə:rvis] 서비스

zoom[zu:m] 줌

fuse[fju:z] 퓨즈

violin[vaiəlin] 바이올린

three[θri:] 스리

father[fa:ðər] 파더

2)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mask[mask] 마스크

jazz[dʒæz] 재즈

graph[græf] 그래프

olive[ɒlɪv] 올리브

thrill[θrɪl] 스릴

bathe[beɪð] 베이드

3)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dash[dæʃ] 대시

shrub[ʃrʌb] 슈러브

shark[ʃɑ:ʔk] 샤크

shank[ʃæŋk] 생크

fashion[fæʃən] 패션

sheriff[ʃerɪf] 셰리프

shopping[ʃɒpiŋ] 쇼핑

shoe[ʃu:ʔ] 슈

shim[ʃɪm] 십

* 영어 이외의 언어는 항상 ‘슈’로 적는다.

Einstein 아인슈타인

Tashkent 타슈켄트

다. 파찰음([ts], [dz], [tʃ], [dʒ])

1) 모음 앞의 파찰음은 ‘스, 즈’로 적는다. 파찰음 뒤에는 ‘ㅈ, ㅉ, ㅊ, ㅌ’가 올 수 없는데, 그 까닭은 파찰음 뒤에서는 이중모음과 단모음이 구별되지 않는 국어의 특성을 외래어 표기에 반영한 결과이다. 즉, 국어에서 ‘쟈, 저, 죠, 쥬’는 ‘자, 저, 조, 주’로 발음되며 의미도 구별되지 않는다.

mirage[miraʊʒ] 미라지	vision[viʒən] 비전
chart[tʃaʊt] 차트	virgin[vəʊdʒin] 버진

2) 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 dz]는 ‘츠’, ‘즈’로 적고, [tʃ, dʒ]는 ‘치’, ‘지’로 적는다.

Keats[kiʊts] 키츠	odds[ɔdz] 오즈
switch[switʃ] 스위치	bridge[bridʒ] 브리지
Pittsburgh[pitsbəʊg] 피츠버그	hitchhike[hitʃhaik] 히치하이크

라. 비음([m], [n], [ŋ])

1) 모음 앞의 [m, n]은 ‘ㅁ, ㄴ’으로 적는다.

image[imidʒ] 이미지	domino[dɒmino] 도미노
napkin[næpkin] 냅킨	moon[mu:n] 문

2)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

steam[stiʊm] 스팀	corn[kɔʊn] 콘
ring[riŋ] 링	lamp[læmp] 램프
hint[hint] 힌트	ink[iŋk] 잉크

3) 모음과 모음 사이의 [ŋ]은 앞 음절의 받침 ‘ㅇ’으로 적는다

hanging[hæŋiŋ] 행잉	longing[lɒŋiŋ] 롱잉
-------------------	-------------------

마. 유음([l])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l]은 받침으로 적는다.

hotel[houtel] 호텔	pulp[pʌlp] 펄프
------------------	---------------

2)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 앞에 올 때에는 ‘ㄹ’로 적는다. 다만, 비음 [m], [n] 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ㄹ’로 적는다.

slide[slaid] 슬라이드

film[film] 필름

helm[helm] 헬름

swoln[swouln] 스월른

Hamlet[hæmlit] 햄릿

Henley[henli] 헨리

2. 모음의 표기

모음을 표기할 때에는 철자가 아니라 발음기호를 기준으로 두어야 표기법에 어긋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가. 단모음([ə], [ʌ], [ɔ], [o], [æ], [e], [ɛ])

단모음 [ə]와 [ʌ]는 ‘어’, [ɔ]와 [o]는 ‘오’, [æ]는 ‘애’, [e]와 [ɛ]는 ‘에’로 적는다.

accessory[ækseʃəri] 액세서리

shutter[ʃʌtər] 셔터

color[kʌlər] 컬러

honey[hʌni] 허니

concert[kɒnsərt] 콘서트

control[kəntrol] 컨트롤

나. 중모음([ai], [au], [ei], [ɔi], [ou], [auə])

1)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time[taim] 타임

house[haus] 하우스

skate[skeɪt] 스케이트

tower[tauə] 타워

oil[oɪl] 오일

boat[bout] 보트

다. 반모음([w], [j])

1) 반모음 [w]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wə], [wɔ], [wou]는 ‘워’, [wa]는 ‘와’, [wæ]는 ‘왜’, [we]는 ‘웨’, [wi]는 ‘위’, [wu]는 ‘우’로 적는다.

word[wɜ:d] 워드

want[wɒnt] 원트

woe[wou] 워

wander[wandə] 완더

wag[wæg] 왜그

west[west] 웨스트

witch[wɪtʃ] 위치

wool[wul] 울

2) 자음 뒤에 [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g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

swing[swɪŋ] 스윙

twist[twɪst] 트위스트

penguin[peŋgwin] 펭귄

whistle[hwisl] 휘슬

quarter[kwɔ:tə] 쿼터

3) 반모음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야’, ‘애’,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d], [l], [n] 다음에 [jə]가 올 때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 적는다.

yard[ja:d] 야드

yank[jæŋk] 앵크

yearn[jə:n] 연

yellow[jelou] 옐로

yawn[jɔ:n] 윤

you[ju:] 유

year[jiə] 이어

Indian[indjən] 인디언

battalion[bətæljən] 버탈리언

union[ju:njən] 유니언

라. 장모음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team[ti:m] 팀

route[ru:t] 루트

3. 복합어

가.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cuplike[kʌplaik] 컵라이크

bookend[bukend] 북엔드

headlight[hedlait] 헤드라이트

touchwood[tʌtʃwud] 터치우드

bookmaker[bukmeikə] 북메이커

sit-in[sitin] 시트인

flashgun[flæʃgʌn] 플래시건

topknot[tɒpnɒt] 톱낫

나.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Los Alamos[lɒsæləməʊs] 로스 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top class[tɒpkləs] 톱 클래스/톱클래스

4. 동양의 인명과 지명 표기

인명과 지명의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서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Caesar[시저]’, ‘Hague[헤이그]’와 같이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또 ‘Pacific Ocean’, ‘Black Sea’를 ‘태평양’, ‘흑해’처럼 고유명사의 번역명이 통

용되는 때에도 관용을 따르는 등, 관용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가. 중국 인명은 신해혁명(1911)을 기준으로, 과거인은 한자음대로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을 준수하되 필요 시 한자를 병기한다.

공자(孔子)	맹자(孟子)
덩샤오핑(鄧小平)	마오쩌둥(毛澤東)
주룽지(朱鎔基)	장궈룽(張國榮)

나. 중국 지명 중,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한자음대로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을 준수한다.

강남(江南)		
후난 성(湖南省)	광저우(廣州)	항저우(杭州)

다. 일본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재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 준수를 준수하며 필요 시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일본어 표기에서 촉음(促音) ‘ッ’는 ‘ス’으로 적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아베 신조(安倍晋三)
가고시마(鹿兒島)	삿포로(札幌)

라. 중국과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北京 베이징/북경	黃河 황하/황허
臺灣 타이완/대만	東京 도쿄/동경
上海 상하이/상해	京都 교토/경도

5. 바다, 섬, 강, 산의 표기

가.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는 붙여 쓴다.

카리브 해	발리 섬	센 강	알프스 산
흑해	목요섬	섬진강	백두산

나. 바다는 ‘해(海)’로 통일한다.

홍해 발트 해 아라비아 해

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타이완 섬 코르시카 섬

(우리나라: 제주도, 울릉도)

라.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온타케 산(御岳)	주장 강(珠江)
도시마 섬(利島)	하야카와 강(早川)
위산 산(玉山)	

마.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산’, ‘강’ 등을 겹쳐 적는다.

Rio Grande 리오그란데 강	Monte Rosa 몬테로사 산
Mont Blanc 몽블랑 산	Sierra Madre 시에라마드레 산맥

바. 그 밖의 구체적인 외래어 표기의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1) 지명은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카리브 해 아칸소 주 에베레스트 산 미시간 호

2) 언어명이나 종족명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일 수 있다.

러시아 어/러시아어	프랑스 어/프랑스어
게르만 족/게르만족	그리스 인/그리스인

3) 아래와 같은 예는 붙여 쓴다.

그레고리력(歷)	디자인력(力)
디자인료(料)	알코올류(alcohol類)

4) 외래어의 띄어쓰기는 원어의 띄어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만 국어에서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라면 띄어 쓰지 않는다.

앵커맨	백미러	콜택시	슈크림	코너킥	아이스크림
골인	골킥	홀인원	홈런	핫케이크	핫도그
핫라인	팝송	워밍업	와이셔츠	월드컵	

5) 아래의 예는 준말이나 음운론적 융합이 일어난 말로 이때에도 붙여 쓴다.

에드벌룬(ad balloon)	에어컨(air conditioner)
리모컨(remote control)	오므라이스(omlet rice)
오토바이(auto bicycle)	오피스텔(office hotel)

V. 맺는말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 하든 대화 속에서도 간행물, 간판 등 모든 언어생활에서 외래어와 외국어가 쓰이고 있다. 외래어는 국어 어휘를 풍성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불필요한 외래어의 남용은 국어 생활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외래어에 관해 갖고 있는 우리의 의식을 한 번쯤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필요 충족의 동기를 가지고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권위 충족을 위해 외래어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또한 외래어를 쓸 때에도 국어정서법에 맞게 적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래어 표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옳은지가 확실치 않은 외래어를 접할 때마다 국어사전을 찾아 확인하고 이를 기억하는 성의가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주미(2005), 현대인의 바른 국어 생활, 경진문화사.
- 김태성(2007), “중국 인명 및 지명 표기의 문제점”, 바람직한 외래어 정책 수립을 위한 학술토론회, 한글문화연대.
- 대한교과서(주)(2008),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
- 박종덕(2007), “외래어 및 그 표기법에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한민족문화 연구, 제23집, 한민족문화학회.
- 임동훈(2007), “외래어 표기법의 과제”, 바람직한 외래어 정책 수립을 위한 학술토론회, 한글문화연대.
- 임홍빈(2008)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 정희원 외(2004), 특집·외래어와 외국어,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 국립국어원.
- 정희창(2000), “‘카리브 해’와 ‘이슬람력’의 차이”, 새국어소식 2000년 제20호, 국어어문 진흥회.

참고1

◆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

자음			반모음		모음	
국 음 기	제 성 호	한글	국 음 기	제 성 호	국 음 기	제 성 호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p		ㅍ	j	이*	I	이
b		ㅂ	ɥ	위	y	위
t		ㅌ	w	오, 우*	e	에
d		ㄷ			ø	외
k		ㅋ			ɛ	에
g		ㄱ			ẽ	앵
f		ㅍ			œ	외
v		ㅂ			œ̃	외
θ		ㅅ			æ	애
ð		ㄷ			a	아
s		ㅅ			ɑ̃	아
z		ㅅ			ʌ	어
ʃ		시			ɔ̃	오
ʒ		지			õ	오
ts		츠			o	오
dz		즈			u	우
tʃ		치			ə**	어
dʒ		지			ə̃	어
m		ㅁ				
n		ㄴ				
ɲ		니*				
ŋ		ㅇ				
l		ㄹ, ㄹㄹ				
r		ㄹ				
h		ㅎ				
ç		ㅎ				
x		ㅎ				

* [j], [w]의 ‘이’와 ‘오, 우’, 그리고 [ɲ]의 ‘니’는 모음과 결합할 때 제3장 표기 세칙에 따른다.

** 독일어의 경우에는 ‘에’,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으’로 적는다.

참고2

◆ 헛갈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

ankle boots *앵글 부츠/앵클 부츠
 barbecue *바베큐/바비큐
 accelerator *엑셀레타/엑셀러레이터
 cabinet 캐비닛/*캐비넷
 calender *카렌다/캘린더
 carol *캐롤/캐럴
 corsage 코르사주/*코사지
 narration *나레이션/내레이션
 cover 커버/*카바
 terminal *터미날/터미널
 talent *탈렌트/텔런트

comedy *코메디/코미디
 complex 콤플렉스/*کمپ렉스

concert 콘서트/*컨서트
 contest 콘테스트/*컨테스트
 conference 콘퍼런스/*컨퍼런스
 robot *로보트/로봇
 flute *플룻/플루트
 tape *테이프/*테입/테이프
 avec *아벡/아베크
 Vladivostok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톡

coffeeshop 커피숍/*커피썬
 Marx(사람 이름) *막스/*막스/마르크스
 Super Junior *수퍼 주니어/슈퍼 주니어

christian *크리스찬/*크리스찬/*크리스천/크리스천
 leisuresports 레저 스포츠/*레저 스포츠
 color television *칼라 텔레비전/컬러 텔레비전

balance *바란스/밸런스
 biscuit *비스킷/비스킷
 buffet 뷔페/*부페
 royal *로얄/로열
 caramel *카라멜/캐러멜
 chocolate *초코렛/*초콜렛/초콜릿
 propose *프로포즈/프리포즈
 report 리포트/*레포트
 dollar 달러/*달라
 honey *하니/허니
 navigation *네비게이션/내비게이션

compass *컴파스/컴퍼스

condition *콘디션/컨디션
 control 컨트롤/*콘트롤
 conveyor 컨베이어/*콘베이어
 cake *케익/*케익/케이크
 napkin *냅킨/냅킨/*넵킨/*넵킨
 mattress 매트리스/*맷리스
 Veitnam 베트남/*벳남

disket 디스켓/*디스켈
 workshop *워크샵/워크숍
 casual *캐주얼/캐주얼

chance 찬스/*찬스
 juice *쥬스/주스
 chart 차트/*차트

family *웨미리/페밀리
 fighting 파이팅/*화이팅
 front *후론트/*프론트/프린트

New York *뉴우요오크/뉴욕
 大阪(일본 지명) *오오사카/오사카

claim 클레임/*크레임
 plaza *프자라/플라자
 club 클럽/*클럽
 kilogram *키로그램/킬로그램

slow food 슬로 푸드/*슬로우 푸드
 boat *보우트/보트
 bonus *보우너스/보너스

tower 타워/*타우어

jam 잼/*잼
 cafe 카페/*까페
 conte *콩트/콩트

English 잉글리시/*잉글리쉬
 dash *대쉬/대시
 Shakespeare 셰익스피어/*섹스피어

church *처취/처치

set *셋트/*셋/세트
 type 타이프/타입

massage *맛사지/마사지
 switch 스위치/*스윗치

센 강/*쎄느 강/*센강/*세느강
 알프스 산/*알프스산

fitness center 피트니스 센터/*휘트니스 센터
 계란 fry *계란 후라이/계란 프라이

dahlia *다알리아/달리아

clinic 클리닉/*크리닉
 catalog 카탈로그/*카타로그
 plastic 플라스틱/*프라스틱
 blouse *브라우스/블라우스

snow *스노우/스노
 window *윈도우/윈도
 eye shadow 아이 섀도/*아이 섀도우

towel *타올/타월

Paris *파리/파리
 sign pen 사인펜/*싸인펜
 atelier *아틀리에/아틀리에

leadership 리더십/*리더쉽
 cash 캐시/*캐쉬

match 매치/*매취

cut 컷/커트/*컷트

sketch 스케치/*스켓치
 bridge 브리지/*브릿지

*두만 강/두만강
 백두산/*백두 산

지중해/*지중 해

러시아 어/러시아어

아라비아 해/*아라비아해

게르만 족/게르만족

투탕카멘 왕/*투탕카멘왕

알렉산더 대왕/*알렉산더대왕

지증왕/*지증 왕

광개토 대왕/*광개토대왕

이토 히로부미/*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도요토미히데요시/도요토미 히데요시(徳川家康)

*마오쩌둥/마오쩌둥(毛澤東)

저우런파/*저 우런파(周潤發)

돈키호테/*돈 키호테(Don Quixote)

돈 후안/*돈후안(Don Juan)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I. 여는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표기법 가운데, 한글을 표기 수단으로 하는 규정으로는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이 있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바르게 적는 것에 관한 법이고 외래어 표기법은 남의 말을 한글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에 관한 법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글자가 아닌 문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것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로마자로 국어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는 대상과 목적, 방법 등과 같은, 고려해야 할 점에 관한 논의가 따르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을 때 비로소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 제2000-8호로 고시된 것이다.

이 강좌에서는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의 두 가지 원리인 전사법과 전자법, 또 왜 이 규정이 필요한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역사 및 현재 국어의 로마자 표기 원리와 실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이해

1. 전사법(轉寫法, transcription)과 전자법(轉字法, transliteration)

전사법과 전자법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쟁점이 되어 온 것 중의 하나이다. 전사법은 ‘국물’을 ‘gungmul’, ‘신라’는 ‘silla’로, — 소리나는 대로 쓰는 — 현실 발음을 표기에 최대한 반영하여 적는 음소적 표기를 말하며, 전자법은 ‘국물’을 ‘gukmul’, ‘종로2가’를 ‘Jongro2-ga’처럼, — 국어에서 형태적 표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소리보다는 철자를 기준으로 하여 표기하는 방식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일찍부터 전사법을 따르고 있다. 그 까닭은 이 표기의 목적이 외국인이 국어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사법을 철저히 따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어를 제대로 발음하는지에 관한 한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어는 국어대로의 체계와 특성이 있고 다른 나라의 말은 그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완벽하게 좁혀 기록하거나 발음할 수는 도저히 없기 때문이다. 즉, 로마자는 자음에서 유성과 무성의 2원 대립이 있지만, 국어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3원 대립을 띠고 있다. 또 국어의 ‘으’와 같은 모음은 다른 나라 말에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글자로도 이 음을 나타낼 방법이 없다. 이

러한 점을 감안하고 또 표기법이 발음을 잘하기 위한 것으로 적는 것이 나은지,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한 표기가 나올지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분분하기만 하다.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이유는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교환하기 위해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다. 따라서 60여 개 나라에서 6억이 넘는 사람들이 쓴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또, 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에서도 자국의 말을 로마자화(romanization)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로마자 표기법을 우리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사법이 표기의 원칙이나, 제8항의 경우만은 전자법을 선택하고 있다.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역사

우리말의 로마자화 표기의 역사는 대략 3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하다. 1 단계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의 입국이 공식 허용된 19세기 전후, 서양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표기법을 고안하던 때이다. 2단계는 1939년 미국인 매쿰(McCune)과 라이샤워(Reischauer)가 고안하여 서양 사회에 널리 보급한 매쿰-라이샤워(M-R) 안을 거의 같게 받아들여 1984년에 문교부에서 고시하고 그것을 쓰던 때, 3단계는 1984년의 표기법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어렵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2000년 7월 7일에 공포하고 이제까지 써 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984년에 고시된 표기법에서 사용되는 반달표(~)와 어깨점(′) 등 특수부호는 기계화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특수부호를 생략하거나 무시하여 무원칙한 표기가 남발된다는 점, 또 ‘ㄱ, ㄷ, ㅂ, ㅈ’을 유성음일 때와 무성음일 때를 구분하여 달리 적는 방식은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1997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2000년 7월 7일에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특수부호를 완전히 삭제하였으며, ‘ㅛ’를 ‘eo’로, ‘ㅡ’를 ‘eu’로, 자음의 유·무성 대립에 따른 표기 방식을 없앴으며, ‘시’의 표기를 ‘shi’에서 ‘si’로 적기로 하여 기왕에 ‘sh’와 ‘s’를 구별하던 것을 통일하였다.

3. 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 □□□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이기 때문에 전사법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속리산’은 [송니산]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Songnisan’으로, ‘국민’은 [궁민]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gungmin’으로 써야 한다.

그렇게 적는 까닭은, 쓰인 로마자를 보고 우리가 국어를 발음하는 것처럼 외국인도 발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국어를 잘 알게 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꽃이’, ‘꽃도’, ‘꽃만’의 로마자 표기는 ‘kkochi’, ‘kkokdo’, ‘kkonman’으로 적히기 때문에 이 표기들에서는 ‘꽃’이라는 의미를 알 수 없으며, ‘학문(學問)’과 ‘항문(肛門)’ 모두 [hangmun]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hangmun’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동일하게 적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물론, 로마자 표기법이 뜻을 알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어를 알고 이해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항은 기계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특수 부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ㅡ, ㅣ’는 ‘ü, ö’에서 ‘eu, eo’로, ‘ㄱ, ㅌ, ㅍ, ㅊ’는 ‘k, t, p, ch’에서 ‘k, t, p, ch’로 단순화되었다. 이 항에서 ‘되도록’의 표현을 쓴 까닭은 붙임표(-)가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붙임표는 행정구역 명칭 표기 시에는 반드시 써야 하고, 그 외 이름이나 기타 혼동을 막기 위해서 쓰인다.

Ⅲ. 표기 일람

1. 모음

가.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ㅗ	ㅛ	ㅜ	ㅠ
a	eo	o	u	eu	i	ae	e	oe	wi

나. 이중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ㅑ	ㅓ	ㅕ	ㅗ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모음 표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ㅡ’와 ‘ㅣ’를 한 글자로 적을 만한 것이 없고 또한 특수 부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두 글자로 적게 되었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것처럼 ‘ㅡ, ㅣ’는 ‘ü, ö’에서 ‘eu, eo’로 적는다.

2) 이중모음은 단모음에 반모음(자음) ‘y’나 ‘w’를 받쳐 적으면 된다. 다만 ‘ㄱ’은 ‘weo’가 아닌 ‘wo’로, ‘ㄴ’은 ‘eui’가 아닌 ‘ui’로 적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세 글자의 연속은 불편을 초래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돈의 단위인 ‘원’의 로마자 표기는 ‘weon’이 아니라 ‘won’이다.

3) ‘광희문(Gwanghuimun)’처럼 ‘ㄴ’은 ‘l’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그 이유는 모음 ‘ㄴ’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모두 표기에 반영하면 오히려 의사소통을 방해할 것이므로 ‘ui’ 한 가지로 적는다.

4)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2. 자음

가.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나.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다.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라. 비음

ㄴ	ㅁ	ㅇ
n	m	ng

마. 유음

ㄹ
r, l

자음 표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구미 Gumi

백암 Baegam

벚꽃 beotkkot

영동 Yeongdong

옥천 Okcheon

호법 Hobeop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구리 Guri

칠곡 Chilgok

울릉 Ulleung

설악 Seorak

임실 Imsil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

IV. 표기의 실제

1.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를 반영하여 적는다.

가. 자음동화

국어에는 조음노력경제현상 때문에 자음 두 개가 연이어 날 때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가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자음동화라고 하는데, 표준 발음법 ‘제5장 소리의 동화’에 나타난 자음동화 현상과 그 현상이 로마자 표기법에 적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 1)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백마[백마] Baengma	닫는[단는] danneun
없는[엄는] eomneun	국민[궁민] gungmin

- 2) ‘ㅁ, ㅇ, ㅂ, ㄱ’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담녁] damnyeok	종로[종노] Jongno
십리[심니] simni	각론[강논] gangnon

- 3)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물난리[물랄리] mullalli	줄넘기[줄럼끼] julleomgi

나. 음운첨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특히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소리는 [ㄹ]로 발음하게 되는데 이 또한 로마자 표기법의 반영 대상이다.

숨이불[숨 : 니불] somnibul	막일[망닐] mangnil
한여름[한녀름] hannyeoreum	색연필[생년필] saengnyeonpil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다. 구개음화

받침 ‘ㄷ, ㅌ’는 모음 ‘ㅣ’가 뒤따르게 되면 구개음 ‘ㅈ, ㅊ’로 바뀌는데 이를 구개음화라 하며, 이 또한 로마자 표기에 적용해야 한다.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닫히다[다치다] dachida	말이[마지] maji

라. 거센소리화

‘ㄱ, ㄷ, ㅂ, ㅅ’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현상은 국어에서 매우 흔하다

종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퍼] japyeo	낱지[나치] nachi

* 다만, □□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목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오죽헌 Ojukheon	

* □□□□□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팔당 Palda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 까닭은 된소리되기가 사람마다 다르고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2.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3.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부산 Busan	세종 Sejong
경복궁 Gyeongbokgung	불국사 Bulguksa

4.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또한 성과 이름의 첫째 철자는 대문자로 쓴다.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 않는다.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 □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김: Kim/Gim 이: Lee/Rhee/I 박: Park/Bark/Pak/Bak

* 영어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별개의 것이므로 로마자를 표기할 때 영어 단어에 이끌리지 않아야 한다.

영: young(×) yeong(o) 문: moon(×) mun(o)

선: sun(×) seon(o)

5.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g-dong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 ‘□, □, □’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2008. 2. 29.) 및 시행령(2007. 4. 5.)에 따른 새 주소 체계에서 기존 행정 구역 단위를 대체하는 ‘대로(大路)’, ‘로(路)’, ‘길’은 각각

‘daero’, ‘ro’, ‘gil’로 적고 그 앞에 붙임표(-)를 넣는다.

도산대로 Dosan-daero 감골로 Gamgol-ro
 향가을길 ‘Hyangga-eul-gil’

6.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따라서 ‘Nam-san’, ‘Duman-gang’, ‘Dabo-tap’으로 쓸 수 없고, ‘남산’, ‘덕수궁’, ‘한강’을 ‘Nam Mt.’, ‘Deoksu palace’, ‘Han river’로도 쓸 수 없다. 이는 ‘남산’, ‘덕수궁’, ‘한강’ 전체가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Namsan Mt.’, ‘Hangang river’ 등으로 표기할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동굴’, ‘해수욕장’, ‘국제공항’, ‘대교’, ‘공원’, ‘온천’ 등의 경우에는 앞말이 해당 자연지물의 이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고수 동굴’은 ‘Gosu cave’로, ‘김포 국제공항’은 ‘Gimpo Int’l Airport’, ‘여의도 공원’은 ‘Yeouido park’, ‘온양 온천’은 ‘Onyang spa’ 등으로 쓴다.

7.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삼성 Samsung 대우 Daewoo 동아일보 Dong-A Ilbo
 현대 Hyundai 연세 Yonsei 건국 Konkuk

8.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ㄴ’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집 jib 짚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V. 로마자 표기법의 시행

로마자 표기법의 부칙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3.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은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VI. 맺는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추구하는 바는 쓰인 로마자를 보고 외국인들이 국어를 읽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자와 국어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태생적인 한계는 있다. 따라서 국어의 체계성에 적합하도록 표기법이 정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제정되어 있는 한 이 법 또한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2000),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
 권미영(2008), “로마자 표기법”,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김세중(2000 외) “특수 용도의 로마자 표기법 -전자법(轉字法)-” 등 다수, 새국어소식, 국어어문진흥회.
 김주미(2005), 현대인의 바른 국어생활, 경진문화사.
 대한교과서(주)(2008),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
 이익섭(1997),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정재은(200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정희원(2005), 로마자 표기법 개정 및 보급, 국립국어원.
 한글학회(1989), 한글맞춤법 통일안, 한글학회.

◆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기

1. 태극기:
2. 한글:
3. 무궁화:
4. 집현전:
5. 고구려:
6. 거북선:
7. 비빔밥
8. 김치:
9. 불고기:
10. 태권도:
11. 씨름:
12. 아리랑:
13. 덕수궁:
14. 치악산:
15. 남한산성:
16. 인천 국제공항:
17. 여의도 공원:
18. 온양 온천:
19. 김복남(이름):
20. 대학로:
21. 독립문:
22. 신라:
23. 땀받이:
24. 놓고:
25. 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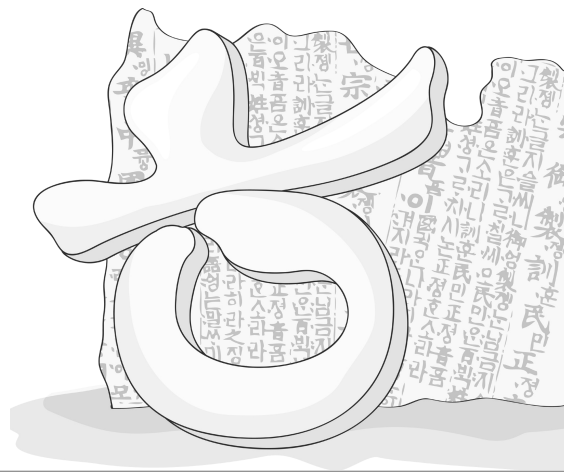
◆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답

1. 태극기: [태극끼] Taeguekgi
2. 한글: [한:글] Hangeul
3. 무궁화: [무궁화] Mugunghwa
4. 집현전: [지편전] Jiphyeonjoen
5. 고구려: [고구려] Goguryeo
6. 거북선: [거북썸] Geobukseon
7. 비빔밥: [비빔뻬] bibimbap
8. 김치: [김치] gimchi(kimch)
9. 불고기: [불고기] bulgogi
10. 태권도: [태뽀도] taegwondo(taekwondo)
11. 씨름: [씨름] ssireum
12. 아리랑: [아리랑] arirang
13. 덕수궁: [덕쑤궁] Deoksugung / Deoksugung palace
14. 치악산: [치악썸] Chiaksan / Mt. Chiaksan
15. 남한산성: [남한산성] Namhansanseong
16. 인천 국제공항: [인천 국제공항] Incheon Int'l Airport
17. 여의도 공원: [여의도/여이도 공원] Yeouido park
18. 온양 온천: [오냥 온천] Onyang spa
19. 김복남(이름): [김봉남] Gim(Kim)I Boknam
20. 대학로: [대:항노] Daehangno
21. 독립문: [동님문] Dongnimmun
22. 신라: [실라] Silla
23. 땀받이: [땀바지] ttambaji
24. 놓고: [노코] noko
25. 충청북도: [충청북포] Chungcheongbuk-do



문장 바로 쓰기 교육의 이해와 실제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의 오류 유형-

방영심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문장 바로 쓰기 교육의 이해와 실제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의 오류 유형¹⁾-

방영심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차례

1. 머리말
2. 분석대상과 오류 빈도
3. 오류의 유형별 실제
 - 3.1. 통사적 층위의 오류
 - 3.2. 의미적 층위의 오류
 - 3.3. 텍스트적 층위의 오류
4. 맺음말

1. 머리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국가나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공공언어가 올바르게 사용될 경우 공공기관이 의도한 의미와 언중이 수용한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사적 언어 상황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공언어’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²⁾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과 같은 기관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공공기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는 보도자료의 언어 또한 공공언어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보도자료란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의 뉴스에서 보도해 줄 것을 기대하며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각 공공기관의 자료를 말한다.³⁾ 그러므로 보도자료는 신문이나 방송의 보

1)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등과 같은 어문규범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공공언어’의 개념에 대해 이인제(2009:30)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회 구성원인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 정책 또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명, 설득, 규제를 목적으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언어’, 남영신(2009:69)에서는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와 민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도 일반인이 듣고 볼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하는 언어’, 조태린(2010:383)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민현식(2010:3)에서는 ‘공공의장에서 해당 업무자가 공공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해 내는 일체의 구어와 문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장소원·양정호, 『국어학 힘이다2, 틀림없이 실리는 보도자료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3쪽에서는 보도자료의 충족 요건으로 ‘누가, 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어떻게’의 다섯 가지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도자료의 작성자는 현대 사회에서 보도자료를 보내는 사람은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일 수도 있으며 특정 단체에 소속된 전문 인력일 수도 있다. 둘째,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이유는 ‘자신이 소유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고 싶을 때’이다. 셋째, 보도자료의 내용에는 ‘널리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라면 안내문일 수 있고 해명 자료일 수도 있으며, 공지 사항일 수도 있다.’ 즉, 정보의 내용은 어떤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넷째, 보도자료

도문과 달리 텍스트 생산자가 각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텍스트의 일차적 수용자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언론 기관의 관계자, 즉 기자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도자료가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직접 노출되는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보도자료의 수용자는 언론 기관의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보도문이라는 2차 텍스트로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일반 독자에게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언어로서의 격식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는 올바른 언어 사용의 전범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는 어문규범뿐만 아니라 문법적·의미적으로 오류가 없는 완전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는 공문서 문장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문제점⁴⁾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장이 길어지면서 문장 성분 간 호흡이 되지 않거나 ‘및’, ‘등’으로 연결하는 구조에서 오류가 양산되고 있다. 또한 중복 표현을 사용하거나 어휘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류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의미를 오해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다음은 2013년 3월 13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의 일부이다.

서울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한다

-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 정보교류 및 ㉡사회활동 장려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에 대해 활동비와 활동장소 등을 지원한다.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은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인 불안과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정보교류 및 심리·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 이번 자조모임 지원은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자조모임도 증가하고 있지 만㉧, ㉨실질적인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자조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따라 마련되었다.
- 현재 서울시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 5만 명(전국의 약 22%)의 결혼이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6년 새, 결혼이민자는 37%, 다문화자녀는 416%나 증가하였다.
- ㉪이에 자조모임 활동지원은 ㉫자조모임의 지속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 자조모임

수용자는 보도자료의 일차적인 배포 대상인 언론기관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기관 홈페이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우편 등 다양한 전달 수단이 개발되면서 보도자료의 수령자가 구체화되고 있다. 다섯째, 보도자료는 우편이나 팩스로 보도 기관에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에는 전자우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한다.

4) 국립국어원(2012)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인 『바른국어생활』에서는 바르지 않은 문장의 유형을 ‘잘못된 호응, 부자연스러운 표현, 바르지 않은 접속 구조, 중의적 표현, 잘못된 피동과 사동, 조사 또는 어미의 잘못된 사용, 수식어의 바르지 않은 위치’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보도자료의 문장 오류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성 장려와 더불어 우수한 자조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리·정서적 안정’은 가운데점을 이용하여 두 요소를 나열한 것인데, ‘심리적·정서적 안정’으로 적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아래 문장에 있는 ‘문화·정서적 차이’ 또한 ‘문화적·정서적 차이’로 수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오류는 위의 보도자료에서 이미 세 번이나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보도자료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오류이다. ‘㉡사회활동 장려를 위해’는 ‘N1+N2을/를 위해’의 구성으로 사용하였지만 ‘N1를 N2하기 위해’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므로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로 수정해주는 것이 좋다. ㉢의 ‘자조모임에 대해…지원한다’는 ‘자조모임에…지원한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은 ‘A와 B에 어려움을 겪다’의 구조인데, ‘B에 어려움을 겪다’는 가능하지만 ‘A에 어려움을 겪다’는 불가능한 구조이다. ㉤은 ‘A 및 B와 더불어 C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의 구조인데 ‘C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는 가능하지만 ‘A 및 B’는 뒤의 서술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은…기여한다’는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잘못된 것으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은…기여할 것이다’라고 해야 자연스러워진다.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은 조사와 접사가 생략되어 어색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와 같이 조사와 접사가 추가되어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있지만㉧,’은 쉼표의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유형이다. 보도자료는 일반적으로 긴 문장이 사용되고 있는데 긴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해 줄 목적으로 쉼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불필요한 곳까지 쉼표를 사용하여 연결성을 해치기도 한다. 위 문장에서 ‘자조모임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조모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부족’이 하나의 의미 연결체이므로 굳이 쉼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아래 문장 ‘최근 6년 새,’에 사용된 쉼표 또한 불필요하다. ㉨은 부사어의 위치가 잘못된 것이다. ‘실질적인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자조모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였다는 의미이므로 부사어의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는 ‘거주하고 있는데’가 더 자연스럽다. ㉪의 ‘이에’는 ‘이러하여서 곧’이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그러므로 ‘…증가하였다. 이에 자조모임 활동지원은…」과 같이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조모임의’는 ‘기존의’와 같은 수식어의 보충이 필요하다.

이처럼 한 텍스트의 일부만 보더라도 다양한 오류가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오류는 통사적인 오류이지만 표현상의 오류, 문단 연결과 같은 텍스트상의 오류도 발견된다. 따라서 보도자료의 오류를 통사상의 오류, 의미상의 오류, 텍스트상의 오류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 대상과 오류 빈도

보도자료의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텍스트는 서울시청의 보도자료, 경찰청의 보도자료이다. 2012년 2월과 2013년 3월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울시청 보도자료 20건, 2012년 9월, 2012년 10월의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20건의 경찰청 보도자료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이 중 2013년 3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통사적·의미적·텍스트적 오류의 빈도를 분석하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통사적 오류	문장 성분 간 호응의 문제	12건	59건
	어미 사용의 문제	12건	
	대등적 연결의 문제	9건	
	조사 사용의 문제	6건	
	문장 성분 누락	6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문제	6건	
	사동 표현의 문제	4건	
	부적절한 어순의 문제	4건	
의미적 오류	잉여적 표현의 문제	3건	6건
	부적합한 표현의 문제	3건	
텍스트적 오류	부적합한 쉼표 사용의 문제	10건	23건
	부자연스러운 문단 연결	5건	
	구어적 표현 사용	5건	
	사건 배열의 순서	3건	

지금까지 공문서의 오류에 대한 접근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와 같은 어문규범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문장 성분 간 호응이나 피동·사동과 같은 통사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장과 문장의 연결, 또는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하나의 텍스트는 문장이 나열된다고 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장과 문장이, 문단과 문단이 연결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문서 작성에 대한 지도가 문장 차원을 넘어서서 텍스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오류의 유형별 실제

3.1. 통사적 층위의 오류

통사적 오류 유형으로는 ‘문장 성분 간 호응의 문제’, ‘어미 사용의 문제’, ‘대등적 연결의 문제’, ‘조사 사용의 문제’, ‘문장 성분의 누락’, ‘수식어와 피수식어 간 문제’, ‘사동 표현의 문제’ 등이 조사되었다.

문장 성분 간 호응의 오류 문제는 12건으로, 통사적 오류 중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그중에서도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은 유형이 가장 많은데, 이는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문장을 길게 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1) ㄱ. ‘한강숲 가꾸미’ 신청 접수는 2. 13.(월)~2. 24.(금)까지 참여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12년 2월 서울시청 보도자료)

- ㄴ.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식전 프로그램으로는 아동 지문 사전등록 시스템 등 실종 아동찾기 ㉠프로그램이 시연되었고 소설가 이와수씨와 가수 인순이, 개그맨 ‘용감한 녀석들’팀 등의 축하 메시지가 ㉡영상으로 전해졌으며 전국에서 선발된 모범경찰관(18명)과 순직유가족(6)명이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즐거운 ㉢담화를 나누었다. (2012년 10월 경찰청 보도자료)

(1ㄱ)의 ‘접수’는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음’이라는 의미이므로 ‘신청 접수는…제출하면 된다’는 적절하지 않다. 관공서의 보도자료에서는 특히 (1ㄱ)과 같은 오류 문장들이 빈번하게 보이고 있는데 문장을 되도록 짧게 쓰면서 오류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하고 문장이 길어질 때에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여 주어와 호응하는지 목적어와 호응하는지 부사어와 호응하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1ㄴ)은 ‘식전프로그램으로는…프로그램이 시연되었고…메시지가 영상으로 전해졌으며…담화를 나누었다’로 연결된다. 경찰청의 이날 행사에서 ㉠, ㉡, ㉢은 모두 식전 행사로 치러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식전프로그램으로는’이 ㉠, ㉡, ㉢과 모두 호응해야 한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시연되었고’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식전프로그램으로는…메시지가 영상으로 전해졌으며…식전프로그램으로는 담화를 나누었다’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가 여러 개 연결될 때에도 모든 서술어와 주어가 호응하는지 점검하면서 문장을 쓰도록 지도해야 한다.

문장 성분 간 호응의 오류는 (2)와 같이 서술어와 부사어가 호응하지 않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 (2) ㄱ. 서울시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금을 지원한다. (2013년 3월 서울시청 보도자료)

- ㄴ. 이밖에도 불시에 공사현장을 방문하거나, 600여개의 모든 공사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2013년 3월 서울시청 보도자료)

(2ㄱ)의 ‘지원하다’는 ‘N을 지원하다’ 또는 ‘N1에 N2를 지원하다’의 구조를 지니므로 ‘동아리를 대상으로 활동 지원금을 지원한다’가 아니라 ‘동아리에 활동자금을 지원하다’⁵⁾로 수정해야 한다. (2ㄴ) 또한 ‘소장을 대상으로 발송하다’가 아니라 ‘소장에게 발송하다’로 수정해야 한다.

어미 사용의 문제에서는 부적합한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동일한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문장이 어색해지는 유형이 발견되었다.

- (3) ㄱ.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최근 다산콜센터(120)로 한강 수상에 오염물질로 보이는 쓰레기·거품 등이 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날씨가 풀리면서 한강 얼음이 녹는 자연스러운 해빙현상이다”라고 밝혔다. (2012년 2월 서울시청 보도자료)

- ㄴ. 자조모임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되며, 상반기 자조모임 지원은 이미 각 자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천을 받았으며… (2012년 2월 서울시청 보도자료)

5) ‘지원금을 지원하다’는 의미가 잉여적이다. 그러므로 ‘활동자금을 지원하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 ㄷ. 한편, 시에서는 시민들이 한강교량을 지나며 무심코 한강으로 던지는 담배꽂초와 쓰레기가 한강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2~3월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무심코 던진 담뱃불이 강변의 마른풀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12년 2월 서울시청 보도자료)

(3ㄱ)은 “서울시는 A으며 B이다라고 밝혔다.”와 같이 ‘-으며’로 서울시가 밝힌 두 가지 사안을 연결하고 있다. ‘-으며’는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따위를 나열할 때(예: 읽으며 쓰며) 사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따위가 동시에 겹하여 있음(예: 밥을 먹으며 신문을 보았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그런데 (3ㄱ)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과 ‘자연스러운 해빙 현상임’은 단순히 나열되는 것이거나 동시에 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원이 접수되는 일’이 있으나 ‘자연스러운 해빙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시의 보도자료라고 보아야 적절해진다. 연결어미는 앞뒤 문맥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는 나열에 사용되는 연결어미 ‘-고’나 ‘-으며’ 등과 같은 특정 연결어미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3ㄴ), (3ㄷ)도 ‘-으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3ㄴ)은 ‘자조모임은…실시되는데…추천을 받았으며’로, (3ㄷ)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있으므로’와 같이 수정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보도자료는 ‘및’, ‘등’, ‘와/과’를 이용하여 문장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표현이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게도 사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 (4) ㄱ. 실종아동등·가출청소년 발견 및 성폭력 범죄 등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 구제 및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2012년 9월 경찰청 보도자료)

ㄴ. 명예훼손 등 특별 신고기간 운영 (2012년 10월 경찰청 보도자료)

- ㄷ.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2013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나눔, 기부 등 희망서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 시민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서울시청 보도자료)

(4ㄱ)은 ‘및’과 ‘등’이 한 문장 안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어 문장의 전체 의미를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다. 보도자료에서 ‘및’이나 ‘등’을 사용하는 것은 텍스트를 간결하게 쓰고자 하는 생산자의 의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나 ‘및’과 ‘등’을 남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장 성분 간의 공유 관계가 부적절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4ㄴ)은 ‘[A1, A2, A3…] 등의 [B]’ 구문에서 A와 B의 문법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명예훼손 등을 신고하는 특별 기간 운영’ 또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 운영’으로 수정해야 한다. (4ㄷ)에서도 ‘와/과’, ‘등’을 한 문장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나눔, 기부 등을 통한 희망서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의 시민을 대상으로’로 수정해야 자연스럽다.

‘로써’와 ‘로써’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은 잘못 사용함으로써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5) ㄱ.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돌봄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학교가치 않는 토요일에도 행복한 주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3년 서울시청 보도자료)

ㄴ. 범죄예방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써,… (2013년 3월 서울시청 보도자료)

(6) 상담원들이 상담 과정에서 겪었던 재미있거나 황당했던 사연, 감동 사연,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일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2012년 2월 서울시청 보도자료)

(5ㄱ)은 ‘제공함으로써’, (5ㄴ)은 ‘말하는 것으로서’로 수정해야 한다. (6)은 앞에서 나온 ‘상담원’이 다시 반복되는 구조인데 주격조사 ‘이/가’를 사용하여 어색한 문장을 만든 경우이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화제 제시]와 [상세화]의 기능을 지니고 있을 때, 두 번째 문장에서 언급되는 화제는 이미 구정보이므로 보조사 ‘은/는’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⁶⁾

이 외에도 문장 성분이 누락된 경우, 수식이 잘못된 경우, 사동 표현이 잘못된 경우가 있었다.

(7) ㄱ. 예를 들어 구로구 고부자조모임은 시어머니와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이 함께 월 1회 모임을 가지면서 시어머니에게 베트남어도 알려주고, (2013년 3월 서울시청 보도자료)

(8) ㄱ. 학교와 청소년시설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존 동아리가 아닌 서울시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주말에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을 통해 동아리활동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2013년 3월 서울시청 보도자료)

ㄴ. 서울대공원(원장 이원효)은…다양한 계층의 체험학습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질 높은 현장 체험교육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전문 교육 강사로 활동할 동물해설사를 모집한다. (2012년 2월 서울시청 보도자료)

(9)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되살리고 도시농업도 활성화시키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0) 현장 스크린을 보고 즉석으로 모인 시민들이 따라하는 형식이다. (2012년 2월 서울시청 보도자료)

(7)은 서술어 ‘알려주다’의 주체가 누락된⁷⁾ 경우이다. 문장의 성분들은 언어적 또는 언어

6) 남윤진(2005)에서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조사한 결과 ‘은/는’ 이 출현한 문장 중에서, 주격을 써야 할 자리에 보조사 ‘은/는’ 이 쓰인 경우가 88.56%임을 밝힌 바 있다.(임동훈 2012: 221 재인용)

7)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이러한 유형은 ‘지나친 생략’ 또는 ‘생략의 오류’ 와 같이 문장 성분의 지나친

외적 맥락에서 공유된 정보이거나, 이미 제시된 정보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7)에서 ‘알려주다’의 주체인 ‘며느리’는 앞에서 제시된 적이 없으며 공유된 정보도 아니므로 반드시 밝혀 주어야 한다. (8)은 부사형을 써야 할 자리에 관형사형을 쓴 경우이다. (8ㄱ)은 ‘기존 동아리가 아니다’가 뒤에 오는 ‘서울시 초·중·고등학생들’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초·중·고등학생들이…운영하고 있는’을 수식하므로 ‘아닌’이 아니라 ‘아니라’로 적어야 한다. (8ㄴ)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로 수정해야 한다. (9)는 사동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활성화하고자’로 수정해야 한다. (10)은 부사어의 어순이 잘못된 것이다. 내용상 ‘즉석으로’는 ‘따라하다’를 수식하므로 ‘따라하다’의 앞에 두어야 한다.

3.2. 의미적 층위의 오류

의미적 오류에는 어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의미상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오류, 잉여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오류가 있었다. 그러나 통사상의 오류나 텍스트상의 오류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9) ㄱ. 또, 박원순 시장을 가까이에서 봐온 아주 특별한 인맥들이 스튜디오를 깜짝 방문하는 시간을 갖는다.

ㄴ. 스튜디오에서 박원순 시장이 건강체조를 추면 (2012년 2월 서울시청 보도자료)

(9ㄱ)에서 ‘인맥’은 ‘정계, 재계, 학계 따위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유대 관계’라는 의미이므로 ‘박원순 시장을 봐온 인맥들이 방문하다’는 어색한 표현이 된다. (9ㄴ)은 ‘체조를 추다’가 아니라 ‘체조를 하다’로 수정해야 한다.

3.3. 텍스트적 층위의 오류

텍스트적 오류에서는 쉽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문제⁸⁾, 문단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문제, 구어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격식성이 떨어지는 문제, 사건의 순서를 잘못 배열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보도자료에서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아래 (11)과 같이 문단과 문단 사이에 특정 표현을 사용하여 연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두 문단 간의 긴밀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많다.

(11) ㄱ. 한편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은…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ㄴ. 이처럼 앞으로 120의 트위터 · 미투데이를 활용하는 시민들은 콜센터를 이용할 때…

생략에서 오는 오류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들은 텍스트 생산자가 ‘맥락 안에서 적정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이 미비하여 필요한 성분을 누락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본다.

8) 쉽표 사용의 문제는 이 장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머리말의 설명 참고.

(11ㄱ)에서 사용된 ‘한편’은 어떤 일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측면과 다른 측면을 말할 때 사용하는 명사이다. 그런데 (11ㄱ) 앞에서는 ‘동물해설사를 모집함-동물해설사 지원 안내-교육과정 안내’ 등의 정보가 순차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 이어서 (11ㄱ)은 서울대공원장이 동물해설사 운영을 통해 서울대공원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한 말을 잇고 있다. 즉, (11ㄱ)에서 앞에서 말한 측면과 다른 측면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1ㄴ)에 쓰인 ‘이처럼’도 맥락에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은 ‘앞에서 제시한 정보와 같이 뒤의 정보도 같거나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11ㄴ)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11)에 제시한 예 외에도 여러 곳에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문단과 문단 사이에 관습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경우에는 삭제해야 하고 부적절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보도자료에서는 구어적인 표현이 쓰이는 것도 발견된다.

(12) ㄱ. 포구 염리동 시범사업의 경우엔

ㄴ.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으로 가보길 권한다.

ㄷ.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보도자료는 격식적인 텍스트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어체에서 사용하는 줄임말을 사용하거나 구어체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비격식적으로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 텍스트적 층위의 오류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해볼 문제는 사건 배열의 순서이다.

(13) ㄱ. ㉠대부분 해외배송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배송기간을 연장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품질 등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 등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에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ㄴ. 시가 정비하는 가로등의 경우엔 경광기능이 있는 ㉢비상벨을 설치해 주민들이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13ㄱ)에서 ‘㉠배송기간을 연장한 후 잠적함’과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올려 소비자를 유인함’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선후 관계로 보았을 때 ㉡이 ㉠보다 앞선 사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품질 등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 등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에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후 해외배송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배송기간을 연장하다가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했다.’와 같이 순차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13ㄴ)도 마찬가지이다. ‘경광기능’이 있는 비상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만들어 가로등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13ㄴ)에서 현재 제시하는 순서는 자연스럽지 않다. ‘시가 정비하는 가로등에는 경광 기능이 있어서 주민들이 보행 중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비상벨을 설치하고’로 수정해야 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보도자료에서 보이는 오류 유형을 통사적 차원, 의미적 차원, 텍스

트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는 일반인들에게 아주 가깝게 와 있는 공문서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어문규범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문장과 텍스트 구조에서도 오류가 없어야 한다. 어문규범이나 문장 차원에서의 오류 교정뿐만 아니라 텍스트 층위에서의 오류도 파악하여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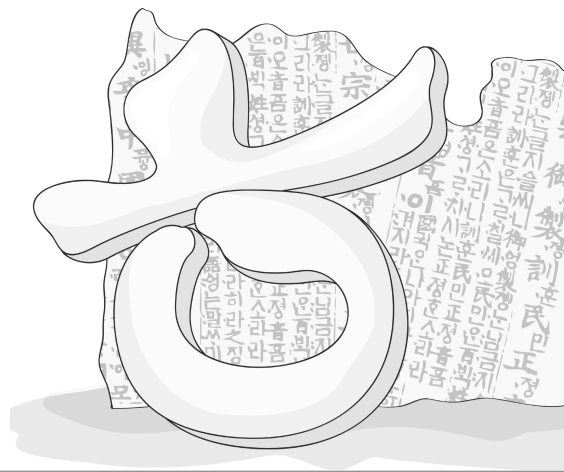
〈참고 문헌〉

- 고성환(1010), 「법조문의 텍스트 분석」, 『텍스트언어학』 29, 텍스트언어학회, 25~50.
 국립국어원(2012), 바른국어생활, 국립국어원.
 김광해(2000), 「우리나라 판결문의 텍스트성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8, 텍스트언어학회, 272~297.
 유혜령·정희모(2012), 「대학생 글쓰기 텍스트에서 어색한 문장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화』 제4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28.
 이성만(2012), 『미디어 언어의 텍스트화용론』, 도서출판경진.
 임동훈(2002), 「현행 문장부호의 미비점과 대안」, 『새국어생활』 12-4, 국립국어연구원, 69~82.
 임동훈(2012), 「은/는과 의미의 종횡 관계」, 『國語學』 제64집, 국어학회, 217~272.
 장소원·양정호(2004), 「보도자료 텍스트의 특성 연구」, 『텍스트언어학』 17, 텍스트언어학회, 281~308.
 장소원·양정호(2005), 『국어가 힘이다2, 틀림없이 실리는 보도자료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Beaugrande, R.A. & Dressler, W.(1982), 『담화·텍스트언어학 입문(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김태옥·이현호(역)(1991), 양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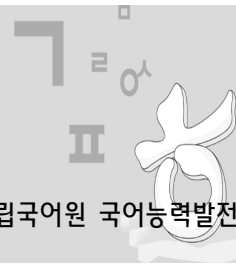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 교육 자료 공유

하영우 | 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 교육 자료 공유

하영우 | 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1. 들어가며

국립국어원 문화학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말 교실의 교육 내용은 이미 『청소년을 위한 바른 국어 생활』(국립국어원 2012)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강의에서는 청소년이라는 대상 특수성으로 인해 『청소년을 위한 바른 국어 생활』의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때때로 부가 자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바른 국어 생활』을 재구성한 강의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 교육을 처음 강의하는 교수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강의 시 사용되는 부가 자료 제시를 통해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청소년을 위한 바른 국어 생활』은 어문 규정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일단 어문 규정과 관련된 ‘올바른 우리말 우리글’과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과 관련된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에 한정하여 강의 구성 샘플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올바른 우리말 우리글’ 강의 구성

2.1. ‘올바른 우리말 우리글’ 강의의 목적

어문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올바른 우리말 우리글’은 교수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세부 주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이번 발표에서 제시하는 강의안은 몇몇 예시를 통한 어문 규정의 개략적 이해와 웹 방식을 통해 접근 가능한 어문 규정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은 강의 집중도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주로 대형 강의 형식이기에 어문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 강의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로 분류되는 현재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접속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어문 규정 관련 웹서비스에 대한 소개는 강의에 대한 친숙성을 높일 수 있다.

2.2. ‘올바른 우리말 우리글’ 강의 구성안

1) 도입

강사 활동	학생 활동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 소속 기관 등을 소개한 후 이번 강의의 주요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의 설명을 듣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르다 - 틀리다’의 용법 구분 같은 간단한 예시를 일화로 구성하여 제시한다. 이후 학생들과 함께 잘못된 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가 제시한 일화에서 잘못된 용법을 찾아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법 구분이나 틀린 부분 맞추기는 모둠 활동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문 규정과 관련된 사례들을 몇 가지 더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사례는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에서 각각 하나씩만을 제시한다. 이후 바르게 쓰는 것이 쉽지 않음을 설명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어문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기관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문 규정과 관련된 사례들을 맞춰 본다. 강사의 설명을 듣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집중도가 낮을 경우 이 과정은 생략한다.

2) 국립국어원과 어문 규정에 대한 소개

강사 활동	학생 활동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에게 국립국어원에 대해 물어본다.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한 후 국립국어원의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국어원에 대해 아는 내용에 대해 답한다. 강사의 설명을 듣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국어원의 역할 설명 중 어문 규정에 대한 소개를 1)과 연계하여 어문 규정의 전체 구조(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때 어문 규정의 각 항목에 대해서 한두 개의 간단한 예시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되 예시는 1)에서 제시한 것을 사용한다. 또한 어문 규정에 대한 설명 시간은 5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궁금한 내용을 질문한다. 강사가 제시하는 간단한 문제를 맞춰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집중도가 낮거나 대형 강의일 경우 예시와 설명을 최소화한다. 본 강의안에서는 표준어 규정 항목은 강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인터넷을 이용한 어문 규정 이해하기

강사 활동	학생 활동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문 규정에 대한 설명 이후 국립국어원 웹 서비스를 통해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궁금한 내용을 물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항목의 제시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p>〈표준국어대사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나 맞춤법 오류가 빈번한 예를 제시한 후 학생들에게 맞히게 한다. 이후 단어의 의미를 모르거나 맞춤법이 헷갈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학생들에게 묻는다. • 잘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이야기하면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언급한다. 이후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표준국어대사전 사용법을 설명한다. • 사전 사용법은 4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p>① 표준국어대사전 접속 방법 : ‘인터넷 접속 →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 홈페이지 접속 → 단어 검색 및 결과값’의 과정을 보여준다.</p> <p>② 단어 검색의 예 : ‘진도개 vs. 진돗개’와 같은 예를 제시하며 틀린 단어는 일반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음을 알려준다.</p> <p>③ 자주 틀리는 단어 표시 : ‘웬지 vs. 댜지’의 검색 결과를 통해 자주 틀리는 단어는 ‘→’ 표시로 올바른 단어를 표시해 주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준다.</p> <p>④ 복수 표준어 : ‘짜장면 vs. 자장면’의 검색 결과를 통해 ‘=’는 복수 표준어 표시임을 알려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는 두 모둠으로 나누어 1~2명의 대표자를 선출한 후 사전 빨리 검색하기를 실시한다. 강사는 대표자가 ‘인터넷 접속 →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접속 → 단어 검색 → 단어 검색 결과 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으로 측정한다. • 이상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전 찾기의 유용성과 방법론을 알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궁금한 내용을 질문한다. • 모둠 활동에 참여한다. 	
<p>〈국립국어원 트위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에 대한 사용 여부 등을 학생들에게 묻는다. • 이후 국어 생활과 관련된 소식은 물론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궁금한 내용을 물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트위터와 가나다 전화 항목은 함께 묶어서 설

<p>어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국립국어원 트위터가 있음을 소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뵙다, 되다’의 활용형 등을 제시하며 사전에서 알기 어려운 유형은 국립국어원 트위터를 이용해 편하게 알 수 있음을 설명한다. • 국립국어원 트위터에 접속하여 실제 이용자의 사용 예를 보여준다. • 실제 트위터에 접속하여 국어와 관련된 질문을 해 보기를 권유한다. 		<p>명하는 것이 좋다.</p>
<p>〈가나다 전화, 온라인 가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외에도 전화를 이용해 국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후 가나다 전화에 대해 설명한다. • 가나다 전화의 전화번호, 이용 시간, 이용 방법, 이용 예절에 대해 설명한다. 전화번호를 소개할 때는 ‘국어친구’라는 의미를 가진 9979라는 것을 알려 준다. • 가나다 전화 외에 인터넷을 이용한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도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사용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궁금한 내용을 물어본다. 	
<p>〈우리말 다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외래어나 외국어 남용의 예(상가 간판 등)를 제시하면서 외래어 남용의 문제점 등을 설명한다. • 외래어를 자국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외국의 예를 먼저 제시한다(ex. 중국). 이후 우리말 다듬기의 예를 퀴즈 형식으로 제시한다(ex. 시스루-비침옷, 팜 파탈-매력악녀 등). • 우리말 다듬기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음을 설명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한다. • 우리말 다듬기 참여를 독려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궁금한 내용을 물어본다. 	
<p>〈디지털 한글 박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한글박물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 대상이 초등학생일 경우 한글박물관 내에 있는 우리말 게임(한글 수비대, 한글 퀴즈, 바쁘다 바빠)에 대해 소개한다. 이후 모둠을 나누어 ‘바쁘다 바빠’ 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의 물음에 대답하며 설명을 듣는다. • 한글 게임에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은 적당한 시간을 정해 두고 해야 함을 언급한다.

4) 마무리

강사 활동	학생 활동	비고
• 바르게 쓰고 말하기의 중요성과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어문 규정 관련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한다.	• 강사의 설명을 듣는다.	

3.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 강의 구성

3.1.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 강의의 목적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은 청소년들에게 비속어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시켜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정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강의안은 교수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단 본고에서는 ‘비속어 사용 실태와 비속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교안을 구성하였다. 실태에 대한 지각과 비속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비속어 사용 개선의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언어 사용 습관 정착을 위한 방법론을 비롯한 여러 내용에 대한 강의안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3.2.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 강의 구성안¹⁾

1) 도입

강사 활동	학생 활동	비고
• 강사, 소속 기관 등을 소개한 후 이번 강의의 주요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 강사의 설명을 듣는다.	
• 3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현재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실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① 하루 한 번 이상 욕을 하는 청소년: 94.6% ② 욕을 처음 시작한 시기: 5학년 ③ 욕을 배우게 된 경로: 친구	• 제시된 문제를 맞춰 보면서 강사의 설명을 듣는다.	

2) 청소년 언어 실태 조사

강사 활동	학생 활동	비고
• 청소년 언어 실태 조사 결과를 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 강사의 설명을 듣는다.	

1)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 강의안에서 참고한 연구 자료 목록은 아래와 같다.

국립국어원(2005).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 고등학교 2학년 서울, 대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장경희 외(2010).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2012).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연속 토론회 1, 2, 3 발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비속어 사용 비율을 제시하면서 비속어 사용 비율을 같지만 사용 빈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 이후 녹음 자료에서 나타난 비속어 사용 비율,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되는 비속어 비율을 차례로 제시하며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이 필요함을 어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은 과도기적 산물이라는 내용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다. •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이 과도기적 산물이 아니라고 일단 전제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의 설명을 듣는다. • 욕설 사용이 과도기적 산물인지 현재 개선해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 생각한 후 답한다. 	

3) 왜 청소년 언어개선이 필요한가?

강사 활동	학생 활동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실태를 과도기적 산물로 보기 힘든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①비속어 사용 빈도의 급격한 증가 :과도기적 산물로 보기에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너무 높다. ②비속어 사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청소년들 스스로가 비속어 사용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설문 조사 결과). ③비속어 사용 통제력 :비속어 사용에 대한 통제력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이는 교사와의 대화 상황에서 욕설 사용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한다. 	

4) 왜 비속어를 사용하는가?

강사 활동	학생 활동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아래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①배출과 정화 기능(분노, 짜증, 억울) ②협박과 두려움의 표시 ③친밀감과 자기 확인 ④습관 • 이 중 ‘습관’에 집중하여 청소년들이 욕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와 학년별 습관적 욕설 사용 비율을 제시한다. 그리고 습관화된 비속어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한다. 	

5) 비속어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

강사 활동	학생 활동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동영상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비속어 사용을 자제해야 함을 인지시킨다. • 하지만 실제로 비속어 사용 자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학생과 문답 형식을 통해 서로 이야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한다. 	

6) 비속어 사용 자제가 잘 안 되는 이유

강사 활동	학생 활동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속어 자제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①청소년기 두뇌 발달과 통제력 :생물학적 발달 과정을 보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제어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본능적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 ②질풍노도의 시기와 또래집단 :청소년은 신체/심리적 변화와 함께 학업/진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또래집단 내에서 안정을 찾는 청소년들의 특성상 또래 집단에서 유행하는 것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③비속어의 언어적 특성 :보통 비속어는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사용 맥락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ex. 시발, 졸라). 즉 사용하기 쉬운 언어적 기제를 갖고 있다. • 3가지 이유를 종합하면서 비속어 사용이 습관화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습관화된 비속어 사용을 자제해야 함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다큐프라임의 ‘욕해도 될까요?’ 참고

7) 마무리

강사 활동	학생 활동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는 시간이었음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비속어 사용을 자제를 당부하며 강의를 마무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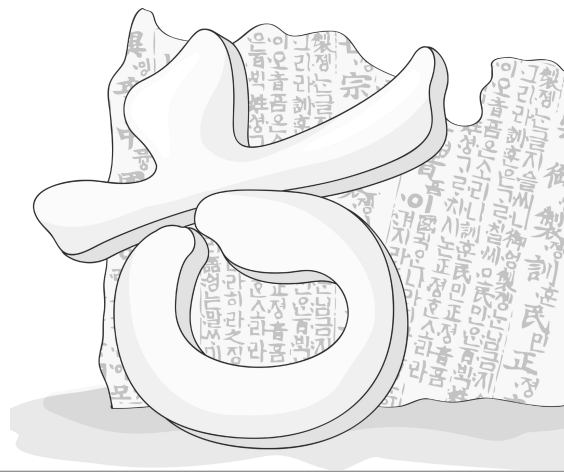
4. 나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실은 대상 특수성으로 인해 내용을 적절히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처음 강의를 하는 교수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을 위한 바른 국어 생활』과 국립국어원의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두 주제를 대상으로 약식 강의안을 제시해 보았다. 발표문에서 제시한 강의안의 구성이나 내용상의 문제점은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와 교재 개발 사업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육 자료 공유

전영곤 |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육 자료 공유

전영곤 |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0. 들어가며

필자는 지난 2012년 12월 용평리조트에서 열렸던 국어문화학교 강사연수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 올해 2013년부터 국어문화학교 강사로 활동을 시작하여 지난 5월까지 총 여섯 차례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 다섯 번은 군 장병이 대상이었고 나머지 한 번은 지역아동센터 내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강연을 한 곳은 대구에 있는 공군군수사령부 본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강연이 계기가 되어 다른 부대에서도 강연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공군 제3방공포병여단)과 진해(해군교육사령부)까지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신청한 기관에 인접한 한국어문화원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 보통이라면 저는 참 멀리까지도 갈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인연이 중요하다고 하나 봅니다. 그 인연이 이어져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국어문화학교 강의를 했던 경험을 여기에 소개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군대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일반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군대를 이미 다녀온 예비역을 통해 일반에서도 군대의 여러 속사정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방송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군대의 소식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모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이 실제 병사들의 군생활을 체험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케이블 방송사에서는 군대 내의 여러 일화들을 다룬 개그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큰 인기를 누린 바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의 이야기는 세간의 관심거리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 화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심심찮게 보도되는 군 관련 각종 사건사고 소식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나 군대 내의 진짜 속사정은 여전히 가려진 곳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기에서 다루게 될 ‘군대 언어’ 문제입니다.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은어와 비속어가 군대 내에서 여전히 상용되고 있고 특히 방송에서 심심찮게 보도되는 군대 폭언 및 욕설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12년 12월에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군대 내 잘못된 언어를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자가 강의했던 다섯 차례 특강의 주제는 모두 ‘군대 내 올바른 언어 사용’이었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정한 데에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목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필자 스스로 군복무 중 ‘말’과 관련해 경험하고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연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경험한 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강의 준비

앞서 언급했듯이 강연 주제는 ‘군대 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에는 우리말을 어법에 맞게 사용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급하고 속된 표현은 되도록 쓰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욕설이나 폭언과 같은 폭력적인 언어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분해서 강의 내용을 구상했습니다.

목차를 구성하면서 몇 개의 소주제를 정하고 여기에 맞는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 식으로 강연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군대 내 언어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 점은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의 구성

강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제목은 각각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로 붙였습니다. 다소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뒤의 ‘놈’을 ‘말’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케이비에스(KBS) ‘남자의 자격’에 출연했던 어느 외과 의사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따라한 것입니다. 당시 그 외과 의사는 출연자들을 병원 회의실에 앉혀 놓고 ‘간 건강’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좋은 간, 나쁜 간, 이상한 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특강에서 주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목으로 이만한 것도 없겠다 싶어 저도 따라한 것입니다. 실제 강연 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타나니 청중들이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림 114. 좋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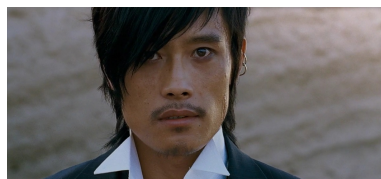


그림 115. 나쁜 말



그림 116. 이상한 말

영화 제목대로라면 ‘좋은’, ‘나쁜’, ‘이상한’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강의의 목적에 맞춰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이상한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나쁜 말’, ‘좋은 말’의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각각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한 말

‘이상한 말’은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즉, 비속어나 은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군대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들 가운데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쓰이지 않고 군대 내에서만 통용되다 보니 갓 입대한 병사들이나 간부들은 이 말들을 알아듣지 못해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합니다.

(1) 아저씨(전우님), 땅개(소총수), 말년(전역임박한 병장), 왕고(최선임), 짬(군 경력)

이러한 말들을 각각 일본어식 외래어(일본어), 은어, 축약된 용어, 신조어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일본어식 표현을 보면 현재 우리 군 장병들은 아래와 같이 일본어식 외래어 및 일본어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일본어식 외래어: 작일(어제), 명일(내일), 금일(오늘), 불출(내어 줌), 반도(밴드, 띠)

(3) 일본어: 나라시(고르게 함), 가라(가짜, 헛), 분빠이(분배)

이런 말들은 일제 식민지 시기의 영향이 아직도 군대 내에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로 우리말에서 이러한 일제의 잔재를 몰아내고자 국어학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여전히 이런 말들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일상에서 일본어식 외래어나 일본어의 영향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벤토’나 ‘니꾸사꾸’ 대신 ‘도시락’, ‘배낭’ 또는 ‘가방’이란 말을 더 친숙하게 여기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마네기’(양파), ‘와라바시’(젓가락), ‘쓰봉’(양복바지)과 같은 단어는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서나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건설 현장, 미용 업계 등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본어식 외래어나 일본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미용 업계 등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해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 데 비해 군대는 이 말의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사람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매년 수많은 청년들이 군에 입대해 군복무를 수행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군복무의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만약 군대 내에 이러한 일본어식 외래어나 일본어가 이대로 계속 사용된다면 이러한 청년들이 그 영향을 받을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군대에서는 한정된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매일 대부분의 대화를 늘 같은 사람들끼리 나누다보면 특정 단어나 표현이 고정되어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표현 형식을 분명하게 하고 의미전달을 신속하게 만든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 번 굳어진 말은 고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이와 같은 일본어식 외래어나 일본어를 우리말로 고쳐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은어의 문제입니다. 사회만큼이나 군대 내에도 많은 은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몇 개의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4) 군바리(군인), 화이바(방탄헬멧), 깔깔이(방상내피), 더블백(의류대)

군대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별로 육군과 해군, 공군이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여러 병과로 나누어집니다. 은어는 특정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은어의 사용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체감과 함께 소속감을 심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 점이 오히려 배타적으로 작용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한 예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여러 은어들을 어른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점이 그러합니다. 국방부에서도 이 점을 우려하여 군대 내의 은어 역시 개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이 각자 각기 다른 은어를 사용할 경우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인원과 장비가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은어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면 이는 장차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축약된 용어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축약된 용어는 단어의 음절수를 줄였다는 점에서 발음과 의사 전달에 경제적이기는 하지만 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은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유사합니다. 아래에 몇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5) 작부(작전부사단장), 넷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축약형 용어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 외에도 그 발음이 명확하지 않거나 표현이 점잖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축약을 통해 발음의 경제성만 강조하다보니 본래 길이의 단어가 가지고 있던 어감이 훼손되기도 하고 말의 위엄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이런 말을 하는 군 장병의 품위를 손상시켜 대외적으로 군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축약형 용어는 신세대 장병들이 군 내로 유입시키는 신조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금지하는 축약형 용어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예들도 있어 주목됩니다.

(6) 열폭(열등감 폭발), 먹튀(책임회피), 엽사(엽기사진)

(6)에 제시된 예들은 축약형 용어이기도 하면서 신조어에 해당하는 예이기도 합니다. ‘열폭’, ‘먹튀’, ‘엽사’와 같이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던 축약형 용어들이 군대로 유입된 경로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정됩니다. 첫째는 입대한 군 장병들을 통해서입니다. 입대 전 사회에서 흔히 쓰던 말들을 습관적으로 군 안에서도 계속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방송,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에서 쓰이던 말들이 군 내부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되었든 군대 언어도 사회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기에 제시된 축약형 표현은 현재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계층은 단어나 구 또는 문장 단위의 음절수를 줄여서 말하는데 익숙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축약형 표현 외에도 그 기원을 추적하기 어려운 신조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7) 행쇼(행복하십시오), 버카(버스카드), 갈비(갈수록 비호감), 레알(진짜), 무플(맷글 없음), 감놀(깜짝 놀람)

이런 단어들이 방송 매체나 젊은 장병들을 통해 군으로 유입되면서 군대 내에도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장병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말

‘나쁜 말’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즉 욕설이나 난폭하게 하는 말인 ‘폭언’,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는 말인 ‘막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언어 실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나쁜 말’입니다. ‘이상한 말’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수준이라면 이 ‘나쁜 말’은 의사소통 자체를 단절하거나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김옥이 의원이 2010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 군 자살사고의 원인 중 언어폭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19%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보다 더 큰 문제는 장병들이 이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군대에서는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식이 선임병이나 상급자에게는 명분이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2년 7월 평소 후임병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던 선임병이 제대 후 후임병에게 고소당해 유죄 판결(벌금 60만원)을 받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불복해 선임병은 항소했습니다. 민간 법원이 군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스비에스(SBS) 뉴스를 통해 보도된 양측 입장의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선임병을 비롯한 그 아버지는 군은 사회와 다르다는 인식을 가진 반면 피해를 입은 후임병의 부모님은 선임병의 행동이 명백한 폭행이었고 이 때문에 자식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배포한 올바른 언어 사용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듣기 싫은 말’로 예시했습니다.

(8) 듣기 싫은 말

- ① 상급자로부터: 할 줄 아는 게 뭐야?, 어리버리 해! 지금 뭐하냐!, 짬밥을 거꾸로 먹냐?, 너는 왜 그리 멍청하냐?, 영창가고 싶냐?, 휴가 잘라야겠군. 군장 싸라!, 억을 하면 군대 빨리 오지!, 빠져 가지고!
- ② 하급자로부터: 왜 그러십니까?, 뭐 말입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전 잘못 없습니다!,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에 예시한 듣기 싫은 말은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는 협박이나 위협을 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에게 존중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자신이 선임병 또는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마구 대할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폭언이나 욕설은 듣는 이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복무부적응이나 정신질환, 우울증, 복무이탈, 심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필자가 군복무 중이던 2006년 발생했던 GP총기난사사건¹⁾(일명 ‘김이병 사건’)도 그 발단은

1) 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중면에 있는 제28보병사단 81연대 수색중대 1소대 GP(guard post:전초)에서 소총수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좋은 말

신념이나 격려 또는 ‘사랑한다’라는 말이나 배려하는 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어문 규정에 맞는 말 역시 좋은 말입니다. 앞서 ‘이상한 말’이나 ‘나쁜 말’을 먼저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설명한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이 ‘좋은 말’을 쓰자는 널리 확산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군대에서 추천하는 좋은 말의 예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9) 듣기 좋은 말

- ① 상급자로부터: 수고했다!, 참 잘했다!, 널 믿는다!, 너밖에 없다. 역시 너다!, 너도 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군생활 금방 간다, 고마워!, 기특한 일이야.
- ② 하급자로부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전역 때 꼭 연락처 주십시오!,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힘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이라고 해서 무언가 특별한 점은 없다. 다만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칭찬하며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그런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말들이 듣는 이의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긍정적인 작용은 분명 큼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용기와 믿음이고 이는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 한 마디로부터 시작됩니다.

2) 자료 수집 및 정리

군 장병 대상 국어 강의를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일은 적당한 자료를 구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군대는 내부의 소식이나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무척 꺼립니다. 좋은 점이나 잘한 점은 홍보를 위해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군대 언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군 관련 연구 논문이나 언론 보도 등에서 모으는 자료도 대부분 단편적이거나 수치상으로만 제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언어 폭력 문제를 다룬 논문들은 여러 편 있지만 대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에 그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은어나 비속어 사용 문제를 다룬 논문은 찾아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몇몇 일부 기관에서 군대의 언어 실태를 조사한 바는 있지

1명(김 일병)이 GP 안에서 수류탄 1발을 던지고, 내부만 관물대에 있던 동료 상병의 K-1 소총으로 25발들이 탄창 2개를 난사한 사건이다. (중략-인용자) 이 사건으로 GP장과 7명의 병사가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사자인 김 일병은 평소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욕설 등 인격모욕을 당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진상조사소위원회에서도 내성적 성격과 원만하지 못한 동료관계 등 복무 부적응에 일부 선임병의 욕설과 질책이 상호작용해 일어난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하략-인용자)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만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되고 공유된다면 강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군대 내의 언어 실태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그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병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전 기상 이후부터 밤 취침 전까지 장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 그들이 교육훈련이나 부대관리, 개인정비 및 경계근무 시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희망사항일 뿐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 실태를 어느 정도 가늠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필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육군 포병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복무 중 병사들이나 간부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어나 비속어들을 상당 수 접했고 때때로 언어 폭력을 직접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강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이나 전의 경험이므로 과연 지금도 그 경험이 유효한지는 의문입니다. 이를 비교하고 변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지만 자료의 한계라는 벽에 막혀 있습니다.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의 자료들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연구 논문

동영상

사진

통계 자료

군대 내부 자료

연구 논문

군대의 언어 문제를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부 정보를 외부로 잘 공개하지 않는 군대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의 접근이 쉽지 않은 탓이라 생각합니다. 김상용(2011), 박종형(2010), 박용한(2000)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군대 내의 언어 실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군대 언어 실태와 관련한 동영상 자료로 ‘장병 언어순화 교육다큐’가 있습니다. 국방홍보원 국방TV가 2012년 10월부터 30분 분량으로 총 5부를 제작해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재방송 저녁 7시 30분)에 스카이라이프(533번), IPTV(260번), 전국 각 지역의 케이블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의 심층적인 분석으로 올바르게 긍정적인 언어 소통과 올바른 언어사용을 통한 ‘우리말 생태환경’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2013년 5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특별상 부문에서 ‘바른 방송언어상’을 수상했습니다.²⁾ 국방홍보원 누리집(<http://www.dema.mil.kr/>)에서도 1부~4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아시아경제 2013.5.27. 기사 참조.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할 목적으로 군대 관련 동영상을 찾던 중 유튜브(YouTube)에서 군 홍보 동영상을 다수 보았습니다. 대부분 국방홍보원에서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과거 매우 폐쇄적이었던 군대의 분위기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영상에 소개된 군인의 모습은 한결같이 용기 있고 늠름하며 패기가 넘쳤습니다. 군대에서 외부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늘 자신감에 차 있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차질 없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군이 지향하는 참군인상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복무부적응, 폭언, 폭행, 내부 갈등 등의 군내 부조리를 감추는 현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군대 언어실태 관련 동영상들은 그 파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자료를 찾더라도 막상 강의에서 활용하려니 파일을 구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청소년 언어 실태를 다룬 동영상이었습니다. 군 간부를 제외한 병사들의 평균 연령대가 20세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과 큰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과 일반 청소년들의 나이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사용되는 은어나 비속어 등은 차지하더라도 언어폭력 문제는 청소년 언어 실태를 참조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청소년 언어 문제를 다룬 영상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와 나누는 대화에서 많은 욕설과 비속어가 오가는 점을 보며 예전에 군 복무를 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의 병사들의 대화도 이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군 자체의 언어 실태가 다소 폭력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병들이 사회에서 어려서부터 익혀온 나쁜 언어 습관이 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년 10월 9일 한글날에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방송한 ‘말의 힘’도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이 영상은 밥을 대상으로 ‘고맙습니다’와 ‘짜증나’를 반복해 들려주었을 때 일정 기간 이후 밥에 일어난 변화,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접한 이후 사람들의 움직임의 변화, 대화 시 발생하는 소외 현상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 파일을 구하는 것도 비교적 쉬운 편이라 일정 부분을 편집해 특강에서 활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하고 KBS 한국어진흥원에서 제작한 한글날 특집 ‘싹! 욕 없는 교실 만들기 - 14일간의 이야기’도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비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긴 하지만 교실에서 욕설을 줄이고 학생들이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지도해 가는 과정은 다른 곳에서도 참고하고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필자는 이 영상에서 얻은 힌트를 군 장병 대상 국어 교육에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단어의 머리글자를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적어보는 테스트였습니다. 예를 들면 ‘ㅅㅂ’을 보았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차례대로 적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먼저 떠올린 결과를 보고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도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머리글자를 본 장병들의 반응은 겉연쩍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들 머리에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올랐을지는 대강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테스트는 청중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또, 비속어나 욕설의 폐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효과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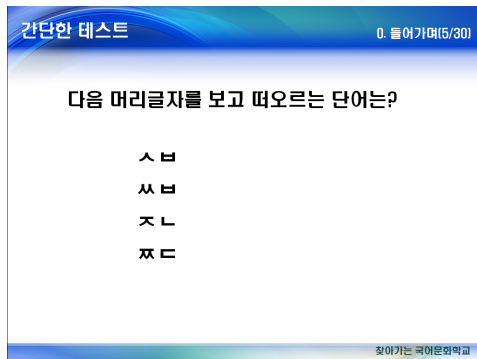


그림 117. 머리글자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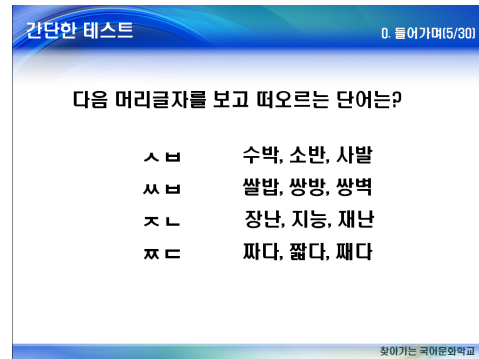


그림 118. 머리글자 단어 예시

통계 자료

명확하게 수치로 제시되는 통계 자료는 강의 내용의 신뢰도도 높이면서 현실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므로 강의의 의도나 내용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필자는 주로 군내 사고 발생을 통계 수치를 강의에서 활용하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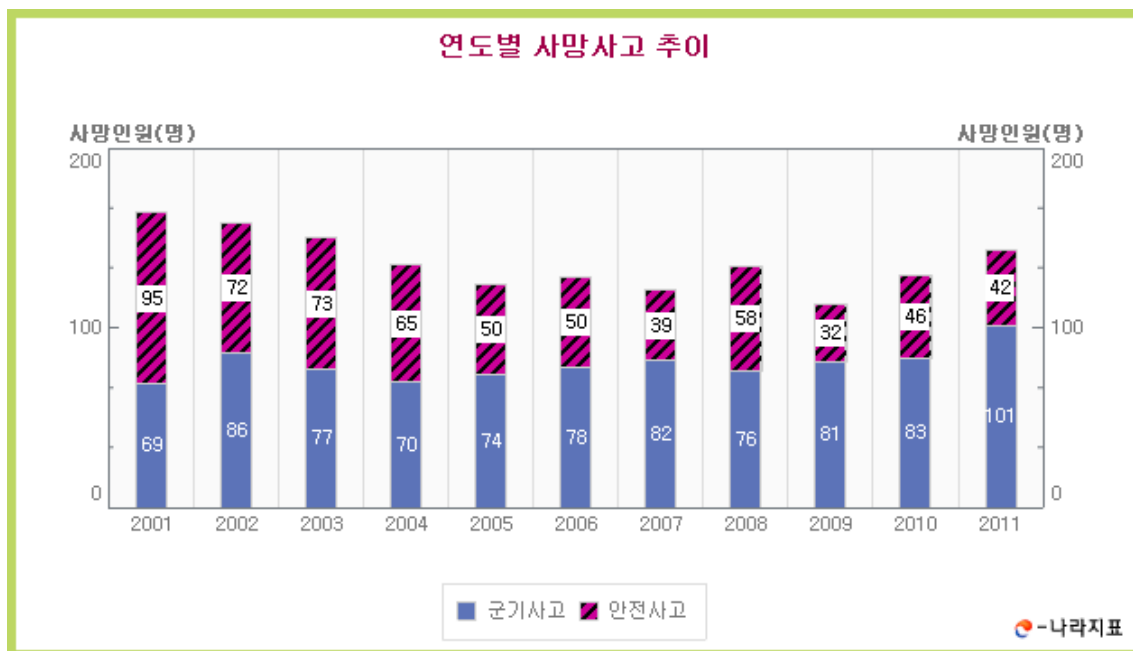


그림 119. 연도별 사망사고 추이(통계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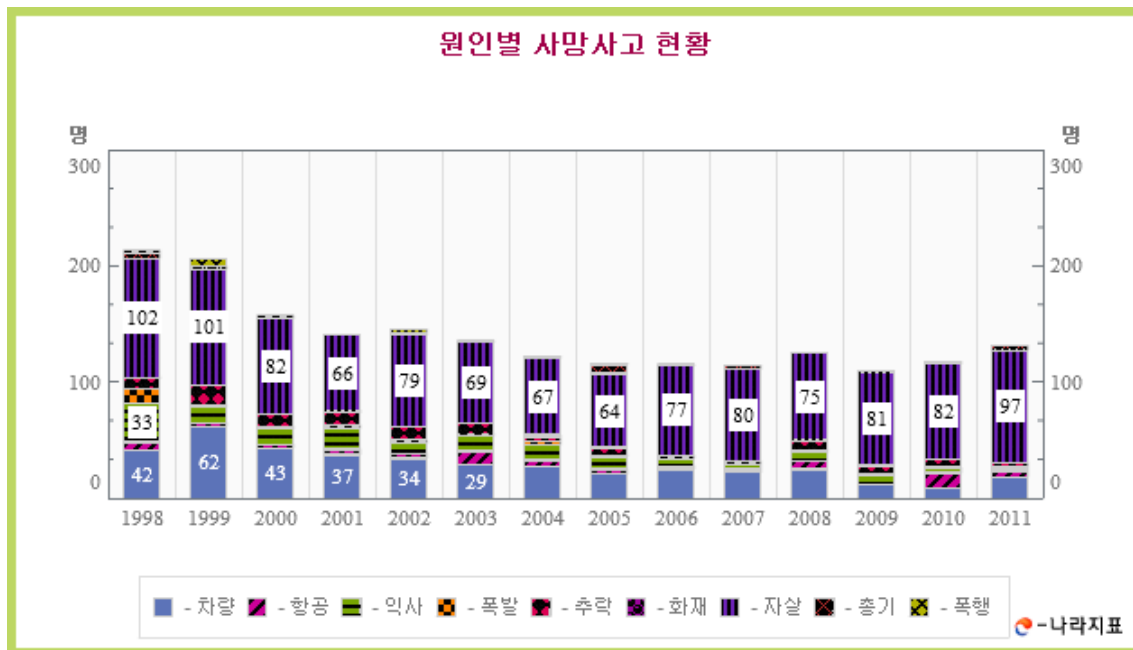


그림 120. 원인별 사망사고 현황(통계청 자료)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는 군 관련 통계 수치도 참고할 만합니다. 한 예로 2011년 9월 22일자 연합뉴스에서는 ‘첫 간부 인성검사.. “위관장교 3.1% 정신과 진료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국방부가 실시한 ‘간부 인성검사 시험 현황’ 결과에 따르면 검사에 응한 중상사 6만38명과 위관급 장교 2만9천130명 등 총 8만9천168명의 10.2%인 9천131명이 전문가 상담이나 정신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위험’ 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관심’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군대 내의 언어실패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지만 대신 이들이 놓여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 또 그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언어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통계 수치는 그림 4,5에서 보듯이 통계 수치나 그래프는 많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한번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수치에 의존한 강의는 현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고 이렇게 과잉된 메시지는 청중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현실감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군대 내부 자료

서울에 있는 공군 제3방공포병여단에서 강의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필자는 그곳의 담당자를 통해 ‘올바른 언어 사용(예)’ 지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급부대에서 예하 제대의 언어 순화 교육 자료로 제작해 배포한 A4 2장짜리 지침서였습니다(붙임 참조). 필자가 군대 언어 실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그 담당자가 그것이라도 참고하라며 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는 강연을 준비할 때 매우 요긴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군대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일본어식 외래어, 일본어, 비속어, 은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

재 군에서 가장 문제라고 여기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강의 이전에 군대 내의 정신교육 시간 등을 통해 장병들이 이미 교육을 받은 내용입니다.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친근감과 익숙함을 느끼게 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 학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강의 진행

첫 강의를 시작한 것은 2013년 1월 15일에 공군 군수사령부 본부에서였습니다. 이때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사연수회를 다녀온 지 한 달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강연 당일 해당 부대를 찾아갔더니 당초 150명으로 예정되었던 청중이 500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2013년 새해 들어 전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어 교육 특강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대 지휘관이 부대 내 장병들에게 강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바람에 청중도 늘고 강연 장소도 더 큰 강당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첫 강연에 500명 청중이라니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대 지휘관이 그렇게 큰 관심을 나타난 데는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난해(2012) 12월 18일에 국방부는 군대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잘못된 군 용어들을 바로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군 용어 순화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각 부대 지휘관들이 군대 내 언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던 때였습니다.

강연이 열린 강당에는 청중이 대략 400여 명 정도 모였습니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긴 시간 동안 무슨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해 하며 그렇게 90분간의 첫 강연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한 강연을 마치고 나니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연이어 군 부대 강연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줄지에 유경험자가 된 것입니다.

1) 프레젠테이션

강연은 보통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시청각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어 특히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강연을 위해 준비한 동영상, 사진, 도표 등을 적절하게 배치해 필요할 순간에 화면에 띄울 때면 마치 마법사라도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 동영상이 재생되고 사진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함께 나타나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강연자만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청중의 반응을 강연자의 의도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강연의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드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여간 많이 드는 일이 아니지만 막상 강연 때 순서대로 넘어가는 슬라이드를 보고 있노라면 뿌듯함과 함께 남모를 보람도 느껴집니다.

처음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연을 준비할 때 필자 역시 초심자가 흔히 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오버’(over, 도가 넘음)한 것입니다. 처음 강연을 맡고 보니 강연을 재미있게 해야겠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자료를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슬라이드 수

가 40여개 가량이었는데 이때는 동영상이나 사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텍스트 위주의 슬라이드로 구성하였습니다. 90분 발표에 슬라이드를 40장이나 준비했으니 나중에 뒤의 슬라이드는 스치듯이 넘겨야 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그 흔한 동영상 하나 없이 텍스트로만 일관된 슬라이드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화면을 지켜보야 했던 장병들의 고충이 아주 컸으리라 짐작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매우 부끄럽지만 그것이 제 첫 강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에서 슬라이드 수는 더 늘어나 60여개에 이르렀습니다. 해군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는데 흥미를 더하고자 군 관련 동영상을 여러 개 첨가하면서 프레젠테이션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향은 세 번째 강연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슬라이드 수는 60개를 넘겼고 주제에 맞는 적절한 군 관련 영상을 구하기 어려워 영화의 한 장면을 편집해서 넣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강연까지는 청중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강연 횟수가 늘어가면서 점점 청중들의 얼굴 표정을 살필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연 진행 중 청중들의 얼굴을 슬쩍슬쩍 살펴보고 했는데 다들 진지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때로 재미난 영상이나 자료가 나오면 그에 맞게 웃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청중들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육군에서는 아직까지 강연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군 전체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공군과 해군에서 강연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두 곳의 장병들은 강연을 듣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살짝살짝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인 채 잠든 이들도 있지만 상당수 장병들은 진지한 태도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단에 서서 이런 청중들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절로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림 121.
공군제3방공포병여단
강연(필자)



그림 122. 공군제3방공포병여단 강연(청중)

그런데 결국 이 프레젠테이션이 한계를 맞게 되었습니다. 진해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네 번째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이 때는 슬라이드 수도 많이 줄여 40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의 강연을 통해 경험이 쌓이고 보니 긴장감도 여느 때에 비해 덜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청중들의 반응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강연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점점 강연장의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막연한 답답함에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지만 어떻게 해서든 강연은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날 문제의 원인은 프레젠테이션에 있었습니다. 강연을 재미있게 하겠다는 생각에 잡혀 눈에 띄는 동영상을 이것저것 첨가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동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청중의 시선에서 발표자는 사라지게 되고 이런 동영상이 여러 개 이어지다 보면 강연의 흐름이 상당히 단조로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강연의 중심에 있어야 할 강사는 한 귀퉁이로 밀려나고 청중들은 무표정하게 화면만 응시하게 됩니다. 그날 청중들의 얼굴 표정은 텔레비전을 켜 놓고 마땅히 볼 것이 없어 그저 화면만 응시하고 있는 사람의 그것과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강연에서는 기존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크게 수정했습니다. 우선 동영상이나 사진, 텍스트 자료 등을 상당 수 줄여 슬라이드 수를 20여장 남짓으로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제작/배포한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테스트 몇 가지를 첨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청중의 관심도 유도하고 강연 주제를 명확하게 인식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공군제11전투비행단 장병을 대상으로 한 다섯 번째 강연은 만족스럽게 끝났습니다. 청중들은 시종일관 바른 자세로 강연을 경청했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역시 인색했습니다. 선뜻 나서지 않는 군대라는 조직이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질문에 금방 답하는 이가 없어도 차분하게 청중들에게 계속 말을 건네며 답을 하는 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에서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가 적절한 대답을 한 장병에게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선물은 대형 마트에서 구매한, 비교적 값이 저렴하면서도 활용성이 좋은 물병이었습니다. 강연을 했을 때가 5월이라 막 더위가 시작될 때였고 또, 군 장병들은 일과 이후에 개인 체력 단련을 위해 운동을 하기도 하므로 물병이 요긴하리라 예상했습니다.³⁾ 선물의 효과는 좋았습니다. 비록 값나가는 선물도 아니었고 청중들이 크게 환호한 것도 아니지만 질문과 응답, 그리고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짧은 시간이지만 강연자와 청중 사이에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케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오래 전 군 복무를 마친 입장에서 현역으로 수고하고 있는 후배 장병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를 한 셈이 되므로 그 자체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를 진행하는 발표자 자신입니다.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강연을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개수는 가급적 줄이고 강사의 구두 발표에 무게를 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의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되고 각종 보고나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정병들은 각종 회의나 보고를 위해 밤을 새워 가며 몇 십, 몇 백 장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고 간부들은 지겹도록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는 일상적으로 대하는 화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미난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가 주는 시각 또는 청각적 즐거움과 효과는 물론 큼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발표를 위한 부수적인 자료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번 느끼지만 프레젠테이션의 성패는 결국 발표자의 발표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3) 선물로 물병을 택하자는 아이디어는 필자의 학과 후배 김소예가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 필자는 머그컵을 선물할 계획이었지만 가격이나 실용성을 고려했을 때 물병이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후배 김소예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2) 강의 장소

현재 대부분의 군부대는 보안 유지 및 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내 컴퓨터에 유에스비(USB)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연 자료를 유에스비 메모리에 저장한 채 강연장을 찾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대에서 강연은 보통 강당이나 교회 등에는 이루어지는데 이곳은 발표를 위해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컴퓨터, 마이크와 스피커 등이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대 내 사정으로 인해 강사 개인의 노트북을 사용하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내에서 강연을 할 때는 반드시 자료를 시디(CD)나 디브이비(DVD)에 저장해서 강연장에 가져가야 하며 사전에 노트북 지참 여부를 해당 부대 담당자에게 물어 보아야 합니다.

강연 당일 현장에서 기계적인 오류로 인해 슬라이드에 첨부한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 시에 제대로 재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강연 시작 전 슬라이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상이 있다면 강연장의 장비를 담당하는 병사나 간부(장교 또는 부사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사람이고 또 가장 부족한 것도 사람입니다. 적절한 사람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군대만큼 인력이 풍부한 곳이 또 없습니다. 반대로 그 많은 인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일손 부족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군부대의 시설 및 장비는 각 부대마다 그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강연장의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다면 이를 해당 병사 및 간부(장교나 부사관)를 통해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하고 싶은 말(시스템의 힘)

필립 짐바르도는 그의 저서 『루시퍼 이펙트』에서 시스템의 힘을 기술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은 상황을 포함한다. 하지만 시스템은 상황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더욱 널리 퍼지며 더욱 광범위한 사람들의 네트워크, 사람들의 기대와 기준, 정책, 그리고 법률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스템은 역사적 토대를 획득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지시하는 정치경제적 권력 구조를 갖추게 된다. 시스템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행동의 맥락을 창조해내는 상황을 가속화한다. 어떤 시점에 이르면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창조해낸 사람들, 심지어 그 시스템의 권력 구조 안에서 명백하게 권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독립적인 개체가 된다. 각 시스템은 그 자체의 문화를 개발해내고 수많은 시스템들이 집단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필립 짐바르도 지음, 이충호·임지원 옮김, 『루시퍼 이펙트』, 웅진지식하우스, 2007, 293쪽)

군대 내 언어 문제는 대부분 이 시스템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은어나 비속어는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집단 내 구성원 간의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들만 보고 지내는 곳에서 또래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그 정체나 기원이 불분명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이 말을 쓰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욕설이나 폭언의 경우 군대에서는 선임병이나 상급자로부터 듣는 것은 일상다반사이지만 그 반대가 되었을 때는 하급상이나 항명, 상관 모독 등의 큰 잘못이 됩니다. 상하 관계가 엄격한 수직적인 조직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막말이나 폭언, 욕설 등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 부분 용인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군대 언어에서 은어나 비속어, 욕설, 폭언 등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이 문제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는 이런 시스템, 군대라는 조직이 가진 이 시스템의 힘이 작용한 바가 큼니다. 따라서 군대의 언어 문제는 특정한 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군대라는 조직 전체가 가진 문제입니다. 잘못된 인식을 일깨우고 올바른 언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와 같은 활동입니다.

3. 마치며 -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의 의미와 의의

매번 강연을 할 때마다 일회성에 그치는 강연이 과연 군대 언어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는 했습니다. 물론 이런 강연 외에도 교육훈련이나 정신교육, 면담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군내 잘못된 언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의 장병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여러 교육훈련이나 부대관리, 경계근무 등에 쓰고 있고 그 이후엔 남은 짧은 시간 동안 개인정비를 할 만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90분 간의 강연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 점이 필자에게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회성의 교육이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군대 내에 상존하는 여러 언어 문제들을 개선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강연에 참석한 청중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행동은 강사의 한 마디 말에서 촉발될 수도 있고 그날 강연에서 본 동영상이나 사진 혹은 다른 자료 통해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청중 가운데 상당수는 그러한 자극을 받지 못한 채 강연장을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 필자는 그 불확실성 가운데 극히 적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금껏 강연을 해 왔습니다. 필자가 그날 강연에서 준비하고 제시한 내용 중 일부라도 청중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것으로도 보람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강연을 나갈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말에 대한 장병들의 관심은 예상보다 큼니다. 그들에게 참신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하는 것은 오롯이 강사의 몫입니다.

오늘 여기에 소개한 강연 경험이 앞으로 군 장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될 여러 강사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자료〉

- 구자섭(2009), 공군 신병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에 따른 우울, 불안, 자살사고에 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2011), 『(요긴하게 쓸 만한)다듬은 말 61개』
- _____ (2011),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
- _____ (2011), 『한국 어문 규정집』
- _____ (2010),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 권인숙(2009), 징병제하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군대문화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9-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85-219.
- 김광률, 남상인, 김무영(2010), 상사의 공감수준과 부하의 복무적응간의 관계 연구, 『상담학 연구』11-4, 한국상담학회, 1537-1549.
- 김상용(2011), 언어폭력이 장병 부대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의열(2009), 신세대 장병의 적응실태 및 군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2-2, 한국군사회복지학회, 67-108.
- 민진(2010), 군대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53-3,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97-123.
- _____ (2011), 군대조직문화 특성의 도출과 분석, 『한국조직학회보』8-3, 한국조직학회, 91-121.
- 박금자(2012),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정의롭게 말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마셜 B. 로젠버그 지음, 캐서린 한 옮김(2012), 『비폭력 대화』, 한국NVC센터.
- 박용한(2000), 군대 영내거주자 집단의 ‘-말입니다’ 사용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8-2, 한국사회언어학회, 169-192.
- 박재권(1999), 일본어투 군대용어 조사, 『일본의언어와문학』4, 단국대학교 단국일본연구학회, 73-91.
- 이덕배(2011), 한국어에 잔존하는 일본어의 실태에 관한 고찰, 『일본어교육』57, 한국일본어교육학회, 77-88.
- 송경재(2011), 한국적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군 장병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종형(2010), 군내 언어폭력! 이대로 좋은가?, 『군사논단』63, 한국군사학회, 260-273.
- 박재현(2009), 군 조직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언어 교육 방향, 『사회언어학』17-1, 한국사회언어학회, 159-183

〈붙임 1〉 올바른 언어 사용 지침(군대 내부 자료)

올바른 용어사용(例)

○ 일본어식 표현

일본식 용어	올바른 용어	일본식 용어	올바른 용어
작일	어제	금일	오늘
명일	내일	일조/일석	아침/저녁
다이	대, 받침	내역	명세
기합	얼차려	구보	땀걸음
계원	담당자, 담당병사	불출	내어 줌
하명	명령, 지시	식비	밥값
신원조회	신상조사	양식	서식
주기	표기	출두	출석
마후라	목도리, 소음기	막사	생활관, 건물
반도	밴드, 띠	빵카	진지, 병커
식관	밥통	호로	덮개, 포장
가라	가짜, 헛~	요대	허리띠
빠클	버클	귀관	자네
분빠이	분배, 나눔	쇼부	홍정

○ 호칭 및 병영생활 관련 은어

은어, 비속어	올바른 용어	은어, 비속어	올바른 용어
5대기	5분대기조	군바리	군인
아저씨	전우님	피돌이	PX관리병
땅개	소총수	왕고	최선임
말년	전역임박한 병장	말변	마지막 근무자
깍새	이발병	총기다이	총기거치대
짬통	잔반통	짬처리	잔반처리
빡세다	힘들다	짬	군 경력
갈구다	괴롭히다	화이바	방탄헬멧
짱보다	망보다	깁깁이	방상내피
탄창	탄알집	뚜껑	전투모
더블백	의류대	쌀자루	지휘관 휘장

○ 축약된 용어

축약어	올바른 용어	축약어	올바른 용어
작부	작전부사단장	행부	행정부사단장
엽사	엽기사진	열폭	열등감 폭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먹튀	책임회피(먹고 팀)
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삼	~하세요. 하십시오.

○ 듣기 좋은 말 / 듣기 싫은 말

구분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상 급 자 로 부 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고했다! • 참 잘했다! • 널 믿는다! • 너밖에 없다, 역시 너다! • 너도 할 수 있어! •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 조금만 참으면 군생활 금방 간다 • 고마워! • 기특한 일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 줄 아는 게 뭐야? • 어리버리해! 지금 뭐하냐! • 짬밥을 거꾸로 먹냐? • 너는 왜 그리 멍청하냐? • 영창가고 싶냐? • 휴가 잘라야겠군. 군장 싸라! • 억울하면 군대 빨리오지! • 빠져 가지고!
하 급 자 로 부 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멋있습니다! • 전역때 꼭 연락처 주십시오! •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 힘 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능력 있으십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그러십니까? • 뭐 말입니까? • 똑바로 하십시오! • 전 잘못 없습니다! •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 어쩔 수 없습니다! •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획·편집: 황두연(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과장)

박미영(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사)

집필: <차례순>

1. 한국어 어문 규정 교육의 의의와 실제(이관규 | 고려대학교)
2. 한글 맞춤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박종덕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3. 표준어 규정 교육의 이해와 실제(권미영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4. 외래어·로마자 표기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김주미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5. 문장 바로 쓰기 교육의 이해와 실제(방영심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6.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 교육 자료 공유(하영우 | 국립국어원)
7.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육 자료 공유(전영곤 |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국립국어원 2013-03-07

국어문화학교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8회 강사 연수회 자료집

2013년 7월 5일 인쇄

2013년 7월 9일 발행

발행인: 민 현 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3
